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1677-01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

2012. 10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10.

- 연구 기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 책임자 : 이정희 (중앙대학교)
- 연구 원 김종진 (중앙대학교)
- 연구보조원 : 허성윤 (중앙대학교)



## [ 요약 ]

### I. 서론

####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역산업을 진흥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2004년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작한 지역농업클러스터의(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이와 함께 광역 식품클러스터 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그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함
-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개 분야로 구성됨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소개와 현황을 제시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의 성과와 한계, 시사점을 제시
  -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필요성 검토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발전 방안 마련

### II.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현황

- 국내 농업은 한미 FTA협상 타결, 기후변화 등의 외부시장경쟁의 격화와 인구의 고령화, 토지자원 약화(지력감소 등), 성장을 위한 재투자 자본 등 내부자원의 활용가능성이 극도로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특성화 및 차별화는 글로벌 시장 하에서의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으로 등장하고 있음.
- 지역농업 산업화는 지역농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 품목과 인적, 조직적, 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2004년 농림수산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통해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클러스터 정책을 수립하였고, 지역농업클러스터를 “일정 지역에서 농업의 생산, 유통, 가공, 저장 등 농산업 관련 업체, 지방대학, 농업관련 연구소, 시·군 등이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업체의 사업기회 확대와 지역농업 혁신의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로 정의하였음

##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현황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2005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됨. 2005년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현재 67개 사업단이 선정되었음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사업단 선정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05	2008	2009	2011	합계
계	20	22	12	13	67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2.5), 『2012년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업무편람』

- 사업단 선정 후 3년간 50억 원(국고+지방비) 내외로 차등지원하며, 사업 종료이후 평가를 통해 추가 지원함. 자금의 용도는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부지매입비, 개별소유시설,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의 하드웨어 및 사업과 관련 없는 시설의 건립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함
  - 자금용도는 주로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로 한정되는데,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에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클러스터 주체 간 네트워크 촉진, 전문 CEO영입 비용 등이 포함되며, 산업화 및 마케팅비에는 공동브랜드 개발 육성 및 홍보, 상품개발 R&D지원, 공동이용시설 등이 포함됨

## □ 유사 정책사업과의 비교분석 및 차별성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유사사업과 일부 중복성이 있기에, 유사사업과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중복사업에 의한 예산 낭비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품목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걸맞도록 사업체계를 개편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농수산물 생산유통 중심, 농어촌자원복합화사업은 테마·체험중심,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은 농수산물의 기능성에 중심을 두고 있음. 현재까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중 일부가 농수축산물의 생산, 유통 사업이나 테마 체험 중심, 일부 단순가공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비교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가 있음

- 지역전략식품사업은 유사사업과 차별화를 통해 지역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 즉, 지역 농축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지역농업의 전략화가 가능하도록 품목 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가가치와 시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역시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구분	지역전략 식품산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어촌자원 복합화 지원	신활력사업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	지역연고산업 육성
사업 유형	가공중심	생산유통	생산유통/체험관광	가공/관광	가공/기능성중심	R&D중심
사업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 (의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사업 추진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업조직</li> <li>생산자단체</li> <li>농수산물가공업체</li> <li>체험휴양마을사업자</li> <li>연구단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활력 지역 지자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 농어업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li> <li>연구소</li> <li>기업</li> <li>기업지원기관 등</li> </ul>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중심</li> <li>H/W 사업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li> <li>H/W</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li> <li>H/W</li> <li>사업추진단 운영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중심</li> <li>- 지역자원개발</li> <li>- 문화관광개발</li> <li>- 인재육성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중심</li> </ul>

□ 해외사례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에 주는 시사점

- 먼저, 지역전략식품사업 선정 시 해당 품목의 가능성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사업 기반을 고려하여 지역전략식품산업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지역전략식품사업이 1차 산업에서 나아가 2, 3차 산업과 연계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만큼 이를 위한 시설 및 교통 등의 기반시설, 연구기관과의 협력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야 함
- 둘째, 사업단의 거버넌스 체계가 명확하여야 함. 해외 클러스터의 경우 지원기관과 참여 기업 간의 역할 분담 체계가 명확하고 네트워킹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음. 현재 사업 선정이 전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등 준비부족으로 본 사업 추진 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실한 사업계획서, 사업단 역량검증의 미흡으로 1차년도 사업 초기에는 사업단 법인구성, 방향설정 등에 대부분의 역력을 소비하는 상황임.
- 셋째, 자금 지원은 단기적 소비성 투자나 시설투자가 아닌 S/W중심의 지속가능한 부

분에 초점을 두어야 함. 해외 클러스터의 경우 클러스터 기반이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원기관은 기반형성이 아닌 클러스터의 핵심기능(네트워킹 및 기업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지역전략식품산업 사업이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클러스터 기반시설은 사업의 선정단계에서 고려되거나 하드웨어 지원 사업으로부터 지원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소결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농산물의 전략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중심으로 가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체계를 강화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사업단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S/W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즉, 지역자원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가공중심 품목선정을 통한 타 사업과의 차별성을 제고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단 운영주체의 역량강화, S/W중심의 지원, 사업의 지원체계 개선(예: 준비기간을 포함한 단계적 선정절차) 등이 필요함

## III.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실태분석

###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실태조사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실태조사는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며, 여기에 전화와 현장인터뷰를 포함하여 실제 현황조사의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을 보완하고 추가함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실태조사는 기존에 실시한 19개 우수 사업단 조사를 포함한 2005, 2008, 2009년 3년 동안 지원 사업을 실시했던 54개 사업단에 대한 분석으로, 지원 연도별 분석, 참여지역, 사업단 매출, 영업이익, 참여기업체수, 참여 농어촌수, 마케팅효율성, 수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짐
- 사업단 운영유형은 지자체주도형, 대학/연구소 주도형, 사업단 주도형으로 구분되며 각 형태는 사업단 운영 주체에 대하여 구분됨

- 지자체를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다보니 별도의 수익 사업이나 설비사업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으며, 지원 사업을 통해 참여 농어민 및 기업의 매출이나 효율이 증대 되었다고는 하지만 수치상으로 뚜렷한 매출증대를 보이는 곳은 없었으며 기존의 사업기반을 가지고 시작한 참여농어민만 추가적인 지원금을 바탕으로 일부 매출증대를 보여 주고 있음

〈표〉 사업단 운영 지속성 여부 확인

(단위: 개소)

구분		사업단주도형		지자체주도형		대학/연구소주도형		합계		
지원년도	운영여부	보고서	현재	보고서	현재	보고서	현재	보고서	현재	차이
2005	운영	7	7	2	1	1	-	10	8	▲2
	미운영	-	-	8	9	2	3	10	12	2
2008	운영	13	13	9	7	-	-	22	20	▲2
	미운영	-	-	-	2	-	-	-	2	2
2009	운영	10	10	-	-	2	2	12	12	-
	미운영	-	-	-	-	-	-	-	-	-
합계		30	30	19	19	5	5	54	54	-

출처: 인터뷰 실태조사를 통한 각 사업단 현황자료

####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사업단분류 분석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2005, 2008, 2009년 사업단 운영 /미운영을 확인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사업단 운영의 올바른 모델을 분석하고자 함. 사업단의 운영/미운영을 사업단운영 형태, 사업단 사업형태, 지역, 생산품목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사업단운영/미운영분석

- 미운영 사업단의 경우 대부분이 단순한 생산/유통 사업단이 많으며 지원사업 위주의 사업단은 오래 지속되지 못함

〈표〉 사업단 사업 운영형태에 따른 사업단 운영/미운영 분류표

구분		2005년		2008년		2009년		합계	
		운영	미운영	운영	미운영	운영	미운영	운영	미운영
사업 운영형태	생산/유통	4	8	9	2	7	0	20	10
	부가가치 가공사업	4	1	9	0	4	0	17	1
	테마가공	0	3	2	0	1	0	3	3

출처: 인터뷰 실태조사를 통한 각 사업단 현황자료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산업의 사업단 운영 /미운영을 생산 상품 분류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함
- 단순하게 미운영 사업단의 수로 보면 원예, 축산이 가장 많으며, 특히 2005년에는 전체에 80%, 66%가 넘는 미운영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8년에 축산 사업단 중 약 50%가 향후 사업단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50%도 운영여부가 불확실함
- 원예사업 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 지자체 주도형이 모두 미운영이며 참여기업이나 참여농가의 50%가 현재 사업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용 작물 사업단의 경우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상품화를 위한 연구비용 또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표〉 사업단 생산품목에 따른 사업단 운영/미운영 분류표

구분		2005년		2008년		2009년		합계	
		운영	미운영	운영	미운영	운영	미운영	운영	미운영
생산 품목 유형	원예	1	4	11	1	3	0	15	5
	축산	2	4	7	0	5	0	14	4
	가공	2	1	1	0	0	0	3	1
	특용작물	1	3	1	0	1	0	3	3
	식량	2	0	0	0	2	0	4	0
	수산	0	0	0	0	1	0	1	0
	기타	0	0	0	1	0	0	0	1

출처: 인터뷰 실태조사를 통한 각 사업단 현황자료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산업의 사업단 미운영/운영에서 사업단 자립 가능여부 및 향후 지원 사업 종료 후에 사업단 지속 여부를 확인해보면, 2005년도에 종료한 사업단의 80%이상이 지원사업 종료 후 자금 부족으로 사업단을 미운영하는 경우로 전체의 80% 이상이 지자체 주도형, 대학/연구소 주도형 임. 2005년 지원 사업종료 후 종료된 사업단의 75%가 단순생산/유통 사업유형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며 단순한 판매장 설립 후 판매 위주의 사업이 많음

〈표〉 사업단 운영 현황 및 지원 사업 종료 후 예상

구분	2005년		2008년		2009년		합계	
	운영	미운영	운영	미운영	운영	미운영	운영	미운영
	8	12	20	2	12	0	40	14
자체적으로 사업단 운영가능	4	0	13	0	8	0	25	0
사업단 운영이 어려워 향후 사업단종료 예정	2	0	7	0	2	0	11	0
사업단 불필요 (참여농가,기업 자립가능)	0	2	0	0	0	0	0	2
지원사업 종료로 사업단 종료(운영자금 부족 등)	2	10	0	2	2	0	4	12

출처: 인터뷰 실태조사를 통한 각 사업단 현황자료

####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사업단의 사업준비 분석

- 2005년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산업의 매출 발생을 보면 지원년도에 매출이 발생한 사업단은 전체의 35%뿐임
- 2008년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산업의 매출 발생을 보면 지원년도에 매출이 발생한 사업단은 전체의 41%로 나타남
- 2009년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산업의 매출 발생을 보면 지원년도에 매출이 발생한 사업단은 전체의 35%뿐임

####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사업단의 분류별 매출분석

- 지역전략식품산업의 사업단 생산품목군 매출분석은 2005, 2008, 2009년의 3년간을 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지원사원이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원사업 시행기간  
중과 종료 후 기간을 포함하여 5~7년간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과를 조사 분석함

- 2005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전체적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실적이 전년 대  
비해서 떨어지는 추세이며, 지원초기에 신장률 증감보다 지원 사업 후기에 신장률 감  
소폭이 더 크며, 지원사업 종료 후에는 매출 및 영업이익이 없는 사업단도 있음
- 2008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전체적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실적이 전년 대  
비해서 약간 신장하고 있지만 증가 폭이 미미한 수준임
- 2009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전체적으로 볼 때, 매출액에서는 몇 개 사업단을  
제외하고는 신장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전체적으로 점차 감소하는 실정임

####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사업단의 애로사항 분석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2005, 08,09년 3개년을 거치면서 54개의 사업단 및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각 사업단이 지원사업 종료 후에 사업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 개선사항들을 직접 듣고 확인하고자 함
- 지역농업식품클러스터 시범사업(2005년) 애로사항은 지원 사업 초기에는 사업의 체계  
가 미비하고 단순한 지원사업 위주의 사업이 많아 사업단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경  
우가 많음

〈표〉 지역농업식품클러스터 시범사업(2005년) 애로사항 분류표 (단위: 개)

내용	사업단수
지원 사업 종료 후 지속적으로 운영자금이 지원되도록 조치 필요	(63%)
사업단 운영시 설비시설 운영에 대한 효율성 증대 요청	(19%)
사업단의 법인화나 사업화하여 이익추구를 할 수 있도록 변경요청	(6%)
사업단의 생산품목이나 시스템에 대한 홍보 및 공동마케팅 지원요청	(6%)
계약재배 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3%)
생산 상품의 인증 요청	(3%)
합계	(100%)

- 1차 광역클러스터(2008년) 애로사항은 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장 큰 애로 사항으  
로 나타남

〈표3-19〉 1차 광역클러스터(2008년) 애로사항 분류표 (단위: 개)

내용	사업단수
적절한 예산 배정 및 진행에 대한 정책 및 지침 확립 후 배정	(28%)
사업단의 안정화, 사업화, 자율화를 위한 준비기간 및 정책 수립 필요	(21%)
전문 인력보강 및 교육 체계화 필요(관계기간 협조 및 침서 확립)	(17%)
홍보, 마케팅의 공동화 및 지원 필요 (관광, 유통, 교육 등과 같은 연계시스템을 통한 홍보)	(10%)
사업단의 운영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 대출 요청	(7%)
연구기관 설립 및 공공화 작업요청	(7%)
지원사업의 기간연장 필요/통합 쇼핑몰 설립	(7%)
지자체 관계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어려움	(3%)
합계	(100%)

- 2차 광역클러스터(2009년) 애로사항은 사업단의 주요 애로의 하나는 개별 각 사업단의 인적구성 체계의 불합리와 전문성의 결여임

〈표〉 2차 광역클러스터(2009년) 애로사항 분류표 (단위: 개)

내용	사업단수
적절한 예산 배정 및 진행에 대한 정책 및 지침 확립 후 배정	(46%)
전문 인력보강 및 교육 체계화 필요(공동전문 인력채용 및 전문가 영입)	(21%)
공동 홍보, 마케팅 및 각 사업단간에 비즈니스교류, 정보공유 필요(비슷한 사업단 또는 타 사업단에 대한 운영 매뉴얼 공유)	(13%)
생산상품(국산품)의 인증 요청 및 의무사용	(8%)
사업단의 안정화, 사업화, 자율화를 위한 준비기간 및 정책 수립 필요	(4%)
지원사업의 지원금 추가연장 필요	(4%)
지자체의 관계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어려움	(4%)
합계	(100%)

- 2005~09년 전체 애로사항을 정리하면

- ① 지속적인 운영 지원금 추가지원 요청(25%)으로 사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간의연장이 필요함
- ② 적절한 예산 배정 및 진행에 대한 정책(23%)으로 사업단 유형 중에 가공 사업단의 경우 설비, 장치시설이 필요할 때 예산이 분할 배분되기 때문에 시설이 완료 될 때까지 사업운영이 안되며, 연초에 예산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예산 배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에 어려움이 많으며 초기년도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거나 사업 후반년도에 사업비의 필요성이 사업단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유동성 있는 예산 배정이 필요함

- ③ 전문 인력보강 및 교육 체계화 필요(12%)가 필요하며 사업단의 전문 인력이나 사업단 전문경영인의 부재로 인해 사업단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 2005~09년 전체 애로사항 분석을 통한 시사점으로 ①지원 사업 위주의 사업단 운영이 많아 현재의 단기적인(3년)으로는 사업의 안전화가 어려움으로 장기적인(6년이상) 지원금 지급 필요 ②사업단운영에 효율성을 위해 예산 배정 자율화 및 사업단의 법인화 사업단 경영진에 대한 교육 및 책임관리 필요 ③사업단의 단자이나 경영진의 사업이 해와 경영 효율을 위해 관련교육 및 책임감을 갖기 위해 사업의 독립성 필요 ④사업단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적인 지원정책 필요

####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사업단별 우수사례

- 무안 황토고구마클러스터 사업단(2008년) : 고구마 대표 브랜드 “토글토글”개발을 개발하며 사업단 및 자회사의 주식총액은 297백만원으로 농어민 지분이 98.8%가 넘고 있음 사업단 매출액은 2010년에 8억원에서 2011년에는 30억원으로 275%신장했음
  - “자색고구마를 이용한 기능성음료 개발” 등 신제품 개발(10건) 및 스넥 제품 개발 등 신제품 출시(5건)
  - 고구마 브랜드(토글토글)를 체계적으로 관리, 브랜드 상품의 대형마트, 백화점 등(18개소)의 출하에 역점을 두어 농가소득 증대
  - 농어민 생산 상품의 품질개선을 해주는 위탁사업만으로도 수익이 발생
- 청정약용작 사업단(2009년) : HW사업 축소하고 주변농가 경제지원 및 마케팅 확충으로 가공사업의 시설투자를 안하고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위탁 생산해서 설비 투자비용 줄이고 위탁생산으로 농가에 경제지원 효과 보고 있음
- 서부 양돈 사업단 : 서부충남 대표 브랜드 “마블로즈”개발하며 사업단 매출액은2010년에 140억에서 2011년 242억으로 100%이상 신장했음
  - 돼지카페 마블로즈 준공에 따른 대중매체 광고 및 행사를 통한 브랜드 홍보 강화 등으로 적극적 업무 추진
  - 매월 집합 교육을 통한 기술지도 실시와 이력관리시스템 적용 농가를 경험하게 하여 사업단의 필요성을 인지 지속적인 관리로 신뢰도 향상과 교육 참여 유도
  - 공동 브랜드(마블로즈, 참지음) 개발(‘10, 상표등록)

- 햄 소세지 제조방법, 식당메뉴 개발 中(청운대학교)
- 감고부가가치사업단: 사업단 참여 지역 약 30여 가공 농가 및 단체와 반건시 제품 표준화를 통해 홍보 및 판매 활성화하며 국내 최대 3대 홈쇼핑사를 통한 판매, 추석명절 상품전 참가함
- 감 관련제품 연구개발 및 생산(감음료, 감아이스홍시, 감비타민, 감초청등)
- 지역연고 산업진흥사업(사업비: 3,811백만원) : 네트워크, 제품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 창포마을 종합개발사업(사업비 : 4,300백만원) : 안티에이징 이미지구축
- 후방위 산업화를 통한 가공을 향상을 위해 대형 식품업체와 감 제품 위탁생산 및 원료 공급으로 감의 고부가가치화 제품 소비 증가를 촉진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 후 사업단 자립화를 목표로 안정적인 사업 확대

####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사업단별 마흡사례

- 미흡사례에서는 05,08,09년도에 선정된 사업단의 현재 운영 형태나 지원비 사용 현황을 분석하여 사업단 운영의 위주로 정리 하였으며 사업단의 미흡기준은 사업단의 매출, 사업단운영여부, 지속가능성, 사업단 운영 계획 달성률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사업단의 단순한 사업형태로 인한 미흡사례
- HW중심의 사업진행으로 사업단 미흡사례
- 사업단장의 경영부실로 인한 사업단 미흡사례
- 사업단의 사전 준비 미흡으로 사업단 운영 미흡사례

〈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사업단별 미흡사례 분류표

구분	2005	2008	2009	합계
1.사업단의 사업 수익성 미흡으로 인한 사례(판매장등)	- 친환경괴산청정고추 - 경남 양돈산업 - 전남 친환경쌀	- 홍성 백년대계한우 - 충북 친환경축산 - 경남 서북부한우 - 제주마산업	- NH참여우	9
2.무리한 HW사업 중심의 미흡사례	- 강원 한우 하이록	- 경북 상주 고행지포도 - 논산 예스민 딸기	- 강원 산우리 재래돼지	4
3. 사업단(CEO, 사무국장)을 경영미숙으로 인한 미흡사례	- 강원 백두대간	- 서산생강		2
4.사전준비 미흡으로 인한 대표적 미흡 사례	- 장수 애플 사업단		- 경기 팔당클린 농식품 - 전북 청보리 녹색산업	3

####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실태분석 결과를 통한 문제점 분석

- 사업단 운영 형태에 따른 문제점으로 과도한 HW사업으로 인해 사업추진의 어려움과 사업 중단사례가 빈번함
  - 지자체 주도형의 경우 : 운영 주체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다보니 HW사업 중심의 사업이 많으며 전문화 되지 못하고 복합적인 SW사업이 많음
  - 자금의 선 지급의 필요성, 운영자금 확보, 연도 말 정산 및 이월 등 세부 집행에 대한 담당자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발생.
  - 사업단 주도형의 경우 : 인건비 지급, 해외연수 경비 산정, 자금 집행 증빙자료 징구, 경비 지급 시기, 자부담비율 산정 및 자부담 집행 확인 등 행정의 집행시스템과 민간조직의 경상비 집행시스템의 부조화로 어려움이 있었음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실태 조사결과 단순한 생산/유통의 사업단이 많으며 이를 유지 지속하려면 계속적인 지원비 지출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악순환 예상
  - 특히 축산사업 유형 사업단의 경우는 전국에 54개 사업단 중 16개 사업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단순한 생산/유통사업유형이 많아 지속되지 못하고 있음
- 사업단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다음년도 시행 사업단 선정이 전년도 하반기에

- 이루어지는 등 준비부족으로 인해 본 사업 추진 시 원활하게 진행 어려움
- 사업 초기에는 사업단에서 법인구성, 방향설정 등에 대부분의 여력을 소비하는 상황(이해 수준 및 추진 역량에 큰 차이)
  - 급조된 사업계획서, 사업단 역량검증 미흡, 광역화로 인한 협의·조정비용 과다, 생산 연계미흡 및 식품업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이 문제로 대두
  - 사업단장의 역량 부족으로 참여 조직간의 의견조율 부재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 발생
  -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부족과 의사결정구조 복잡성으로 사업단장의 사업추진에 장애 요소로 작용
  - 대학교수 등이 사업단장을 맡은 경우, 연구과제 등에만 관심이 있고 책임성이 떨어짐
  - 참여업체 관계자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특혜 시비로 부각
  - 사업비 과다·부실지급, 지원배제 대상에 사업자금 지원, 사업단의 경영상태 부실, 교육·홍보비 관리 미흡, 유사사업에 자금 중복·혼용집행, 특정업체 위주 사업추진, 물품관리 미흡, 사업비 정산 미흡 등
- 사업단 지원 사업 종료 후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사업 종료 후 존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생산자 참여 저조 등으로 실효성 미흡
- 법인 설립 시 출자 능력을 갖춘 가공업체 위주로 주주가 구성되어 사업단 지원 명분이 약함
  - 일부 사업단의 경우 정부지원 종료 후에 미 운영 사례발생
  - 특히, '11년 사업단의 경우 생산과 연계가 미흡한 식품업체 위주로 사업단이 선정되면서 참여업체 위주로 나눠 먹기식 사업방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 생산자는 사업단의 성공모델에 대한 신뢰 부족, 출자 여력부족 등으로 참여기피
  - 사업단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는 중간점검, 사후평가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부재
  - 사업추진 과정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정상적인 사업추진 여부 파악 등에 어려움
  - 사업 추진중에 대부분의 업무(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등)를 농식품부에서 직접 수행하면서, 수시로 필요에 따라 학계 등 전문가 활용,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확보 미흡

- 사업단으로 선정되면 중간평가 없이 3년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사업이 부실해질 우려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실태분석 결과를 통한 시사점 분석

- 사업단의 운영유형에 따라 매출이나 사업단 운영 효율성이 많이 달라지며 지자체 주도형 < 대학/연구소 주도형 < 사업단 주도형 순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봄
  - 사업 초기(2005년) 지자체 주도형의 80%이상이 사업단운영이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사업단장도 명목상일 뿐,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임
  - 사업단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단 주도형이 효율적임
- 사업단의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단의 존속여부가 달라지며 특히 단순생산유형은 사업단 운영이 어려움 경우가 많으며 전체의 33%이상이 사업단 운영이 안됨
  - 전체적으로 부가가치 사업단의 경우 전체의 5%미만이 사업단운영이 안되었음
  - 사업단 사업유형을 볼 때 사업성이 있는 사업의 검증 및 사업 검토 필요
- 사업단의 생산품목에서는 축산사업이 가장 사업단 미운영이 많았으며 장기적으로도 사업단 종료 예정 사업단이 많음
  - 사업단의 사업성이 안전화 된 생산품목위주의 사업이 필요
  - 가공 사업과 부가가치 원예 사업단이 효율적임
- 사업단이 전체적으로 매출이 저조하며 매출 발생시점도 다양함
  - 사전에 준비 없이 사업단이 시작되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 또한 다양하며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사전에 사업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지원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음
  - HW사업의 집중사업은 사업비 과다로 사업단운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SW사업 위주의 사업이 중심이 되어야 함
- 사업단 운영에 효율성을 위해 예산 지원기간 및 배정 자율화 /사업단의 법인화
  - 지원 사업 위주의 사업단 운영이 많아 현재의 단기적인(3년)으로는 사업의 안전화가 어려움으로 장기적인(6년이상) 지원금 지급 필요

- 유동적인 사업의 위해 예산 배정 자율화 및 사업단의 영리사업을 위한 별도 법인화 필요

#### IV.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 □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의 필요성

- 정부의 광역경제권 육성 '新지역발전정책'
  - 규모의 경제와 연계성의 경제를 도모하고자 광역권별로 지역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선도 사업을 발굴하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자는 의미에서 3차원의 초광역 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을 구상하고, 시·도의 지역전략산업과 해당 광역경제권의 지역선도산업을 육성
-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에서 지역과 국가단위 클러스터의 중간형태인 광역 도(2개도 이상) 단위 클러스터의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지역단위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은 규모나, 통합의 경제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려우므로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광역 식품산업단지를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보다 중요
  - 지역중심의 발전전략은 지역과 밀착되는 장점은 있으나, 소량-다품종 생산구조에서는 규모화의 한계가 있으며, 사업영역 또한 지역으로 한정 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을 가지고 있으므로 품목중심의 연계성을 갖춘 시·군 이상 단위의 광역화 발전전략이 필요

##### □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의 개념

- 기존 광역클러스터사업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 광역클러스터 사업의 한계점으로 들어났던 ①유사 중복사업과의 차별성 부족 ②지역특화 발전 미비 ③클러스터 컨트롤타워의 부재 ④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연계성 부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의 전략적인 발전을 위한 연결성의 경제(economies of linkage)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시너지 효과 등의 창출을 위한 것임

- 단순한 소규모의 지리적 집적체를 초월하여 다수의 중·소규모의 클러스터가 상호연계되어 형성된 대규모의 식품산업단지를 말하며, 공간적 범위, 기능, 참여주체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사업의 유연성이 보장되는 발전적인 형태를 뜻함
  - 식품산업단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참여주체들의 상호 의존성 및 연계의 정도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오히려 다른 지역의 참여주체들과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함
- 광역 도 단위 식품산업단지는 지역별로 산재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의 연계체제의 효율적 구축이 가능하고 집적경제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음
  - 참여자(산·학·연·관)들의 조직화와 호혜적 환경을 구축하여 각 참여 주체들을 수평적으로 이어줄 수 있으며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한 집적지의 임계규모를 달성함

#### □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조성의 예상되는 문제점

- 인구규모의 적절성과 경제성, 임계규모의 타당성, 지역의 역사성과 동질성, 지역간의 연계성 및 투자·재원 마련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광역화 사업이 진행되거나 계획의 잦은 변경 등 사업 일관성과 지속성의 결여가 우려
- 관련부처의 비협조와 부처별 상이한 추진체계로 중복사업과 원활한 사업진행이 진행될 우려와 함께 공동추진을 둘러싸고 자치단체간 사업비 분담이나 설치시설의 유치 및 사후관리 문제 등과 관련하여 불화와 갈등으로 연결 될 가능성이 있음
  - 광역시설 투자사업의 지역간 연계계획 미흡
  - 광역시설 투자사업의 통합지원 결여
  - 광역적 개발시설의 지역간 연계운영 지원미흡
  - 실질적 이행력의 미흡
  - 자치단체조합 활용의 미흡
  - 사무위탁(자치단체협약)의 제도적 불비
- 관련부처와 지자체간 또는 지역간의 경쟁과 중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제거해야만 발전적인 광역개발사업의 조성이 가능함

## □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수요사례 분석

- 경상북도 영양군으로부터 한 곳의 핵심지구(영양군)와 세 곳의 연계지구(양구군, 청도군, 울릉군)를 연결하는 산채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필요성과 제안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채산업클러스터 사업제안을 중심으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고찰 함
- 산채는 산에서 흔히 자라는 식물 중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흔히, ‘산나물’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웰빙(Well-being) 붐의 확산으로 산나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배면적과 생산량, 생산액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산채의 유통은 계절성이 있고 많은 지역에서 소량으로 생산되는 품목으로 직거래 위주의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유통구조상 열악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산채의 효능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증가하는 소비자들의 수요와 건강기능성 기반의 바이오산업과의 연계는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됨
- 경북 김천에 자리하게 될 경북 혁신도시와 안동의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영양군이 국가산채산업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기회인 동시에 위협으로 자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핵심지구(영양군)와 연계지구(양구군, 울릉군, 청도군) 모두 청정지역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산지 지형은 강점인 반면 대도시와 수도권으로부터 원거리의 입지 조건과 교통의 불편함, 고령화 지역으로 인력수급의 문제 잔존, 기존 지역 집적시설이 열악하고 유통과 가공의 기반이 취약함
  - 가공시설과 가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기술, 자본 모두 낮은 수준이며 유통망, 시장개척에 대한 계획 또한 미흡하고 연계지역과의 연계방안 또한 구체적이지 않음
  -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광역 도단위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지역연고산업 등의 형태로 추진하거나 경북 혁신도시 조성에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의견

- 광역 도단위 식품단지조성사업은 사업의 규모와 국비의 지출이 크고 지역에 미치는 파

급력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기반조성과 타당성 분석, 성장잠재력과 해당 지역의 사업 역량평가 등 종합적인 평가와 체계적인 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잠재력이 아무리 뛰어나다하더라도 광역 도단위 육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비전 또는 목표, 그리고 계획이 명확해야 방만한 운영을 지양하고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음
-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협력관계와 지역의 내재적 요소의 기반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설계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운영시스템에 의해 발전적인 형태로 운영되어야, 광역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임
- 지역의 여건이나 부존자원 및 특성에 맞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핼비현상(Please in my backyard)이나 정치 논리에 입각한 입지 선정을 반드시 지양해야함

## V.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발전방안

###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 사업단장의 채용요건과 자격요건 등 사업단장에 대한 자격 및 채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전문성 부족 등 자격이 부족한 사업단장으로 인한 사업단 경쟁력 저하 발생
- 사업단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갖추고 사업경영의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자에 한한다는 자격 요건 지침에 따르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리고 사업단의 직원은 참여업체나 기관의 파견이 아닌 자체 직원을 채용하여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임
- 참여기업, 사업단, 지자체, 그리고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협력체제가 취약함
- 사업단의 80%가 산관학연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작함. 이는 사업단 선정 평가에서 구성 조건이 산관학연으로 되어 있기에 때문에 선정되기 위한 형식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실제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협력에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었음.
- 사업단장과 사업단 직원들은 참여기업의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인사권을 가진

- 참여기업의 요구가 불합리 하더라도 거부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등의 사업단의 독립성이 부족함 또한, 사업단 조직형태가 다양하고 독립법인화율 저조
- 사업단은 참여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법인 설립과 사업단장과 직원 채용 등, 사업단이 독립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평가에 반영하여 할 것임.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해당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산업화하고 산·학·연·관을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어촌자원복합화 지원사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과 유사성을 지님
  - 본 사업은 원래의 취지에 따라 가공식품 중심 지원사업에 국한하고, 생산/유통이나 체험 및 테마 등과 같은 사업지원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임.
  - 본 사업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기간이 시작되면 일정과 예산집행 지침에 쫓겨 사업단의 역량을 제대로 갖출 수 없는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문제가 있음.
  - 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예비사업단을 선정하여 일정기간 준비기간을 거치고 다시 평가하여 본 사업단을 선정하는 단계적 선정절차가 필요
  - R&D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으며 있더라도 소규모이고 성과로 연결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임
  - 향후 R&D 지원은 사업단 예산에 포함하지 말고, 기술 수요를 조사하여 농기평이나 국가식품클러스터 R&D센터를 통해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제가 좋을 것으로 보임
  - 가공사업보다는 생산·유통사업에 치중되어 본 사업의 본래 취지가 퇴색 되었다는 의견이며, 가공 또한 그 부가가치가 아주 높지 않은 사업 위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리스크가 큰 가공사업을 회피하고 공동판매와 같은 리스크가 크지 않은 안전한 사업에 치중하려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본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 지원사업 위주로 하고, 생산/유통 혹은 체험/테마 위주의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해야 할 것임. 그리고 참여기업이나 기관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민간부담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만들어야 할 것
  - 설비투자의 경우, 초기년도에 투자가 많이 발생하지만 예산 지원은 전체기간에 나누어

-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예산편성의 불합리성을 제거해야 함
- 연도별로 전체 예산규모를 정하고, 그 안에서 사업단의 특성과 계획을 고려하여 예산지원 규모는 총 사업기간에서 그 특성별로 연간 배분은 다르게 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

##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개선 방향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충분히 준비된 사업단이기 보다는, 기존 사업의 연장선 상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음.
  - 이들 사업단은 사업의 리스크가 크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새롭고 도전적인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사업은 가능한 회피하고 공동판매와 홍보 위주의 생산/유통, 아니면 체험/테마 방식의 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가공사업이라 하더라도 단순가공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농식품부의 제한된 인원으로 이 모든 사업단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본 사업의 모니터링 및 관리, 평가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새로운 추진 방향
  - 공장, 판매장, 전시장 등과 같은 하드웨어 시설물은 참여업체가 책임지고, 이러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S/W 중심의 전문 지원이 필요함
  - 준비되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단을 육성 지원토록 함
  - 사업단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일회성이나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부가가치 육성사업의 발굴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개선 방안

- 사단법인 형태의 독립 사업단
  - 사업단장은 독립적이며, 전문성과 함께 책임감을 갖고 지역 기존 업체,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등의 기존 사업(농식품)과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단
  - 사업단 제안은 사업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단체)가 사업단의 조직구성과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단계적 과정

- 예비사업단 선정 후, 6개월 혹은 1년의 사업 준비과정을 평가하고 최종 사업단으로 선정하는 단계적 선정과정 필요
- 예비사업단에 선정된 사업단에게는 소정의 인건비와 활동비를 지급함
- 본 사업에 선정된 사업단은 3년의 기간에 사업을 수행토록 지원하되, 매년 평가하여 차년도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함.
- 1차 본 사업 기간의 종료 전에, 평가를 통해 2차기간의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함.
- 본 사업의 지속성과 중장기적인 사업계획 및 성과를 위해 계속 지원을 통한 사업성과를 높이도록 함.
- 2차 기간 사업의 종료 후에는 그 동안 축적된 사업 역량을 통해 지역의 부가가치 사업의 발굴과 지원을 지속토록 장려함.
- 사업단의 경쟁력 여하에 따라 정부의 지역지원정책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지역 기업이나 생산자단체들과 협력 구축을 통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사업평가 주요 성과지표

- 지원대상업체의 경영성과(가동일수 증감, 매출액 증감, 국산원료사용률, 수출증감, 고용기여정도 등), 지원대상업체 수

○ 사업단 선정방법

- 예비사업단 선정 : 소정의 사업단 운영비 지원 (1년)
- 본사업단 대상자 평가
- 1차 본사업단 선정 : 3년 지원 (매년 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여부 결정)
- 3년 후 2차 사업단 선정 : 1차 사업단 중에서 성과가 좋은 사업단을 2차 사업단으로 선정하여 추가 3년 지원 (매년 사업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여부 결정)
- 2차 사업단 사업종료 후 평가를 통해 지역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단체)으로 발전하기 위한 시드(seed) 성과금 지원
- 7년의 사업단으로서의 경험과 역량을 이용하여 사회적 기업(단체)로의 발전하여 독립하도록 함

○ 지원예산

- 예비사업단 : 1억 활동비 지원
  - 1차 본사업단 : 매년 10억씩, 3년 30억 지원(사업단 운영비는 지원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2차 사업단 : 매년 10억씩, 3년 30억 지원
  - 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상위 30% 성과금 지급
- 사업단 자격
- 독립 사단법인으로 사업단을 목적에 맞춰 운영할 수 있는 조직으로 사업단장은 경력,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자
  - 사업단 구성은 농식품, 생산자단체, 대학등의 참여업체(단체)를 구성하여 신청함
- 사업단의 역할
- 지원사업 중심이며, 자체영리사업은 하지 못하고 자체 시설은 최소화하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함. 또한 참여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 S/W 중심의 지원을 하도록 함.
  - 소프트웨어 중심 지원사업: 마케팅(홍보, 브랜드 및 디자인, 수출, 판로유통 등), 네트워킹(산관학연 연대 프로그램, R&D, 인력, 정보 등), 컨설팅, 교육 등 지원
- 향후 본사업의 집행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맡아서 수행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사업이 단순히 클러스터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퇴색케 하는 것이기에, 국가식품산업의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전국의 정부지원 식품 관련 지원사업의 관리와 평가, 그리고 네트워킹 및 지원 업무를 함께 맡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높이는 것이 좋겠음.
  - 따라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가공식품지원 및 전국 식품관련 네트워크 중심역할을 고려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본 사업의 전담지원 및 관리업무를 맡도록 하는 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지원사업의 거버넌스 변화가 필요해 보임.

〈표〉 기존 사업과 개선 사업의 차이점

구분	현재 (As Is)	개선 (To Be)
사업단의 수행 사업	-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 산업화 및 마케팅 - 공동이용시설 건립	-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 산업화 및 마케팅
사업단의 조직	법인(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사단법인, 조공법인 등), 비법인 가능	사단법인
사업단의 영리사업 (가공, 판매 등)가능 여부	영리사업 가능	(운영 유지 목적)영리사업 가능
사업단의 신청사업	지역의 농식품을 이용한 신사업 발굴위주	지역 내 기존 사업의 활성화 또는 내실화를 위한 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없음	있음 (1년간 지원)
지원기간	3년 (평가후 인센티브 지급)	예비사업기간: 1년 / 1차 본사업: 3년 / 2차 본사업: 3년 (1차 본사업 평가 결과) / 2차 본사업 평가후 인센티브 지급
사업단장 선정	사업 주체들이 사업단장 선정	사업단장이 선임이 된 후 사업 주체 모집
지원사업 종료후	사업단 존속 불투명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행정 관리 주체	- 농식품부 - 사업의 기획과 관리의 일원화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 사업의 기획과 관리의 이원화 - 사업의 기획은 농식품부 - 사업의 관리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계 발전

-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역전략식품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허브역할을 하며 공동 협력체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지역전략식품산업과 연계하여 신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전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하도록 함
  -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지역전략식품산업의 기술 수요조사 결과를 식품 클러스터 내 입주한 연구기관과 공유하여 기술연구 성과물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입주기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음

며, 네트워킹 역할로 공동 물류망과 판매망을 구축함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단에 부족한 운영 Know-how 전수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전략식품산업의 공동 추진사업 마련
  - 전문식품인력 양성사업
  - 상품 판로 개척 및 해외시장개척 사업
  - 지역브랜드 강화 및 R&D 분야 협력사업

## [ 제목 차례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가. 연구의 필요성	1
나.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가. 연구의 내용	3
나. 연구의 범위	4
3. 연구추진체계 및 세부 추진방안	4
가. 연구의 추진체계	4
나. 연구수행 전략	5
다. 연구수행의 세부 추진방안	5

### II.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현황

1. 지역전략식품산업의 기본 개념	7
가. 클러스터의 정의	7
나. 지역전략식품산업의 필요성	8
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목적	10
2.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현황	12
가. 사업 추진현황	12
나. 사업의 주요 내용	13
3. 유사 정책사업과의 비교분석 및 차별성	15
가. 유사 정책사업과 비교분석	15
나. 유사 정책사업과의 차별성	33
4. 해외 사례	35

가. 일본 식료산업 클러스터	35
나. 일본 지바현 식품산업 클러스터	37
다. 네덜란드 푸드밸리(FOOD VALLEY)	39
라. 덴마크 스웨덴의 외레순 식품클러스터	40
마. 이탈리아 에르벳(ERVET) 클러스터	43
바.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에 주는 시사점	44
<b>5. 소결</b>	<b>45</b>

### III.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실태분석

<b>1.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실태조사</b>	<b>47</b>
<b>2.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실태분석</b>	<b>52</b>
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사업단분류 분석	52
나.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애로사항 분석	65
<b>3.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사업단별 사례분석</b>	<b>71</b>
가. 우수사례 분석	71
나. 미흡사례 분석	75
다. 사례분석 벤치마킹 및 시사점	77
<b>4. 실태분석 결과요약 및 문제점</b>	<b>80</b>
가. 실태분석 결과를 통한 문제점 분석	80
나. 사업단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85
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실태분석 시사점	87

### IV.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b>1.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필요성</b>	<b>89</b>
가.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의 논의배경	89
나.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의 개념	92
다.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의 SWOT 분석	94

라.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조성의 예상되는 문제점	95
<b>2.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수요사례 분석</b>	<b>100</b>
가. 분석의 내용 및 방법	100
나. 국가산채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안)	101
<b>3.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타당성 분석</b>	<b>103</b>
가. 품목수요(산채)의 타당성 분석	103
나. 입지수요의 타당성 분석	109
다.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조성(안) 종합의견	117
<b>4. 소결</b>	<b>120</b>

## V.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발전방안

<b>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문제점과 과제</b>	<b>121</b>
가. 사업단 운영주체의 전문성 부족	121
나. 산관학연 네트워크에 의한 협력체제 미약	122
다. 사업단의 독립성 부족	123
라. 유사중복사업과의 차별성 제고 필요	124
마. 사업대상자의 본 사업을 위한 준비 부족	126
바. R&D에 대한 투자 부족	127
사.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대상자 선정 강화 필요	129
아.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합리성 제거 필요	130
<b>2.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개선방안</b>	<b>131</b>
가. 개선 방향	131
나. 개선 방안	132
<b>3. 지역전략식품산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계 발전방안</b>	<b>137</b>
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발전계획	137
나.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전략식품산업의 연계지원	139
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전략식품산업의 공동 추진사업	144

< 참고문헌 >.....	146
< 부 록 >.....	147

## [ 표 차례 ]

<표 2-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변천과정	12
<표 2-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사업단 선정 현황	12
<표 2-3>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사업단 지원품목별 현황	13
<표 2-4> 지원사업 유형별 연도별 지정현황	13
<표 2-5>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 개요	14
<표 2-6>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단 선정 현황	15
<표 2-7> 향토산업육성사업 개요	16
<표 2-8> 2012년 선정된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단 향토자원별 유형	17
<표 2-9> 2012년 선정된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단 산업별 유형	17
<표 2-10> 2012년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 사업단	18
<표 2-11>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개요	20
<표 2-12>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20
<표 2-13> 사업유형별 예산 현황	21
<표 2-14>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개요	22
<표 2-15>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24
<표 2-16>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유형별 사업내용 분류	25
<표 2-17>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 개요	27
<표 2-18>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 과제 현황(2012년 기준)	28
<표 2-19>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5대 핵심 전략	30
<표 2-20> 유사사업 비교	32
<표 2-21>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34
<표 2-22> 일본 식료산업 클러스터 협의회의 역할	36
<표 2-23> 지바현 산업진흥센터의 주요 업무영역	38
<표 2-24> 푸드밸리 재단 지원내용	40
<표 2-25> 외레순 식품클러스터 푸드네트워크 역할	42
<표 3-1> 지원사업 운영유형 연도별 지정현황	48
<표 3-2> 사업단 운영 지속성 여부 확인	49

<표 3-3> 사업단의 주도 사업유형 변화 추이 비교	50
<표 3-4> 지원사업 년도별 사업단 운영여부현황	51
<표 3-5> 지역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편중표	51
<표 3-6> 사업단 사업 운영형태에 따른 사업단 운영/미운영 분류표	53
<표 3-7> 사업단 생산품목에 따른 사업단 운영/미운영 분류표	54
<표 3-8> 사업단 지역에 따른 사업단 운영/미운영 분류표	54
<표 3-9> 지원사업 운영유형 사업단 운영여부현황	55
<표 3-10> 지원사업 운영유형별 사업형태분석현황	56
<표 3-11> 사업단 운영 현황 및 지원 사업 종료 후 예상	57
<표 3-12> 2005년도 선정 사업단의 생산상품유형별 매출 발생년도 조사표	58
<표 3-13> 2008년도 선정 사업단의 생산상품유형별 매출 발생년도 조사표	59
<표 3-14> 2009년도 선정 사업단의 생산 품목유형별 매출 조사표	59
<표 3-15> 2005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매출(매출/영업이익)	61
<표 3-16> 2008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매출(매출/영업이익)	63
<표 3-17> 2009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매출(매출/영업이익)	64
<표 3-18> 지역농업식품클러스터 시범사업(2005년) 애로사항 분류표	65
<표 3-19> 1차 광역클러스터(2008년) 애로사항 분류표	66
<표 3-20> 2차 광역클러스터(2009년) 애로사항 분류표	67
<표 3-21>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사업단별 미흡사례 분류표	77
<표 4-1> 3차원적 지역발전 정책	90
<표 4-2> 광역화로 인한 농식품산업의 기회와 위기	96
<표 4-3> 광역 경제사업의 주요 문제점	96
<표 4-4>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의 주요 문제점	97
<표 4-5> 지자체 간 연계 협력 주요 이론정리	98
<표 4-6> 주요 산채류의 재배면적 변화	104
<표 4-7> 산채류 생산량,생산액 통계표	105
<표 4-8> 지역별 산채류 생산량, 생산액 통계	106
<표 4-9> 핵심지구와 연계지구의 산채 생산량, 생산액	107
<표 4-10> 영양군 위치	109

<표 4-11> 산업 대분류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111
<표 4-12> 영양군 주요 농산물	112
<표 4-13> 영양군 식품가공시설 현황	112
<표 4-14> 핵심지구(양구, 울릉, 청도) 위치	114
<표 4-15> 연계지구 토지이용 현황	115
<표 4-16> 연계지구의 인구구성	115
<표 4-17> 핵심지구의 산업 대분류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116
<표 5-1> 전문경영인과 비전문경영인 사업단장 현황	121
<표 5-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2005-2009년 지원사업)	123
<표 5-3>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2005-2009년) 법인화 형태 현황	124
<표 5-4> 유사정책사업과의 차별성 분류표	126
<표 5-5>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2005-2009년)의 지원사업기준 매출	127
<표 5-6> 사업단별 R&D지원 금액별 분석표	128
<표 5-7> R&D지원 1억 이상 사업단별 세부 분류표	128
<표 5-8> 사업단 사업유형 분류	129
<표 5-9> 2005,08,09년 전체 애로사항 분류표	130
<표 5-10> 기존 사업과 개선 사업의 차이점	136
<표 5-11> 국가식품클러스터 주요사업 계획	137
<표 5-12> 국가식품클러스터(KnFC) 분야별 목표	138
<표 5-13>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전략식품산업의 연계방안 종합	142
<부록-표1> 지역별 지역전략식품산업 강원도 지역 분석표	148
<부록-표2> 지역별 지역전략식품산업 호남지역 분석표	149
<부록-표3> 지역별 지역전략식품산업 경기도 지역 분석표	149
<부록-표4> 지역별 지역전략식품산업 영남 지역 분석표	150
<부록-표5> 지역별 지역전략식품산업 제주도 지역 분석표	150
<부록-표6> 지역별 지역전략식품산업 충청도 지역 분석표	151

## [ 그림 차례 ]

<그림 1-1> 연구의 추진절차	4
<그림 2-1> 농식품부 유사사업의 사업구조	31
<그림 3-1> 사업단의 주도 사업유형 변화 추이	50
<그림 4-1> 新지역발전 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	90
<그림 4-2> 식품산업단지 개념도	93
<그림 4-3> 광역 산업단지의 정착과정	94
<그림 4-4> 영양군 산채클러스터 핵심지구와 연계지구	101
<그림 4-5> 산채산업클러스터의 비전	102
<그림 4-6> 영양군 도로종별 현황	110
<그림 4-7> 영양군 월별 평균기온 및 강우량	110
<그림 4-8> 영양군 지목별 면적	113
<그림 4-9> 영양군 연령별 및 성별 인구	113
<그림 4-10> 광역 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요소	120
<그림 5-1> 지역전략식품산업의 허브	139
<그림 5-2>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기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의 협력	141
<그림 5-3 > 클러스터 통합을 통한 혁신 네트워크 구축 방안	143
<부록-그림1> 지역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진행 현황	147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가. 연구의 필요성

-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방분권과 지방경제발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사업과 공공기관 이전방안의 기본 원칙과 추진방향이 발표 됨
- 산업 클러스터는 소규모 지역범위에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밀접한 네트워킹을 가지면서 직접의 경제를 발생시키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시작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직접 경제의 효과가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산업을 진흥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산업 클러스터가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 각 지역의 잠재력에 합당한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이것이 혁신을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로 클러스터 개념이 보편화되고 있음
-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농식품부도 2004년 「농업·농촌종합대책」을 통하여 지역농업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시작
  - 지역농업클러스터는 농산업클러스터로서 일정 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농업 경영체와 농산업체, 대학 및 연구소, 행정기관·단체 등이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해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 지역농업클러스터는 2009년 광역클러스터로 2011년 다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개편 되었으며, 지원사업의 중복문제 발생, 투입자원의 제약으로 인한 사업추진 역량 부족 등으로 정책의 수단과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

- 한편, 지역전략식품산업의 규모의 영세성과 산·관·학·연 등의 연계부족의 개선으로 농식품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방자치단체와 국회를 통해 전달되고 있음
  - 정보화의 진전으로 공간거리의 극복이 용이해지고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반경이 넓어짐에 따라 이에 걸맞은 광역화된 농식품클러스터 정책의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 현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국가 식품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클러스터와의 연계가 필요하고 지역농업클러스터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네트워킹하여 연결성의 경제(economies of linkage)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농식품 클러스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먼저 지역전략식품산업의 성과와 한계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야하며,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포지셔닝이 필요함

## 나.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지역전략식품산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이와 함께 광역 식품클러스터 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그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세부적인 목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지역농업클러스터(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의 실태 조사를 통한 문제점 파악
  - 지역농업클러스터(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의 문제점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적 제언을 수립
  - 도단위의 광역 식품클러스터 단지의 필요성과 조성계획(안)의 타당성 분석
  - 지역식품클러스터와 국가식품클러스터와의 연계방안 도출

---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가. 연구의 내용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소개와 현황을 제시
  - 클러스터의 정의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필요성 확인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현황을 파악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유사한 지역발전사업과 비교/ 분석
  - 해외 사례를 조사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의 성과와 한계, 발전방안 제시
  - 지역전략식품산업 사업단별 실태를 조사
  -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의 성과를 분석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의 사업단별 문제점과 함께 시사점을 도출
  
-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필요성 검토
  -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의 필요성을 확인
  -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의 조성(안)을 분석
  -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타당성을 검토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발전 방안 마련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에서 들어난 한계점과 문제점을 분석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개선방안과 발전적 정책방안 제시
  - 국가식품클러스터와의 연계방안 마련

## 나. 연구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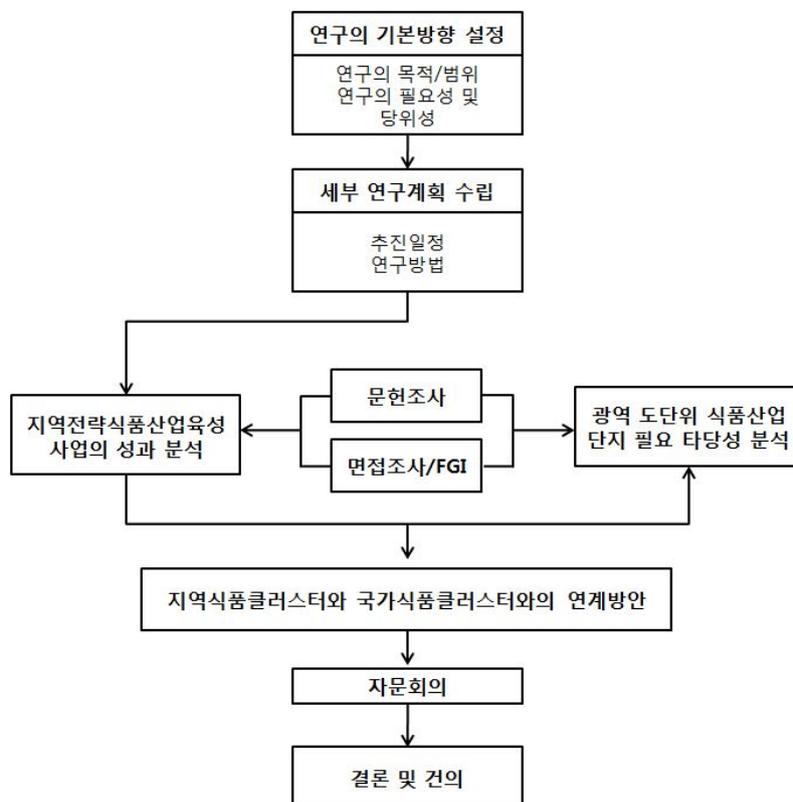
- 지역전략식품 사업단(지역식품클러스터)의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된 자료로 한정함
-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의 시장 수요조사는 지자체가 요구한 내용을 위주로 검토함
-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타당성 분석에서 B/C 분석과 같은 수량에 기초한 경제성 분석은 포함하지 않음

## 3. 연구추진체계 및 세부 추진방안

### 가. 연구의 추진체계

연구 추진은 순차적인 절차에 의해 <그림 1>과 같이 진행한다.

<그림 1-1> 연구의 추진절차



## 나. 연구수행 전략

### ○ 과제 수행 전략의 기본적 방향

- 객관적 자료의 확보: 신뢰성을 가진 문헌조사, 정부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 사업의 성과 분석
- 현장중심의 조사: 관련자 심층면접 및 FGI를 통해 자료로만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 파악 및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필요성에 대한 정책수요 파악
- 명확한 의사소통: 용역발주처인 농식품부와 정기적인 협의를 포함한 원활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보고서의 질 향상

## 다. 연구수행의 세부 추진방안

### 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문제점 파악

#### ○ 문헌조사를 통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에 대한 조사

- 농식품부 실태조사자료 및 문헌조사로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잡지, 그리고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지역전략식품산업 현황과 문제점 등 기본적 내용에 대해 조사

#### ○ 현장 실태 조사 자료를 통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에 대한 조사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기 조사된 현장 실태조사 자료와 추가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의 성과 및 한계 조사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에 대한 성공 및 실패 사례 조사

#### ○ FGI를 통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에 대한 전문가, 정책수행자, 그리고 사업 수행자의 의견 청취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에 대한 발전적 대안 제시

### 2)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필요 타당성 분석

#### ○ 문헌조사를 통해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광역 클러스터)에 대한 필요성 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었던 국가산채식품클러스터 조성(안)을 중심으로 입지의 타당성 및 사업의 적합성을 검토

-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발전방안을 제시

### 3)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개선방안과 정책적 발전방안 제시

- 지역전략식품산업의 실태분석과 사업단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탐구

- 지역전략식품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발전 방안을 제시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 개별 클러스터가 서로 연계,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II.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현황

### 1. 지역전략식품산업의 기본 개념

#### 가. 클러스터의 정의<sup>1)</sup>

- 1890년 Marshall에 의해 클러스터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이래, 경제학에서는 산업 집적효과가 중요한 논점이 되어왔음. 1990년 마이클 포터(M. Porter)는 국가경쟁력을 설명하는 다이아몬드 모델을 제시하면서 특정산업이 특정지역에서 발전하는 원천으로 클러스터가 국가의 핵심경쟁력을 주도한다고 주장함
  - 마이클 포터(2000)는 산업 클러스터를 “특정한 산업부문에서 경쟁과 협력하는 상호 연계된 기업, 전문 공급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관련 산업 기업, 관련 기관들의 지리적 집적체”로 정의하였음
- 산업클러스터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지리적, 산업적 집적체로서 산·학·관·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체계를 기반으로 함. 즉, 클러스터는 지리적 집중, 산업적 집중, 주도주체, 주도주체와 참여주체의 네트워크, 통합된 경제활동을 조건으로 함
- 산업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노나카(1995)는 클러스터의 구성주체를 비전 제시자(Vision Provider), 시스템 통합자(System Organizer), 전문요소 공급자(Specialized Suppliers)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였으며, 이 세 구성주체 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분업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창출이 클러스터의 작동원인
  - 비전 제시자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인재 공급과 벤처창업의 토대로서 역할을 하며, 시스템 통합자는 산업의 중심으로써 원천기

1) 김정호·박준기·김영생·이병훈(2005),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참조하여 재정리

술을 상업화하고 요소기술과 부품을 통합하여 제품화함. 전문요소 공급자는 부품과 요소기술을 제공하는 지원서비스업체를 말함

- 국내 산업클러스터의 도입은 2003년 참여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적 개념을 기존의 경제개발에서 국가균형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즉, 중앙주도형 사업 모델에서 지역주도, 지역거점 성장모델을 추구하면서 도입되었음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산업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산업클러스터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2년 12월 산업자원부의 『산업클러스터 활성화정책 추진』,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국토구상』을 계기로 각 부처에서 산업클러스터 개념을 원용하는 시책이 다양하게 모색되기 시작하였음
- 농업분야에서는 2004년 농림수산부가 「농업·농촌종합대책」을 통해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클러스터 정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5년부터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이 실시됨으로써 농업정책사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음
- 지역농업클러스터는 새롭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클러스터 구성요소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클러스터를 강화시키는 것임.

## 나. 지역전략식품산업의 필요성

- 국내 농업은 한미 FTA협상 타결, 기후변화 등의 외부시장경쟁의 격화와 인구의 고령화, 토지자원 약화(지력감소 등), 성장을 위한 재투자 자본 등 내부자원의 활용가능성이 극도로 저하되고 있으며, 썬키스트, 델몬트, 돌, 제스프리 등 대규모 글로벌 농산물 브랜드가 국내산 농산물과 경쟁하고 있음. 또한 시장 지향적 산업정책은 농업을 이제 더 이상 보호·육성에서 벗어나 시장화·상품화의 시각으로 보고 있음<sup>2)</sup>

2) (주)지역농업네트워크(2007) 보고서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5) 보고서를 참조하여 재정리

- 동시에 지역의 특성화 및 차별화는 글로벌 시장 하에서의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으로 등장하고 있음. 즉, 낮은 산업화 수준에서는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의 향상에 주력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나 산업화가 일정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특성화, 차별화가 경쟁력이 원천이 되어 지역(local)이 가진 전통, 역사, 문화, 지리 등 복합적 요소들이 바로 경쟁의 원동력이 됨<sup>2)</sup>
- 농업은 산업적 특성에 비추어 지역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국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성숙하면서 지역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농업은 이제 하나의 농업 경영 단위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는 농업의 대내외적인 압력과 함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음<sup>2)</sup>
-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고도의 생산력과 가치 창출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곧 시장경쟁력으로 나타나게 됨. 고도의 생산력과 가치 창출력의 확보는 지역내 존재하는 농업관련 자원을 활성화하고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농업 및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가능함. 이는 지역농업의 산업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음<sup>2)</sup>
- 지역농업 산업화는 지역농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 품목과 인적, 조직적, 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sup>2)</sup>. 국내 농업에 이러한 지역농업 산업화의 개념 도입은 2004년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 수립에서 시작되었음
- 지역농업클러스터는 2004년 농림부가 「농업·농촌종합대책」을 통해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업클러스터 정책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지역의 농산업을 클러스터라는 혁신주체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존의 개별사업 중심의 투융자를 지역농업 조직의 관점에서 체계화함으로써 재정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키는데 의의가 있음
- 지금까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과거 지역농업클러스터, 광역클러스터)정책은 품

목선정에 있어 향토자원 지원사업 등의 유사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기존 지역농업의 기반시설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수익성을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즉, 현재까지의 지역농업클러스터 정책은 단순 생산유통 사업 유형이나 1차 농축수산물 위주로 선정하거나, 사업기간의 대부분을 설비 및 기반시설 확보에 예산과 시간을 보내다보니 사업기간 내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지원 사업기간이 끝나면 사업단 운영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취지는 지역농업의 특성화 및 차별화를 통한 지역농업 경쟁력 확보인 만큼, 사업 선정 및 추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 특산식품의 전략화를 위해 지역농수산업 주체의 역량향상과 상품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함

#### 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목적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산·관·학·관 등 지역농수산업 주체의 혁신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지역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으로 농·어촌 활성화 및 농어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임<sup>3)</sup>
  - 지역농업클러스터는 일정 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농업경영체와 농산업체, 대학 및 연구소,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농업 혁신의 상승효과를 이루어가는 집합체로 지역 농업경영체와 전후방 산업이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추구<sup>4)</sup>하는 것임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특화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상품화 제고를 위해 식품기업 등과 직접 연계하여 실용화·상용화가 높은 사업에 지원하고 있음
- 지역농업클러스터 정책은 새롭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강화 혹은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농업을 주도할 수 있는 대표품목을 중심으로 지원함

3) 농림수산식품부(2012.5), 『2012년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업무편람』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5), “지역농업 클러스터 발전방안”

- 
- 지역농업클러스터는 기존의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향토산업은 기초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농업클러스터는 복수 시·군 및 도단위로 사업정책영역을 구분함으로써 2009년 광역클러스터로 명칭을 변경하게 됨. 그 후 광역클러스터는 해당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산업화하여 차별적으로 유통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이지만 단순 생산 가공되어 농축산물 위주로 대상을 선정하여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이에 따라 2011년부터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중심축으로 두고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사업과 1)선정대상의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 2)혁신체계 구축 중심 3)시장지향적 성장 등의 측면에서 개편하게 됨
    -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 기존에는 클러스터의 기반조성 및 생산기반시설 확보에 중점을 두어 고부가가치 품목을 통한 해당 사업단의 소득증대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음. 더욱이 선정품목이 대부분 1차 농축수산물에 그치고 있어 부가가치 창출이 부족하였음.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해당 지역의 전략적 식품을 선정함으로써 과거 단순 생산·유통주도 사업유형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함
    - 혁신체계 구축 중심: 클러스터 사업은 대부분 기반 및 시설 등의 분야에 예산이 투자되었으나 이제 클러스터 주체간 네트워크 추진. 공동브랜드 개발 육성 및 홍보, 상품개발 등 선정된 지역특산품의 산업화를 위한 S/W중심으로 가고 있음
    - 시장지향적 성장: 과거 사업단 평가는 주로 사업집행 실적 등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 성과위주의 사업단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지원 종료 후 시장경쟁력을 갖추도록 주식회사 등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

## 2.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현황

### 가. 사업 추진현황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지역농업 활성화 전략을 위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정책으로 2005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됨. 2005년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현재 67개 사업단이 선정되었음

〈표 2-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변천과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7년까지 100개 사업단 육성을 목표로 2005년 20개소, 2008년 22개소, 2009년 12개소, 2011년 1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11년의 경우 2008~2009년 사업단 35개소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단 23개소를 차등지원 하였음

〈표 2-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사업단 선정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05	2008	2009	2011	합계
계	20	22	12	13	67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2.5), 『2012년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업무편람』

- 지역전략식품산업은 과거 농수산물을 생산 유통하는 1차 산업 중심의 사업단 지원에서 벗어나 2·3차 산업 중심 사업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지역농업클러스터와 광역클러스터 지원 사업의 경우 대부분 단순 생산, 유통 등 부가가치가 높지 않는 품목 위주로 선정되고 사업단 예산을 대부분 시설에 투자

하고 있어, 수익성이 낮다고 매출 발생 지연이라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선정된 사업단의 사업유형별 지정현황을 보면, 총 54개 사업단 중 가공 사업은 16.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생산유통이 59.3%, 단순유통가공이 11.1% 등을 차지하고 있음.

- 지역전략식품산업 지원은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원천기술 보다 사업기간 내에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과 상용화에 할 참여 식품기업과 직접 연계된 사업단에 지원할 계획 등 농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고 있음

〈표 2-3〉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사업단 지원품목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식량	원예	축산	가공	특작	수산	기타
계	67	6	13	17	15	5	4	7

주 1)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2.5), 『2012년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업무편람』

〈표 2-4〉 지원사업 유형별 연도별 지정현황

(단위: 개소)

구분	가공	가공유통	생산가공	생산유통	가공-테마	합계
2005	5	-	-	13	2	20
2008	2	4	1	11	4	22
2009	2	-	1	8	1	12
합계	9	4	2	32	7	54
비중	16.7	7.4	3.7	59.3	13.0	100.0

주: 가공유통에 가공수출 포함, 테마는 가공테마에 포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2.5), 『2012년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업무편람』

## 나. 사업의 주요 내용

- 사업단 선정 후 3년간 50억 원(국고+지방비) 내외로 차등지원하며, 사업 종료이후 평가를 통해 추가 지원함. 자금의 용도는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부지매입비, 개별소유시설,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의 하드웨어 및 사업과 관련 없는 시설의 건립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함

- 사업단 선정 후 3년간 50억 원(국고 50%, 지방비 50%; 시설비는 자부담 20%) 내외로 차등지원하며,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 평가를 통해 1~2년 추가 지원함
- 국고로 지원된 사업 예산은 2007년까지 779억 원, 2009년 257억원, 2010년 324억 원, 2011년 286억원, 2012년 183억원으로 자금용도는 주로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로 한정되는데,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에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클러스터 주체 간 네트워크 촉진, 전문 CEO영입 비용 등이 포함되며, 산업화 및 마케팅비에는 공동브랜드 개발 육성 및 홍보, 상품개발 R&D지원, 공동이용시설 등이 포함됨

〈표 2-5〉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 개요

구분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특화된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산업을 1·2·3차 산업의 융복합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농어가 소득 증대 도모</li> </ul>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특화된 농수산물</li> </ul>
사업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클러스터 사업단: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의무화)</li> </ul>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러스터 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등</li> </ul> </li> <li>• 산업화 및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유통전문조직 구축, R&amp;D, 홍보 및 공동마케팅,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li> <li>- 친환경 종합지원센터, 통합물류센터, 홍보시설물 등 공동이용시설</li> <li>* 단, 부지매입비, 시설 설치비, 생산기반 정비사업, 타 농림수산사업으로 지원가능 한 시설, 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방안 미제시 등은 배제</li> </ul> </li> </ul>
지원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3년 지원(사업단별 50억원 내외), 평가를 통한 추가지원(1~2년)</li> <li>• 국비 50%, 지방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시설비의 경우 자부담 20% 부과 / H/W는 총사업비의 40% 미만</li> </ul> </li> </ul>

자료: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http://manual.agrix.go.kr/home/index.php>

### 3. 유사 정책사업과의 비교분석 및 차별성

#### 가. 유사 정책사업과 비교분석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과 유사사업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과 농어촌자원복합화지원사업,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지원 사업, 신활력 사업,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등이 있음.

##### 1) 향토산업육성사업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007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향토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관 등의 주체가 참여하는 클러스터형 사업단에 지원하며 2013년까지 향토자원 200개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사업단 선정 지원은 2007년 19개소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30개 사업을 선정하였음

〈표 2-6〉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단 선정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선정 사업단	19	30	30	30	32	30	171
지원액	8,616	17,920	56,152	200,000	-	-	

주 1: 지원액은 국고 및 지방보조금을 합친 지원 총액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2), 『2012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30개 사업 선정』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지원대상은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자원으로 융복합 산업화가 가능한 자원이며, 지원기간은 3년간 사업추진단별 30억원으로 사업자의 책임확보 등을 위해 민간부담비율을 지자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음. 지원분야는 S/W, H/W부문으로 H/W부문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음

- 지원대상은 주로 농어촌 지역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경제적 과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자원, 1·2·3차 산업이 연계된 복합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품목, 농어촌 지역의 특색있고 전통적인 농어업 자원 및 전래기술·문화·자연자원 등 유무형 향토자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지원기간은 3년으로 사업추진단별 30억 원(국고 50%, 지방비 50%) 이내로 매년 10억 원을 지원하는데, 단 APC 및 RPC 등 타 사업과 중복되거나 타 사업 선정에 탈락한 사업자의 동일 사업지원, 동일 사업에 대한 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지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지원예산(국고+지방비)은 2007년 86억 1,600만 원에서 2012년 81억 8,800만 원(예산)으로 선정사업단 증가로 전체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
- 지원분야는 제품 및 브랜드 개발, 마케팅, 향토자원의 지적재산권화 등 소프트웨어 분야와 시설, 장비 등 하드웨어에 대해 사업규모 내(3년간 총 30억원)에서 포괄지원하는 사업방식임

〈표 2-7〉 향토산업육성사업 개요

구분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지역의 특색있는 농수산물을 포함한 다양한 유·무형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1·2·3차 산업을 연계한 핵심전략 산업 육성</li> </ul>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적 지역자원, 복합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 전통적 자원</li> </ul>
사업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연구단체 등</li> <li>- 산·학·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복합형 사업추진단 구성 의무화</li> <li>- 농어업인 조직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함</li> </ul>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W 분야: 홍보, 마케팅, 디자인, 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사업추진단 인건비 및 운영비,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li> <li>• H/W 분야: 제품개발 및 생산시설, 판매시설, 체험시설 등</li> </ul>
지원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단별 3년간 30억 원(국가 50%, 지방비 및 자부담 50%)</li> <li>- 지자체에서 세부사업단위별 사업의 공공성, 형평성, 사업자의 사업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을 고려하여 사업단 자부담률 결정</li> <li>- H/W지원은 총 사업비의 50% 미만</li> </ul>

자료: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http://manual.agrix.go.kr/home/index.php>

- 향토육성사업의 대상 품목은 대부분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개발, 가공·유통·판매 등으로 사업인데, 지역전략식품산업이 지역의 특화된 농수산물이라면 향토육성사업의 경우 지역의 전통성 있는 향토자원으로 그 구분이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음. 지원 내용도 H/W의 예산 지원 비중에 다소간 차이만 있을 뿐 S/W, H/W 지원내용이 대체적으로 유사하여 사업간 차별성이 부족하며 정책의 중복성 문제가 있음

〈표 2-8〉 2012년 선정된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단 향토자원별 유형

(단위: 개소, %)

구분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일반작물	일반채소	양념채소	과실채소	과수	특용작물	화훼	축산	소계		
사업단	4	2	2	1	3	6	1	1	20	6	4
비중	13.3	6.7	6.7	3.3	10.0	20.0	3.3	3.3	60.7	20.0	13.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2), 『2012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30개 사업 선정』

〈표 2-9〉 2012년 선정된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단 산업별 유형

(단위: 개소, %)

구분	가공식품	기능성식품	김치류	전통음식	차류	방향제, 화장품, 의약	섬유, 염료	체험, 관광	합계
사업단	17	8	1	2	2	5	2	24	61
비중	27.9	13.1	1.6	3.3	3.3	8.2	3.3	39.3	100.0

주: 대부분 2~3개 산업화 유통이 중복되며, 체험 및 관광의 경우 23곳이 타유형과 중복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2), 『2012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30개 사업 선정』

〈표 2-10〉 2012년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 사업단

연번	시도	시군	사 업 명
1	강원(5)	원주시	원주 옷산업 명품화사업
2		정선군	정선취떡 명품화사업
3		양구군	양구 시래기명품화사업
4		인제군	용대항태 명품화사업
5		양양군	설악산장뇌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BT) 활성화
6	충북(2)	제천시	제천 감초상품화사업
7		괴산군	괴산 시골절임배추 육성사업
8	충남(5)	태안군	태안군 화훼산업구조 고도화
9		서산시	전통 생강한과 명품화
10		서천군	한산모시잎 건강기능성식품 산업화
11		금산군	금산약초 명품음식을 활용한 푸드투어리즘 개발
12		예산군	예산 은행자원 녹색 산업화
13	전북(2)	김제시	지평선 국산밀 명품화 사업
14		완주군	완주 당조고추 NEO산업화 사업
15	전남(6)	담양군	블루베리 6차 복합산업화
16		장흥군	청태전 산업자원화 클러스터
17		강진군	된장 명품화 육성사업
18		영암군	대봉감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19		함평군	함평 장어 명품화 사업
20		영광군	영광 맥(麥찰)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21	경북(5)	안동시	향토농산물을 활용한 종가음식의 산업화사업
22		문경시	명품문경사과 공동가공 및 마케팅 기반조성사업
23		의성군	명작 의성마늘양념 명품화사업
24		봉화군	봉화 송이버섯 6차 산업화사업
25		울진군	울진 금강송을 활용한 산업화 및 관광상품화사업
26	경남(3)	함안군	함안수박 가공산업
27		산청군	산청 친환경 유기한우 육성사업
28		하동군	섬진강재첩명품화사업
29	제주(2)	제주시	우도땅콩 명품화사업
30		제주시	제주산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사업

자료: 농림수산물부(2012), 『2012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30개 사업 선정』

## 2)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농어촌의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연계산업화(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동 다각화와 소득, 고용기회 증대를 목적으로 한 지원 사업임
  - 사업 대상자는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농수산물 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단체 등이 포함됨
  - 지원사업 내용은 농어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R&D 및 컨설팅 등 지원강화, 농어촌 자원 복합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농어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농어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등임.
  - 지원형태는 국고 50%, 지방비 50%로 농공단지내 정액지원 형태로 시설·토목 사업이 포함된 사업 중 총사업비의 규모가 3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률을 결정함
  - 사업시행 성과(매년 2~3월에 광역위, 부처, 지역위 합동으로 평가)가 우수한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음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의 추진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를 위한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 지역별 소득 및 고용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화, 정책수단의 효과적 연계, 저탄소 녹색성장 및 4대강 살리기와 연계 추진 사업이며,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지원에서 제외함

〈표 2-11〉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등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li> </ul>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 자원을 복합화한 사업(다섯개 유형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수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농수산물 제조·가공, 체험·전시, 체험·관광중심 산업화,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li> </ul> </li> </ul>
사업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li> <li>비법인의 경우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li> </ul> </li> </ul>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li> <li>R&amp;D 및 컨설팅 등 지원강화</li> <li>농어촌 자원 복합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li> <li>농어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li> <li>농어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li> </ul>
지원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li> <li>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 사업내역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자부담률 결정</li> <li>농공단지 부지 조성비 지원사업은 정액지원</li> </ul> </li> </ul>

자료: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http://manual.agrix.go.kr/home/index.php>

〈표 2-12〉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235,580	243,477	203,095
〈지역개발계정〉	221,914	230,588	192,923
〈제주계정〉	13,666	12,889	10,172

자료 : 농식품부, 보도자료, 농어촌 지역의 향토자원 984점 발굴, 향토산업 자원으로 육성, 2012.2.8

- 사업유형별 예산 추이를 보면 점차 그 지원 대상이 생산기반 조성에서 제조, 가공 등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사업이 시행된 2010년 전체 예산에서 사업유형별 비중을 보면, 농수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 비중(43.9%) 가장 높았으나, 2012년의 경우 생산유통기반구축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4%로 낮아진 대신 농수산물 제조·가공이 26.8%로 2010년과 비교(16.8%)하여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표 2-13〉 사업유형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2 비중(%)	증감률(%) ( '12/' 10)
계	235,580	243,477	203,095	100.0	-13.8
농수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103,464	84,775	55,722	27.4	-46.1
농수산물 제조·가공	39,645	50,089	54,466	26.8	37.4
농수산물 체험·전시	1,000	1,300	3,998	2.0	299.8
농어촌 체험·관광	39,183	54,669	42,937	21.1	9.6
농공단지 조성·정비	52,288	52,644	45,972	22.6	-12.1

자료 : 농식품부, 보도자료, 농어촌 지역의 향토자원 984점 발굴, 향토산업 자원으로 육성, 2012.2.8

### 3)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 농식품부는 중기청과 공동으로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사업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지원대상은 농공상 융합사업의 중소기업으로 2011년에 115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79개를 선정하여, 총 194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연계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함
  - 농수산물이나 부산물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및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농수산물(원물)과 홍삼, 녹차, 김치 등 음식료품(2세대 가공품)에서 더 나아가 농수산물 원물과 BT, NT 등 신기술 융합을 통해 개발된 신제품 중 고기능성 식품을 포함한 오디를 이용한 염색약, 약초를 이용한 탈모예방샴푸 등 의약품 및 미용관련 제품 등으로 한정함
  - '12년 말까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300개”를 발굴·육성하여, 우리 농어업이 2차, 3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선정 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식품부와 중기

- 청에서 정책자금, R&D, 컨설팅, 마케팅, 투자유치 지원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음
- 지원사업 예시 : 식품외식종합자금(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성장 기반자금 및 창업기업지원자금, 기술개발사업(R&D), 경영·기술분야 전문가 컨설팅 지원, 농식품모태펀드 투지지원, 마케팅, 전시회 참가지원, 특허출원 우선 지원 등

〈표 2-14〉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기반 특화 농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공상 융합형 신제품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li> </ul>
사업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2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기관: 중소기업(단, 숙박,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은 제외)</li> <li>- 공동기술개발기관: 농어업법인, 대학 등은 위탁 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li> </ul> </li> </ul>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된 기업은 아래의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수산식품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자금,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컨설팅 지원사업,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연구개발성과 실용화지원사업,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 농공상 마케팅교육 지원, 해외시장 진출지원</li> <li>-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농공상 융합형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농공상 맞춤형 경영교육 지원, 지역단위 농공상 협력체계 구축·운영, 농공상 융합 엑스포 참여 우대, 기술보증 우대지원, 벤처기업대상 선정 우대 등</li> </ul> </li> </ul>
지원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규모: 20억원</li> <li>• 지원조건: 국고 60% 이하, 민간부담 40% 이상</li> <li>• 지원기간: 1년 이내, 최대 2억</li> </ul>

자료: 중소기업청·농림수산식품부(2012.9),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설명회 자료

○ 선정되어 지원되고 있는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 전남 고흥의 한성푸드(영)(대표 : 김종남)는 항비만, 항당뇨 등 유자의 건강 기능성과 상큼하고 청량감을 주는 특성을 활용하여 친환경 유자 음료를 개발, 해외시장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 유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지역(고흥, 완도, 진도 등) 농산물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촌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

\* '11년 유자차 수출액 : 16백만 달러

- 인천 강화의 (주)한스코리아(대표 : 한상균)는 우수한 기능성 제품의 판매 및 수출을

위해 강화군 지역의 특산품인 쌀과 홍삼, 죽, 연 등을 배합, 영양이 풍부하고 성인병 예방효과가 있는 기능성 웰빙 쌀국수 및 쌀라면을 개발·판매할 계획.

- 전남 담양의 (주)산들촌(대표 : 차민석)은 '05년부터 친환경 스낵류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발하는 웰빙 스낵은 도내 유기농 쌀만을 사용하여 제조·판매함으로써 지역 유기농 발전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전남 보성의 보성녹차(영)(대표 : 임화춘)는 식용유, 건강 기능식품 및 기타 식품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녹차엽 지용성 추출물을 개발, 사업화함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녹차산업의 활성화 기대
  - \* “녹차엽을 이용한 식용유지 제조방법”이 국내 및 일본에 특허등록 되어있음. 초임계추출기법에 의한 지용성 녹차추출유의 벤조피렌 감소기술로 다양한 건강 기능식품 및 기타 식품의 녹차원료 개발

#### 4) 신활력 증진사업

- 신활력지역지원사업은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하나로, 기존의 지역개발 사업들이 대부분 지역 종합발전 계획과 연계 없이 여러 지역에 소규모 분산투자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행정기관 주도의 사업추진으로 지역 주민 수요의 반영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게 되었음<sup>5)</sup>
- 2005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균형발전위원회 등 중앙정부와 70개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주민들과 함께 주체육성, 추진체계, 혁신사업이라는 3개 핵심구성요소를 설정하고, 각각의 요소들에서 지역의 혁신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계획들을 지역의 주도하에 담아내도록 하였음<sup>6)</sup>
- 이는 지역이 주체가 되어 혁신 역량을 키우고 강점을 발굴하여 특화·상품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2005~2007년의 제 1기, 2008~2010년 제 2기로 나누어 시행하였음. 지원조건은 국비 100%로 전액보조 하되 시·군별 낙후도에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 경제·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방안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어촌산업학회(2011). 농어촌지역정책의 성과 진단과 새로운 도전. 2011 제3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발표자료

따라 19~29억원을 차등 지원하되, 지역이 주체가 되어 내부 역량을 키우고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S/W중심으로 지원하였음

- 지원대상 지자체는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으로 함. 최초로 선정하는 신활력 지자체의 규모는 전체 시·군·구 중 낙후도 기준 하위 30%에 해당하는 지자체로 하되, 선택과 집중 및 선의의 경쟁유도를 위해 2차 이후의 선정규모는 최초로 선정한 규모 범위 내에서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 지자체, 대학, 기업, NGO, 언론,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내 혁신주체들이 상호 작용하여 인재육성과 참여활동, 교육분야, 지역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성격의 사업추진 기반 위에서 지역특산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창출 사업을 지원함
  - 지원자금에 대한 사용 용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농산물, 특산물, 향토자원(전통문화) 뿐 아니라 문화, 관광, 지역이미지, 마케팅, 생명·건강, 교육·인재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괄적으로 포함함
  - 기존의 낙후지원개발사업과 달리 도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 대형시설물 등 하드웨어 사업은 지원에서 배제함. 특히,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관련 비용은 지원이 제한됨

〈표 2-15〉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구분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을 활력지역으로 육성하여 장기적 자립발전기반 마련</li> <li>- 1기:2005~2007년, 2기: 2008~2010년</li> </ul>
사업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활력지역으로 선정, 고시된 70개 시·군</li> </ul>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내생적·자립적 발전기반 마련</li> <li>-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강점을 발굴, 특화·상품화하여 지역발전 도모</li> </ul>
지원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비 100%</li> </ul>

- 신활력사업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행정안전부 소관이었으나, 2007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였으며 2008년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과 함께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제2기(2008~2010년) 추진체계를 재조정함
  - 1기 사업은 농업생산의 자생력 확대 및 지자체 기획 역량강화, 주민참여에 의한 내생적 추진동력 확보에 중점
  - 2기 신활력사업이 포함된 농촌활력증진계획은 성과목표 및 성과관리 중심의 사업체계 구축에 정책적 목표를 둠
- 제1기 신활력사업의 유형별 사업내용을 보면, 향토자원 개발, 지역문화관광개발, 지역 이미지 마케팅, 교육·인재육성, 생명·건강산업 육성, 해양·수산자원 등 사업내용이 매우 포괄적이며, 그 중 향토자원개발과 지역문화관광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음<sup>7)</sup>

〈표 2-16〉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유형별 사업내용 분류

유형	건수(70건)	대표사업
향토자원 개발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효천국 순창조성(순창군)</li> <li>● 청도반시 산업화(청도군)</li> </ul>
지역문화관광개발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유기농 그린투어리즘(화천군)</li> <li>●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영월군)</li> </ul>
지역이미지 마케팅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건강산촌 지역 마케팅(진안군)</li> <li>● Happy700 브랜드 강화(평창군)</li> </ul>
교육·인재 육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어교육 특구조성(창녕군)</li> <li>● 국제화교육(거창군)</li> </ul>
생명·건강산업 육성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정선군)</li> <li>● 인삼·약초를 통한 오감체험형 건강산업(금산군)</li> </ul>
해양·수산자원 개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 생물산업 경쟁력 강화(완도군)</li> <li>● 블루투어리즘 및 특산품 브랜드화(울릉군)</li> </ul>

- 신활력사업은 지역에 대해 기획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많은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사업기획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음. 더욱이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어촌산업학회(2011). 농어촌지역정책의 성과 진단과 새로운 도전. 2011 제3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발표자료

사업은 2005~2007년 제1기, 2008~2010년 제2기 사업을 끝으로 기초생활권에 지원하는 포괄보조사업비로 통합, 생활기반정비사업과 소득원개발사업에 활용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해당사업이 종료되게 되었음

#### 5)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

- 지식경제부에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은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연계를 통해 지역 내 특화자원의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목표로 제품개발,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매년 3개 사업단에 국비 6억 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단위사업과 광역단위의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지원기관 등 지역특화산업분야에 지원
  - 현재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지원사업자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지원 기관 등 인프라가 구축되고 컨소시엄 구성 등 기업 지원기능이 있는 기관으로 수도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표 2-17〉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 개요

구분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 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내 연고(특화)자원의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li> </ul>
사업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관기관/참여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 지원 기관 등(인프라가 구축되고 컨소시엄 구성 등 기업지원기능이 있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전략산업 이외의 새로운 자원 발굴,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산업 분야(단, 1차 산업 중심은 제외, 농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시행지역, 연고자원, 수행기능 등이 중복되는 경우 제외)</li> </ul> </li> <li>신청지역: 수도권</li> </ul>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학·연 네트워크: 기업을 종합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li> <li>기술개발: 지역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단기 기술개발과제</li> <li>전문인력 양성: 산업체 현장인력 재교육, 전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li> <li>기업지원: 디자인 지원, 카달로그 등 홍보제작, 판매전략, 자문활동, 종합컨설팅, 시험평가, 동물 및 임상실험, 인증획득 지원, 전시회 참가지원 등 마케팅 종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연고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1단계를 통해 구축된 기업지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혜기업 중 신시장 틈새시장 공략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지원</li> </ul> </li> </ul>
지원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별 연간 6억원 내외(평가에 따라 차등지원)</li> <li>지원방식: 국비, 지방비(국비의 10~20%), 민간부담(국비의 10~20%)</li> <li>지원기간: 3년 이내</li> </ul>

자료: 지식경제부(2011.12.30). 2012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수도권 신규사업 공고문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프린팅 미디어, 주얼리, 조명, 줄기세 포, 중소제약산업 등 해당 지역의 지역전략품목화 산업으로 농식품 분야는 해조류 추출물을 이용한 화장품 등의 제품 개발, 국제인증 등이 있음

〈표 2-18〉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 과제 현황(2012년 기준)

번호	과제명	주관기관	비고
1	프린팅미디어 산업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주)SPMC	계속
2	서울 주얼리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기반 구축사업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계속
3	서울패션 창조지구 육성을 위한 디자인 봉제 네트워크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속
4	부천 Eco-Design 융합 LED 조명산업 역량 강화	(재)한국조명기술연구소	계속
5	경기 줄기세포관련산업 기술혁신체계 구축사업	차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차알아이에스	계속
6	광응용기기 핵심전력부품 및 제품화 지원사업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속
7	경기 중소제조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통합 지원 사업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 천연물신약연구소	계속
8	해조류를 이용한 블루 신산업 산업화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속
9	통신.SW 개발업을 중심으로 한 서울 서남부 지역 IT 특성화 사업	송실대학교	종료
10	기술융합형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 클러스터 기반조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종료
11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구축	(재)송도테크노파크	종료
12	동북아 물류혁신 클러스터 구축	인천대학교	종료
13	첨단 금형 클러스터를 위한 지원시스템 개발사업	(재)부천산업진흥재단	종료
14	경기도 미니테크노파크 연계협력사업	(재)경기테크노파크	종료
15	Ubiquitous Healthcare 산업 클러스터 구축	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종료
16	인천 바이오신약 혁신역량 강화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종료

자료: 지식경제부(2011.12.30). 2012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수도권 신규사업 공고문

## 6)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은 세계 5대 식품클러스터 육성을 목표로 전라북도 익산시에 규모 358만<sup>m</sup><sup>2</sup>의 R&D, 수출지향적 식품산업도시를 조성하여 식품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입주시키는 사업임
  - 이는 가공위주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R&D로 전환하고, 개별기업을 네트워킹하며 내수 지향의 식품산업을 수출중심으로 변환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음
- 2007년 제1차 균형발전 정책보고회에서 식품클러스터 조성방향을 보고한 후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로 전북도를 선정하였고, 2008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입지지역(익산) 선정을 발표함.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0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법적근거 및 지원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함
- 2011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3대 R&D센터 등 6개 기업지원 H/W시설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투자유치를 전개하여 52개 기업과 연구소, 투자 MOU를 체결함.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15년까지 식품기업 150개와 연구소 10개가 입주할 예정임.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인프라 조성, R&D강화, 수출활성화, 기업역량강화, 투자유치 5개 핵심과제를 선정함
  - 기업지원을 위해 식품품질안전센터, 기능성평가지원센터, 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임대형공장, 기업지원센터 등 6개의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시설을 구축
  - 특히, 성장성과 농어업 연계성이 큰 발효 및 기능성 식품 등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

〈표 2-19〉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5대 핵심 전략

전략	세부 과제
인프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산업도시조성</li> <li>• 용수, 교통, 에너지 등 산업인프라 구축</li> <li>• 교육, 생활여건 조성</li> </ul>
R&D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대 기업지원시설구축</li> <li>• 공동 R&amp;D협업연구강화</li> <li>• 식품과학 네트워크 구축</li> </ul>
수출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종합서비스 제공</li> <li>• 수출거점기지 구축</li> <li>• 농어업 발전 견인</li> </ul>
기업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공급체계구축</li> <li>• 자금지원</li> <li>• 기업컨설팅 제공</li> </ul>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기업 150개, 연구소 10개 유치</li> <li>•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li> </ul>

- 식품산업은 국내 농업, 식품유통 등 전후방산업간 연관효과가 크고 연구개발 잠재력이 높아 기업, 연구소, 대학, 기관 등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상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특히,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을 협력하여 산·학·연·관이 협력 하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 취지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과 일맥상통하며 사업간 연계를 통해 사업의 중복을 막고 지역전략식품산업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사업간 시너지가 가능한 부분은 상호 보완하여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7) 유사사업 구조 비교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계획 제외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의 사업성격에 따른 사업구조도는 <그림 2-1>과 같음. 원물의 부가가치화와 타 산업과의 연계성이 낮은 사업이 피라미드의 가장 하단, 그리고 두 요소가 높은 사업은 피라미드의 상단에 놓여짐
- 즉, 향토자원육성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은 해당 지역의 향토자원인 농수산물로 향토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부가가치화 및 타 산업과의 연계성이 가장 낮음

- 지역전략식품산업은 대체적으로 생산, 유통, 가공 품목이 대부분으로 향토자원육성사업의 지원대상 품목보다 부가가치는 높은 반면 타 산업과의 연계성보다 해당상품에 중점을 둠
- 반면 농어촌자원복합화지원사업은 농어촌자원을 1·2·3차 산업과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체험관광과 연계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확대함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사업은 첨단기술과 접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3개의 사업과 비교하여 농수산물에 IT, BT, NT를 접목한 기술융합형 기업(중소기업+농어업)으로 보다 높은 차원의 사업유형이라 할 수 있음



〈그림 2-1〉 농식품부 유사사업의 사업구조

〈표 2-20〉 유사사업 비교

사업명	향토산업 육성	농어촌자원복합화 지원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신활력지역 사업	지역연고산업육성
담당부처	농식품부 농어촌산업팀	농식품부 농어촌산업팀	중소기업청+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한국농촌공사	지식경제부
목적	향토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자원복합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고용 증대	지역기반 특화 농수산물을 활용한 고 부가가치 농공상 융합형 신제품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농어민의 안정적 소 득증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을 활력지역으로 육성하여 장기적 자립발 전 기반 마련	지역 자원 특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 출 및 소득증대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적 지역자원, 복합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 전통적 자원</li> <li>- 지역 향토 농수산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 자원을 복합화한 사업</li> <li>- 생산+유통+가공+체험 등이 결합한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 BT, NT 등 첨단기술과 접 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li> <li>- 농수산물+첨단기술 접목 사 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 및 비농업분야 포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특화산업분야</li> <li>- 지역특화자원 (농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중복되 는 경우 제외)</li> </ul>
사업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학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클러스터형 사업단</li> <li>농어업인 조직, 제조가공업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농수산물 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단체</li> <li>-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li> <li>- 비법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비법 인과 법인 운영실적이 총 1년이상일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과 농어업법인 등 컨소시엄 형태</li> <li>- 공동출자형</li> <li>- 전략적 제휴형</li> <li>- 농어업인 경영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시/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지원기관 등</li> </ul>
사업지역	기초단위(시, 군)	기초단위(시, 군)	-	기초단위(시, 군)	기초단위(시, 군), 광역단위
지원기간	3년	3년	-	3년	3년
지원분야	H/W, S/W	H/W, S/W	S/W	S/W	S/W
세부 지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급화 및 다양화</li> <li>상품개발</li> <li>전통전래양식의 상품화</li> <li>신소재 상품개발</li> <li>문화상품의 개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li> <li>R&amp;D 및 컨설팅 등</li> <li>생산유통기반 구축</li> <li>집적화 기반 조성</li> <li>농어촌형 체험, 휴양 사업 기반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금지원</li> <li>R&amp;D</li> <li>컨설팅</li> <li>마케팅</li> <li>투자유치 지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주체 역량강화</li> <li>지역연고산업 육성관련 S/W</li> <li>H/W사업 제한적으로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학연 네트워크</li> <li>기술개발</li> <li>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li> <li>기업지원(마케팅 등)</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7~2008년 시범사업</li> <li>2009년~현재 본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0년부터 현재까지</li> <li>예산집행상 지자체 자율권 최대 보장</li> <li>지자체에서 포괄보조금예산사 업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정된 기업은 중기청 및 농식품부 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음</li> <li>2012년 말까지 중소기업300개 발굴 육성 목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낙후도에 따라 19~29억원 지원</li> <li>2006~2010년까지 사업진행</li> <li>2011년부터 기초생활권 포괄보조사업 비로 통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4년부터 매년 지원</li> <li>사업단 당 6억 원 내외</li> <li>국비출연금의 15~20% 지자체 및 민간 부담</li> <li>농업, 수산업, 임업 등 1차산업 중심 제외</li> </ul>

## 나. 유사 정책사업과의 차별성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해당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산업화하고 산·학·연·관을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어촌자원복합화 지원사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과 유사성을 지님. 반면, 타 산업과 비교하여 지역농식품의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라는 차별성을 지님
  - 지원대상의 경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해당지역에서 특성화할 수 있는 농수산물자원과 생산, 유통, 가공 등의 산업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타 산업과 유사함. 그러나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주로 지역향토 농수산물의 단순 생산유통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낮고, 농어촌 자원복합화지원사업은 타 산업과 연계한 테마, 체험 등 체험관광의 사업이 많음. 또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육성기업 역시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특화할 수 있는 산업에 기술을 융합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나 주로 원물의 기능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연고사업의 경우 R&D중심으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대비 수익성이 낮음
  - 지원분야는 대부분 H/W, S/W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과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어촌자원복합화지원사업은 H/W, S/W를 지원하되 부지 등 일정 H/W에서는 전체예산에서의 비중을 제한하고 있음. 반면 농공상융합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과 지경부 RIS사업은 S/W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 사업대상자의 경우 비교사업 모두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형태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농식품부 지원사업의 경우 법인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유사사업과 일부 중복성이 있기에, 유사사업과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중복사업에 의한 예산 낭비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경우 농수산물 생산유통 중심, 농어촌자원복합화사업은 테마·체험 중심,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은 농수산물의 기능성에 중심을 두고 있음. 현재까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중 일부가 농수축산물의 생산, 유통사업이나 테마 체험 중심, 일부 단순가공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비교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가 있음
  - 지역전략식품사업은 유사사업과 차별화를 통해 지역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임. 즉, 지역 농축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지역농업의 전략화가 가능하도록 품목 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가가치와 시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역시 이러한 목표에 부합도록 함

〈표 2-21〉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구분	지역전략 식품산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어촌자원 복합화 지원	신활력사업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	지역연고산업 육성
사업 유형	가공중심	생산유통	생산유통/체험관광	가공/관광	가공/기능성중심	R&D중심
사업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 (의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사업 추진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업조직</li> <li>생산자단체</li> <li>농수산물가공업체</li> <li>체험휴양마을사업자</li> <li>연구단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활력 지역 지자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 농어업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li> <li>연구소</li> <li>기업</li> <li>기업지원기관 등</li> </ul>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중심</li> <li>H/W 사업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li> <li>H/W</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li> <li>H/W</li> <li>사업추진단 운영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중심</li> <li>- 지역자원개발</li> <li>- 문화관광개발</li> <li>- 인재육성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중심</li> </ul>

- 지금까지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하여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사업육성 사업 등 유사사업을 비교함으로써 비교하여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과의 중복지원의 문제, 사업유형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살펴보았음. 이를 종합할 때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이 비교사업과의 차별성은 지역의 농수산물을 고부가가치화이며, 이를 위해 사업 선정 조건, 지원 대상, 예산의 사용 등이 사업의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할 것임
- 다음의 4절에서는 해외 식품클러스터 사례를 통해 해외 식품 클러스터가 해당 클러스터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지원 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4. 해외 사례<sup>8)</sup>

### 가. 일본 식료산업 클러스터<sup>9)</sup>

-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식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 심화, 수입농산물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시스템 합리화, 국산 푸드시스템 확립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5년부터 식료 산업 클러스터를 농식품산업의 중요 시책으로 도입하게 되었음
- 즉, 식료산업 클러스터 정책사업을 통해 지역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네트워크로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식료산업 클러스터의 추진체계는 중앙정부와 각 도도부현의 협의회로 구성되는데, 중앙정부에 식료산업클러스터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두고 전국의 각 도도부현에 협의회를 설치하여 각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2007년까지 47개 도도부현 중 46개의 도도부현에 식료산업 클러스터 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식료산업 클러스터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 대학 및 시험연구기관 등 관련 산업을 포함하여 산·관·학이 연계를 통한 가공기술을 활용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이나 지역브랜드를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국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과 유사성을 지님
- 각 지역에 설치된 식료산업클러스터 협의회는 식료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클러스터 추진체계의 네트워킹, 상품개발 사업화 지원, 코디네이터 지원을 통한 클러스터 체제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함
  - 클러스터 추진체계 네트워킹: 협의회는 생산자 단체, 식품 제조업 및 유통업, 지방정부, 연구기관(대학) 등 참여주체의 네트워킹을 지원함으로써 각 주체를 유기

8) 농림수산식품부(2010).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기본계획수립연구 보고서를 참조하여 재정리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1). 일본의 식료산업 클러스터 동향: 미야기현 사례를 중심으로

적으로 연계하고 신제품 개발, 브랜드 구축 등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음

- 상품개발 지원: 대학 등의 시험연구기관, 신제품 개발, 브랜드 구축 등의 상품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리고 있음
- 판로확대: 대규모 상담회 참가지원, 실수요자 등에 상품 PR사업 지원, 보관시설 활용 및 계약거래 매칭사업 등 판로확대 역할 수행
- 코디네이터 지원: 각 협의회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각 지방의 식료산업클러스터협의회에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함. 코디네이터는 클러스터 체제 구축을 정리하고,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획, 상담을 하며 2011년 현재 100여명의 코디네이터가 식품가공, 판매, 유통, 상품개발, 생산관리, 농업 생산, 경영혁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음

〈표 2-22〉 일본 식료산업 클러스터 협의회 역할

구 분	내 용
네트워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관·학 교류회 및 세미나 개최 지원</li> <li>• 인재육성을 위한 연수회 등 개최 지원</li> </ul>
상품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식품 브랜드 구축 지원</li> <li>• 신상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li> </ul>
판로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상담회 참가 지원</li> <li>• 실수요자 등에게 상품 PR사업 지원</li> <li>• 보관시설 활용 및 계약거래 매칭 사업 지원</li> </ul>
코디네이터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가공, 판매, 유통, 상품개발, 생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기획, 상담</li> </ul>

○ 대표적으로 미야기현의 식료산업 클러스터가 있는데, 이들은 식료산업과 정부, 연구기관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 생산체계를 강화하고 시장개척 및 상품개발을 위한 생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함. 미야기현 식료산업클러스터 정책협의회는 2006년 6월 설립되어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코디네이터 활동, 신상품 개발 및 판로확대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협의회에는 식품제조업, 유통업, 생산단체, 대학 등이 참여하며 2010년 현재 106개 기업 및 단체가 가입되어 있음. 이들은 신상품개발 및 판로확대 지원사업 사

업비의 50%는 자부담이며 나머지 사업은 모두 국비와 지방정부(미야기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일본 식료산업 클러스터 협의회는 주로 네트워킹 지원, 상품개발 지원, 판로확대, 코디네이터 수행을 통해 각 클러스터 주체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었음. 이는 클러스터 참여 주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주체 간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며,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경우에도 H/W 지원이 아닌 사업단의 역량 향상이 중요함을 시사함

## 나. 일본 지바현 식품산업 클러스터

- 일본 지바현 식품산업 클러스터는 장기간 자연적으로 형성된 클러스터로 클러스터 조성 전 이미 장기간에 걸쳐 업종별로 다양한 기업이 자연적으로 집적되어 있어 있었음. 이를 지바현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 진흥과가 2006년 6월 중장기 전략인 ‘지바 신산업 진흥전략’을 수립하면서 자연 집적된 기업 및 대학연구소를 네트워킹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기술의 상업화를 도모하고자 클러스터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음
  - ‘지바 신산업 진흥전략’에 따라 핵심산업 7개 분야를 지정하고 분야별 클러스터 계획을 수립하고 7개 클러스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조산업, IT 전기산업, 바이오 생명과학, 그린화학, 물류산업, 식품산업, 관광산업의 분야별 클러스터 협의체를 설치함
  - 지바현 클러스터는 장기간 형성된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조성하였기 때문에 참여기업이 지바현 전체에 두루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지바현 식료품 제조 출하액은 1조 830엔으로 전국에서 6위 규모임
- 클러스터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지바현이 주축이 되어 지바현과 민간(금융기관, 경제단체 등)이 협력하여 재단법인 지바현 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지바현이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재단법인 조직은 크게 사업진흥, 신사업 지원, 사업지원, 경영지원 4개 부서로 구성되며 상주직원은 130명임

- 재단법인은 지바현청 산업진흥과와 클러스터 관련 업무를 협력하고 있으며 지바현청 산업진흥과는 클러스터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진흥센터는 이를 실행하고 있음
- 지바현은 클러스터 추진조직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네트워크 형성 촉진 프로그램, 연구개발 지적재산 활용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 및 경영촉진 프로그램, 판로개척 촉진 프로그램, 자금조달 지원 프로그램, 전략적 기업유치 촉진 프로그램, 인재육성 취업촉진 프로그램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표 2-23〉 지바현 산업진흥센터의 주요 업무영역

구 분	내 용
사업진흥	설비대여, 설비도입자금 대출, 거래처 알선 및 발주처 매칭
신사업지원	연구 개발부터 판로개척까지 일관된 종합 지원, 지바 중소기업 자금 조성
창업보육지원	토까즈 테크노 프라자 (창업보육지원센터), 인큐베이팅 사업, 정보 교류 및 촉진, 공동연구 주선, 기기업 연구개발 지원
취업지원	취직 지원 서비스, 채용지원 서비스
경영지원	벤처기업 육성, 중소기업지원센터, 농상공 연계, 정보 제공, 인재 육성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0).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기본계획수립연구

- 지바현 산업진흥센터에서는 클러스터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는 결국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라는 클러스터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임. 따라서 지역전략식품산업 사업의 사업단 역시 1회성의 단기적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해당 참여주체들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켜야 할 것임

## 다. 네덜란드 푸드밸리(FOOD VALLEY)

- 푸드밸리는 와게닝겐 주변 15km에 걸쳐 조성되어 이 지역을 기점으로 주변국과의 입지적 접근성이 뛰어나며 주거 및 교육환경, 연구소 및 패키징 센터 등의 기본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식품관련 창업자들이 이 지역의 입주를 희망하는 주요인임
  - 푸드밸리는 연간 네덜란드 GDP의 10% 수준(60조원)으로 이 중 50%는 수출이며 약 70만명이 종사하고 있음
  - 2010년 기준 약 1,500여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주요기업으로는 NIZO, 유니레버, 하인즈, 네슬레 등이 있음
  
- 푸드밸리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클러스터에 1997년부터 와게닝겐 대학의 주도하에 지방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민간 기구와 협력하여 클러스터 조성기반을 다지기 시작함. 즉, 푸드밸리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자연형성된 클러스터로 R&D 연구기관은 민간에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개입은 없음
  - 1997년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와게닝겐 지방정부가 설립한 '와게닝겐 생명과학 재단'은 푸드밸리 재단의 기반으로 2004년 재단설립 이후 공식적으로 출발하게 됨
  - 4개의 기초지방단체와 1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네덜란드 지역개발청 등 민간의 공동출자로 설립하였으며 지방정부가 예산을 보조하고 있긴 하지만 푸드밸리 재단이라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중앙정부가 푸드밸리 재단에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하지 않고 있으나 클러스터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 및 협조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푸드밸리 재단에 예산을 보조하며 클러스터 운영측면에서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음
  
- 푸드밸리 재단은 재단이사(가)가 클러스터에 대한 우호적 정책수립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재단 직원은 입주업체 네트워킹, 투자자 모집, 창업 컨설팅,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푸드밸리는 산학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상업화하거나 연구소와 기업을 연결하여 신상품 개발을 적극지원하고 있음

- 기업의 경영지원의 경우 벤처창업이 가능하도록 농식품 관련 실험실, 사무실 임대 및 IT기반 시설을 지원하거나 비즈니스 상담 및 인허가 절차를 지원함
- 또한 푸드밸리 재단은 2003년 푸드밸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푸드밸리 소사이터티를 설립하고 2개월 주기로 협의회를 개최함

〈표 2-24〉 푸드밸리 재단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산관학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상업화</li> <li>• 연구소와 기업을 연결하여 신상품 개발 지원</li> </ul>
투자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 모집</li> </ul>
창업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관련 컨설팅을 실시</li> </ul>
경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계획 수립 등 경영지원, 농식품 관련 실험실 및 사무실 임대, IT기반 시설 지원</li> <li>• 비즈니스 상담 및 인허가 절차 지원</li> </ul>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0).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기본계획수립연구

- 네덜란드 푸드밸리의 산학협력체계를 통한 기술상업화로 신상품개발에 적극적임. 이는 결국 연구소와 기업을 연결하여 이들의 역량을 충분히 끌어내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할 수 있음. 지역전략식품산업 사업단 역시 단순히 식품기업을 참여시키는 것 뿐 아니라 이들을 잘 연결시키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임.
- 만약 사업단의 R&D역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국가 및 주변 연구기관과의 연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라. 덴마크 스웨덴의 외레순 식품클러스터

- 외레순 식품클러스터는 오래전부터 외레순 지역에 식품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본격적으로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로 많은 기업들이 집적되면서 공동의 관심사가 생겨나게 되고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게 되어 1999년 외레순 푸드네트워크를 설립함

- 스웨덴과 덴마크 사이에 16km에 달하는 외레순 교량의 건설로 지역경제 통합이 이루어 졌으며 1995년 두 나라가 EU멤버가 되면서 클러스터를 육성하게 되었음
  - 외레순 지역은 19세기부터 협동조합을 주임으로 농업생산과 식품가공업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계, 발전해왔으며, 외레순 클러스터 매출은 연간 480억불 규모로 이중 70%가 수출임
- 외레순 식품클러스터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음
- 5개의 공항이 근접해 있어 물류에 적합한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외레순 지역에는 외레순 식품클러스터를 포함하여 3개의 식품클러스터가 있음
  - 외레순 지역에는 10개의 대학과 16만명의 학생이 있으며 400여개 식품업체와 25만명의 종사자가 있음
- 외레순 식품클러스터 지원기관인 외레순 푸드네트워크는 외레순 과학기술협회의 산하기관으로 초기에는 EU정부의 관심으로 시작되어 EU 정책 자문으로 대학과 민간기업의 주도하여 구성되었으나 현재 운영은 민간 운영으로 보고 있음
- 덴마크와 스웨덴 각국 중앙정부에 의해 일부 예산을 보조받고 있으나 2005년 이후 클러스터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거나 기타 연구용역 사업 이익으로 예산을 충당하고 있음
- 외레순 푸드클러스터는 연구소, 기업, 학계 간 네트워크 형성, 식품개발에서부터 기술의 상업화, 기술 개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외레순 푸드네트워크는 농업, 연구소, 대학, 기업 간 네트워킹하며, 전지역을 상대로 식품기술개발을 독려하거나 개발된 식품기술을 상업화함
  - 또한 원재료를 공급하는 농업 종사자와 현지 연구소, 대학의 연구개발자들을 연계시켜 기술개발을 활성화시키며, 전 지역에 산재해있는 연구소, 기업, 학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산학관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협력적인 연구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함

〈표 2-25〉 외레순 식품클러스터 푸드네트워크 역할

구 분	내 용
주요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협력</li> <li>• 산·학·관 네트워킹</li> <li>• 개발기술의 상업화</li> <li>• 기술개발 지원</li> <li>• 기술개발위한 자금조달</li> <li>• 업체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li> </ul>

자료: 농림수산물부(2010).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기본계획수립연구

- 이처럼 외레순 식품클러스터는 해당 지역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클러스터의 기반이 잘 형성되어 있음. 따라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사업단 선정에 있어 기존에 형성된 클러스터의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역할은 클러스터 기반 조성이 아닌 네트워킹을 통한 기술개발 활성화, 상품화 등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역할을 중심으로 해야함.
- 지역전략식품산업 사업단은 네트워킹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참여주체 네트워킹 뿐 아니라 자금의 용도도 이를 중심으로 하되 H/W투자는 타 사업과 연계하거나 기반이 잘 조성된 지역을 선정함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고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야함

## 마. 이탈리아 에르벳(ERVET) 클러스터

- 이탈리아 에르벳 클러스터는 장기간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지방정부가 본격적으로 클러스터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음. 이 지역은 1950년대부터 20년간 농업의 현대화를 추진하였고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회사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 이후 클러스터 성장기로 진입하게 됨
- 에르벳 클러스터는 지역특산물을 배경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2차 세계대전 후 산업단지 형태로 조성이 이루어졌으며 소기업 중심의 전통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정부가 클러스터 형성에 개입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지방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 유한회사 설립 등을 통하여 클러스터를 조성했음
  - 2008년 입주기업은 43만개 이상으로 이중 97% 기업은 종업원 20명 미만으로 기업당 평균 종업원 수는 5.2명임
  - 이 지역은 6개 대학이 위치해있고 15만명 이상의 학생과 6,400명의 교수와 연구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의 40%는 타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음. 연간 이탈리아 특허의 17%가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
- 에르벳은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정부가 지역의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하여 1974년 설립된 기관임. 지방정부, EU, 민간에 의해 설립된 지역의 기술전수 기관이며 클러스터 내 대학, 민간연구소, 서비스센터, 신규 혁신센터의 네트워크를 주업무로 하는데 크게 입주업체 운영 기술지원,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 클러스터 지역의 성과분석 및 관찰, 클러스터 정책 실현 네 개 분야로 나눌 수 있음
  - 기술혁신 지원은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종산업별 네트워크를 도모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마케팅 차원에서 입주업체를 지원하고 있음
  - EU, 중앙 및 지방정부를 네트워크, 공공기관과 민간기구의 파트너십을 구축, 지역간 국가 간 네트워크를 통한 중재역할을 시도하고 있음
  - 더불어 공동브랜드 사용권장, 상품품질 인증을 통해 품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있음

## 바.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에 주는 시사점

- 지금까지 살펴본 대표적인 해외 클러스터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지역전략식품사업 선정 시 해당 품목의 가능성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사업 기반을 고려하여 지역전략식품산업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해외 클러스터의 경우 대부분 자연발생적 산업단지에 중앙 및 지방정부의 추진의지가 더해져 조성되었는데, 기존 농산업 기업이 입주와 지역의 교통, 연구기관 등 배후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클러스터 핵심인 네트워킹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음. 지역전략식품사업이 1차 산업에서 나아가 2, 3차 산업과 연계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만큼 이를 위한 시설 및 교통 등의 기반시설, 연구기관과의 협력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야 함
  - 둘째, 사업단의 거버넌스 체계가 명확하여야 함. 지역전략식품사업은 농업경영체 뿐 아니라 식품기업, 연구기관, 지방정부 등과 협력 하에 전후방 사업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과 연계된 기관간의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야함. 해외 클러스터의 경우 지원기관과 참여 기업 간의 역할 분담 체계가 명확하고 네트워킹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음. 현재 선정단계에서 사업단의 역량을 검토하고 있긴 하나 사업단 선정이 전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등 준비부족으로 본 사업 추진 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실한 사업계획서, 사업단 역량검증의 미흡으로 1차년도 사업 초기에는 사업단 법인구성, 방향설정 등에 대부분의 여력을 소비하는 상황임. 신청 사업단이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명확하고 적절한 역량을 지녔는지 해당 조직에 대한 역량 평가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함
  - 셋째, 자금 지원은 단기적 소비성 투자나 시설투자가 아닌 S/W중심의 지속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함. 해외 클러스터의 경우 클러스터 기반이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원기관은 기반형성이 아닌 클러스터의 핵심기능(네트워킹 및 기업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지역전략식품사업의 경우 현재 자금의 용도를 네트워킹, 기술 개발 및 상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단기적인 시

설물에 대한 투자가 많아 기존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시설지원사업과 중복되며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함.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종전의 지역클러스터 및 광역클러스터 사업과는 달리 지역전략식품산업 사업이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클러스터 기반시설은 사업의 선정단계에서 고려되거나 하드웨어 지원 사업으로부터 지원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새로운 시설물에 대한 비용지원은 타 사업에서 지원 받도록 하고 조직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S/W중심 지원이 이루어져야함.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해당 클러스터(사업단)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단기적 지원보다 사업수립을 위한 준비단계를 포함한 단계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5. 소결

- 본 장에서는 클러스터의 개념과 지역전략식품산업 현황, 유사사업과의 유사성 및 차별성, 해외사례를 살펴보았음. 산업클러스터는 지리적, 산업적 집적체로서 산·학·관·연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참여주체의 네트워킹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임. 국내에서는 2000년대부터 클러스터 개념이 다양한 산업의 정책사업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농업분야에서는 2004년 농식품부가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지역농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음
- 2005년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 광역클러스터를 거쳐 2011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2005~2009년 선정된 사업단의 경우 단순 생산유통과 설비 및 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유사사업과의 중복성 문제, 사업단의 운영성과가 미흡하고 수익성이 낮아 사업단의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사업의 세부 문제점은 3장의 실태분석을 참조).
-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기존사업과는 달리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선정하고, 지원예산을 혁신체계 구축 등 S/W 중심으로 지원하며, 상품화를 중시하는 시장지향성 등 사업단의 수익성 및 자립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해외 클러스터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시설 지원 보다는 네트워킹 지원, 교육지원, 신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등 S/W 중심으로 지원함으로써 클러스터의 역량을 강화시켜왔음
  
- 따라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농산물의 전략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중심으로 가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체계를 강화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사업단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S/W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즉, 지역자원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가공중심 품목선정을 통한 타 사업과의 차별성을 제고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단 운영주체의 역량강화, S/W중심의 지원, 사업의 지원체계 개선(예: 준비기간을 포함한 단계적 선정절차) 등이 필요함

### Ⅲ.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실태분석

#### 1.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실태조사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실태조사는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전화/현장인터뷰를 통해 실제 현황 조사를 해서 오류 및 미기재 사항에 대하여 추가하여 작성하였음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실태조사는 기존에 실시한 19개 우수 사업단 조사를 포함한 2005, 08, 09년 3년 동안 지원 사업을 실시했던 54개 사업단에 대한 분석으로, 지원 연도별 분석, 참여지역, 사업단 매출, 영업이익, 참여기업체수, 참여 농어촌수, 마케팅 효율성, 수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로 이루어짐
- 사업단 생산품목 유형구분은 생산, 유통, 가공, 테마로 4가지로 구분하여 분류됨
  - 생산은 산지의 재배수확, 포획, 채취등을 통해 얻어지는 생산품을 의미
  - 유통은 생산품에 의한 단순한 유통으로 식자재 가공 유통 판매까지만 허용함
  - 생산, 유통은 보통 함께 이루어지며 단순한 원자재 가공유통도 유통에 포함됨
  - 가공은 생산원자재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을 의미함
  - 테마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만을 주로 하지 않고 시연 및 체험과 같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특히 가공 사업은 부가가치 가공 사업으로 원자재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정도 까지 보고 있음
- 사업단 사업유형은 생산유통, 테마(가공), 가공, 생산가공으로 구분됨
  - 생산유통 사업유형은 단순한 생산 및 생산 상품의 가공을 하지 않고 판매
  - 테마가공은 생산이나 가공에 관한 시연 및 을 통한 가공 상품 판매
  - 가공은 부가가치 상품을 개발 생산하여 판매 유통하는 형태
  - 생산가공은 원자재를 다른 가공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 판매하는 것으로 생산/유통에 포함됨

- 사업단 운영유형은 지자체주도형, 대학/연구소 주도형, 사업단 주도형으로 구분되며 각 형태는 사업단 운영 주체에 대하여 구분됨
- 지자체 주도형은 주소지 시/군, 지자체에서 사업단의 주체로 주로 관할 공무원이 사업단장을 맡고 사업단에 속한 사업운영을 관할 시/군, 지자체에서 주관하거나 관여 하는 형태로 별도의 사업단 운영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주로 지원 사업 초기(2005년)에 많이 생겨났음
  - 대학/연구소 주도형은 대학/연구소의 연구 및 상품 개발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단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대학교수, 연구소소장이 사업단의 단장을 맡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단 운영을 하거나 학교나 연구소의 특정 연구 기관의 특정 부서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음
  - 그중에서는 위원회 형식으로 각 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업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음
  - 사업단 주도형은 참여기업, 농어민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단을 구성하며 별도의 사업단장 및 사업단을 운영하고 진행함
  - 점차 지자체 주도형은 감소하며 정책 초기(2005년)에 지자체 주도형 사업이 전체 사업단 운영 유형 중에 5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대부분이 지자체 주도형 사업단이었지만 사업단의 유지나 향후 지속성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점차 감소하고 있음

〈표 3-1〉 지원사업 운영유형 연도별 지정현황

(단위:개소,%)

구분	사업단 주도형	지자체 주도형	대학/연구소 주도형	합계
2005	7	10	3	20
2008	13	9	-	22
2009	10	-	2	12
합계	30	19	5	54
비중	55.5	35.2	9.3	100.0

출처: 인터뷰 실태조사를 통한 각 사업단 현황자료

## ○ 년도 별 사업단 운영 지속성 여부를 보면

- 사업단 주도형은 사업단 운영이 100% 지속 되고 있지만 축산 사업단과 단순생산 /유통 사업단 일부의 경우는 향후 2~3년 안에 사업단 중단되거나 다른 조합에 흡수예정이라고 함
- 특히 축산 사업단의 경우 현재 2005~08년 사업단 중에 강원도에 사업단 2곳과 영남지역의 사업단 2곳은 현재 경영이 어려워 다른 방향을 모색중인 것으로 이번 인터뷰에서 나타났음
- 지자체 주도형은 사업단의 운영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으며 지원사업 초기에는 사업단 운영이 의무화가 아니었으므로 지자체에서 지원 사업 위주의 사업을 진행 한곳이 많았음
- 지자체에 관리하다보니 별도의 수익 사업이나 설비사업이 부족하며 지원사업을 통해 참여 농어민 및 기업의 매출이나 효율이 증대 되었다고 하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수치나 뚜렷한 매출증대를 보이는 곳은 없으며 기존에 사업기반을 가지고 시작한 참여농어민만 추가적인 지원금으로 일부 매출증대를 보여 주고 있음
- 대학/연구소 주도형 사업단은 대부분 설비시설을 학교나 연구소에 설치하고 개발이나 연구에 사용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상용화하여 참여농가에 매출증대에 도움이 된 곳은 전체의 40% 정도로 나타남

〈표 3-2〉 사업단 운영 지속성 여부 확인

(단위: 개소)

구분		사업단주도형		지자체주도형		대학/연구소주도형		합계		
지원년도	운영여부	보고서	현재	보고서	현재	보고서	현재	보고서	현재	차이
2005	운영	7	7	2	1	1	-	10	8	▲2
	미운영	-	-	8	9	2	3	10	12	2
2008	운영	13	13	9	7	-	-	22	20	▲2
	미운영	-	-	-	2	-	-	-	2	2
2009	운영	10	10	-	-	2	2	12	12	-
	미운영	-	-	-	-	-	-	-	-	-
합계		30	30	19	19	5	5	54	54	-

출처: 인터뷰 실태조사를 통한 각 사업단 현황자료

- 사업단 추진상황 점검결과표를 토대로 사업단의 주도 사업유형을 확인해본 결과, 생산·유통 주도형 사업단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표 3-3〉 사업단의 주도 사업유형 변화 추이 비교

(단위 : 사업단 수,%)

	생산/유통	가공	테마
2005	12(63.2)	4(21.1)	3(15.8)
2008	12(66.7)	9(50.0)	4(22.2)
2009	9(81.8)	5(45.5)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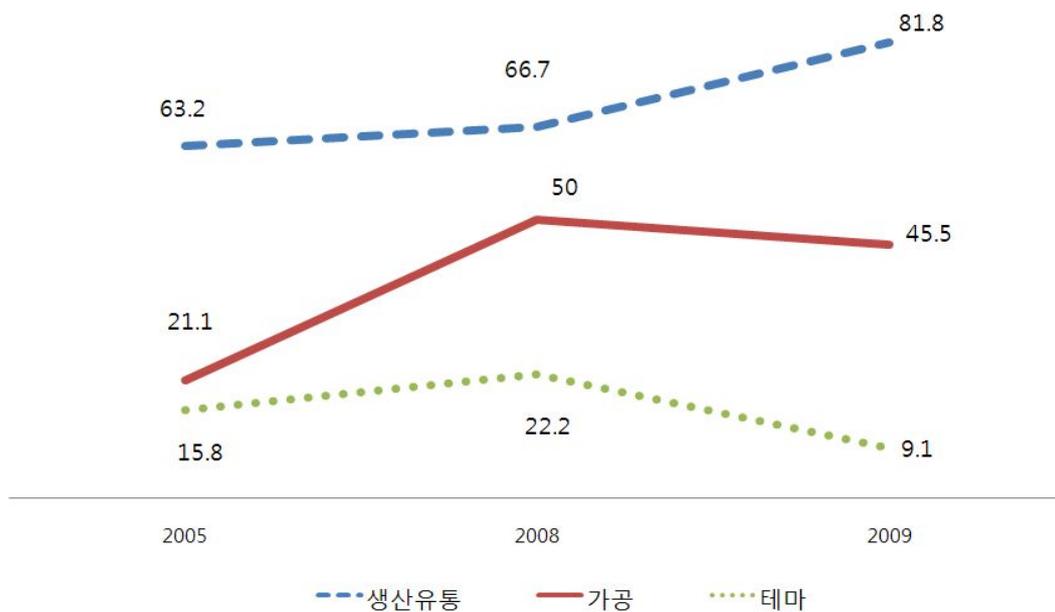
출처: 인터뷰 실태조사를 통한 각 사업단 현황자료

주 : 복수표기 허용, 추진상황 점검표

- 생산·유통 주도형 사업단을 품목별로 나누어 본 결과, 한우, 양돈 등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8.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 사업단의 주도 사업유형 변화 추이

(단위 : %)



출처: 인터뷰 실태조사를 통한 각 사업단 현황자료

- 사업단의 운영/미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단의 미운영이 되는 원인과 운영이 되더라도 사업단의 지속성이 낮은 사업단이 많음
  - 사업초기에는 약60%의 사업단의 미운영이며 점차 사업단의 운영이 증가하는 추세임

〈표 3-4〉 지원사업 년도별 사업단 운영여부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05	2008	2009	합계
사업단 운영	8	20	12	40
사업단 미운영	12	2	-	14
합계	20	22	12	54

출처: 인터뷰 실태조사를 통한 각 사업단 현황자료

- 지역적으로 보면 전남, 전북 순으로 사업단이 많았으며 제주, 경기, 충북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전남은 20%,전북은 17%로 가장 큰 구성비를 보이며 제주는 5.5%, 경기, 충북은 7.4%로 가장 적은 구성비를 보임

〈표 3-5〉지역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편중표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2005	2	2	3	2	3	3	1	2	2	20
2008	2	1	2	3	5	4	1	3	1	22
2009	1	1	0	2	3	2	1	1	1	12
합계	5	4	5	7	11	9	3	6	4	54

출처: 인터뷰 실태조사를 통한 각 사업단 현황자료

## 2.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실태분석

### 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사업단분류 분석

#### 1) 사업단 운영/미운영에 따른 분석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2005, 2008, 2009년 사업단 운영 /미운영을 확인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사업단 운영의 올바른 모델을 분석하고자 함
  - 사업단의 운영/미운영을 사업단운영 형태, 사업단 사업형태, 지역, 생산품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사업단 운영 /미운영을 3가지 사업 운영형태로 분류하고자 함
  - 생산/유통은 단순한 생산 유통 및 원자재 단순가공까지 포함하고 있음
  - 부가가치 가공 사업은 생산 상품을 설비나 공장에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환이나 반찬, 과자, 음료등이 있음
  - 테마 가공은 단순한 판매나 가공 사업이 아닌 체험이나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상품으로 볼거리, 체험을 동시에 가능함
  - 단순한 생산유통/ 운영형태에서 미운영은 전체의 사업단에서 33%이상이며 특히 사업단이 완전히 종료된 2005년 사업단의 경우 66%이상 미운영이며 나머지 33%로 사업단도 매우어려움 형편임
  - 부가가치 가공사업의 경우 미운영이 전체의 5.9%로 매우 작은 편이지만 08, 09년 사업단 중에는 무리한 설비나 기반시설의 지연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출폭이 매우 적은 사업단이 많아 지원 사업이후 사업단운영여부가 불분명함
  - 테마가공 사업유형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비 시설비용이나 건설비용으로 지원 자금이 많이 들어가며, 특히 2005년에는 설비지원만 하고 사업단을 운영하지 못한 곳도 있을 정도로 가장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단일 지원은 성공하기 어려우며 연계사업으로 지원이 필요함 임실의 경우 지원사업 비용으로 임실군에서 계획하는 테마 사업의 1차사업도 진행하지 못함

〈표 3-6〉 사업단 사업 운영형태에 따른 사업단 운영/미운영 분류표

구분		2005년		2008년		2009년		합계	
		운영	미운영	운영	미운영	운영	미운영	운영	미운영
사업 운영형태	생산/유통	4	8	9	2	7	0	20	10
	부가가치 가공사업	4	1	9	0	4	0	17	1
	테마가공	0	3	2	0	1	0	3	3

출처: 인터뷰 실태조사를 통한 각 사업단 현황자료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산업의 사업단 운영 /미운영을 생산 상품 분류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함
- 단순하게 미운영 사업단의 수량으로 보면 원예, 축산이 가장 많으며, 특히 2005년에는 전체에 80%, 66%가 넘는 미운영율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축산 사업단의 경우는 지원사업 중단되고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사업단운영이 어려움 곳이 많음
  - 2008년에 축산 사업단 중 약 50%가 향후 사업단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50%도 운영여부가 불확실함
  - 축산의 경우 판매장이 많아 사업단에서 원자재(소) 구매하기 위한 운영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음
  - 원예사업 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 지자체 주도형이 모두 미운영이며 참여기업이나 참여농가의 50%가 현재 사업운영을 안하고 있음
  - 특용 작물 사업단의 경우 초기 설비.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상품화하기 위한 연구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단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음
  -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사업단의 대부분이 기존에 상품화 되어있는 상품이 있으며 이것에 생산 설비만 추가 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특용작물의 특이성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선호도를 측정하기 어려우며 판로 계척이 매우 어려움
  - 판로 문제는 가공사업, 특용작물사업, 원예사업, 기타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에 하나임

〈표 3-7〉 사업단 생산품목에 따른 사업단 운영/미운영 분류표

구분		2005년		2008년		2009년		합계	
		운영	미운영	운영	미운영	운영	미운영	운영	미운영
생산 품목 유형	원예	1	4	11	1	3	0	15	5
	축산	2	4	7	0	5	0	14	4
	가공	2	1	1	0	0	0	3	1
	특용작물	1	3	1	0	1	0	3	3
	식량	2	0	0	0	2	0	4	0
	수산	0	0	0	0	1	0	1	0
	기타	0	0	0	1	0	0	0	1

출처: 인터뷰 실태조사를 통한 각 사업단 현황자료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산업의 사업단 운영 /미운영을 지역인 형태로 분류하고자 함
- 경기도의 사업단의 경우 2009년 사업단이 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단 중단되는 것 말고는 모든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음
  - 강원도 지역의 경우 100%축산 사업단으로 지원자금 없이는 오래 지속되자 못할 것 임
  - 영남지역의 경우 전체의 50%가 미운영 사업단이며. 미운영 사업단의 100%가 지자체주도형임

〈표 3-8〉 사업단 지역에 따른 사업단 운영/미운영 분류표

구분		2005년		2008년		2009년		합계	
		운영	미운영	운영	미운영	운영	미운영	운영	미운영
지역	경기도	2	0	1	0	1	0	4	0
	강원도	2	0	2	0	1	0	5	0
	충청도	1	3	4	0	2	0	7	3
	영남지역	1	4	3	2	2	0	6	6
	호남지역	2	4	9	0	5	0	16	4
	제주도	0	1	1	0	1	0	2	1

출처: 인터뷰 실태조사를 통한 각 사업단 현황자료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산업의 사업단 운영 유형은 크게 지자체주도형, 대학/연구소 주도형, 사업단 주도형으로 3가지로 구분됨
- 사업단 주도형의 경우 100%가 현재까지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음
  - 전체 미운영 사업단 중에 79%가 지자체 주도형 사업단임
  - 사업단 운영 중이 지자체 주도형에서도 전체의 83%(10개)가 가공 유통사업, 테마가공사업이고 단순한 생산/유통사업은 16.7%(2개)로 구분되고 있으며 지자체 주도형 사업은 사업단 지원 후에도 사업단 운영을 제외하고 전과 같은 운영을 하는 사업단이 많았음
  - 지자체 주도형 사업에서 사업단 미운영 중인 곳에서는 37.5%가 가공유통사업이며 나머지 62.5%가 단순 생산/유통사업이 있음
  - 전체적으로 지자체 주도형 사업단은 매출, 영업이익이 모두저조하거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저조한 사업단이 대부분임
  - 지자체 주도형 사업단은 전체적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 매출이나 좋은 기업, 농어민을 포함해서 급조한 사업단이 많음
  - 대학/연구소 주도형사업단의 사업단 미운영인 곳은 주로 사업단장 및 사업주도가 대학교수나 대학이 주관하는 곳이 많음

〈표 3-9〉 지원사업 운영유형 사업단 운영여부현황

(단위: 개소)

구분	사업단 주도형	지자체주도형	대학/연구소 주도형	합계
사업단 운영	30	8	2	40
사업단 미운영	-	11	3	14
합계	30	19	5	54

출처: 인터뷰 실태조사를 통한 각 사업단 현황자료

## 2)사업단 운영/미운영의 과정 및 사유분석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산업의 사업단 운영 유형의 사업 형태를 분석하면 운영 유형의 장/단점을 파악하며 이로 인해 사업단 선정 시 우선시해야 할 사업유형을 확인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지자체 주도형 사업단은 매출, 영업이익이 모두저조하거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저조한 사업단이 대부분임
  - 지자체 주도형 사업단은 전체적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 매출이나 좋은 기업, 농어민을 포함해서 급조한 사업단이 많음
  - 대학/연구소 주도형사업단의 사업단 미운영인 곳은 주로 사업단장 및 사업주도가 대학교수나 대학이 주관하는 곳이 많음

〈표 3-10〉 지원사업 운영유형별 사업형태분석현황

(단위: 개소)

구분	생산자단체 주도형	지자체주도형	대학/연구소 주도형	합계
생산/유통	16	8	4	28
가공	11	7	1	19
테마가공	2	5		7
합계	29	20	5	54

출처: 인터뷰 실태조사를 통한 각 사업단 현황자료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산업의 사업단 미운영/운영에서 사업단 자립이 가능여부 및 향후 지원 사업 종료 후에 사업단 종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2005년도에 종료한 사업단의 80%이상이 지원사업 종료 후 지원자금 부족으로 사업단을 미운영하는 경우로 전체의 80%이상이 지자체 주도형, 대학/연구소 주도형 임
  - 2005년 지원 사업종료 후 종료 된 사업단의 75%가 단순생산/유통 사업유형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며 단순한 판매장 설립 후 판매 위주의 사업이 많음
  - 전체 사업단의 50%는 크게 수익은 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가능하며 꾸준한 성장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전체의 약 20%가 향후에 추가적으로 사업단이 종료 될 것으로 보고 있음  
이러한 사업단의 경우 사업단 운영의 문제가 있으며 사업단장의 부재나 교체로 인해 사업의 지속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단순한 지원사업의 지원금 사용 위주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어 향후에는 사업단 운영이 매우어려움

〈표 3-11〉 사업단 운영 현황 및 지원 사업 종료 후 예상

구분	2005년		2008년		2009년		합계	
	운영	미운영	운영	미운영	운영	미운영	운영	미운영
	8	12	20	2	12	0	40	14
자체적으로 사업단 운영가능	4	0	13	0	8	0	25	0
사업단 운영이 어려워 향후 사업단종료 예정	2	0	7	0	2	0	11	0
사업단 불필요 (참여농가,기업 자립가능)	0	2	0	0	0	0	0	2
지원사업종료로 사업단종료(운영자금부족등)	2	10	0	2	2	0	4	12

출처: 인터뷰 실태조사를 통한 각 사업단 현황자료

### 3) 사업단별 매출차이에 대한 분석

- 2005년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산업의 매출 발생을 보면 지원년도에 매출이 발생한 사업단은 전체의 35%뿐임
  - 원예 사업의 경우 지원년도는 아니지만 매출발생년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기본적인 매출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의미하며 단순생산/유통의 경우 매출이 바로 발생 가능함
  - 2005년도의 축산의 사업단의 경우 대부분이 판매형 매장을 가지고 사업단을 운영하였으며 사업단에서 직접운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 가공 사업단의 경우 기반 시설의 설치에 시간이 오래 걸려 매출이 늦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식량 사업단의 경우 사업구성이 오래되고 규모가 커서 매출이 초창기부터 발생되지만 신장은 적음
  - 이처럼 사업단의 매출이 늦게 발생하고 저조한 것은 사업단 운영준비에 필요한

기간이 적으며 준비되지 않은 사업단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당해 년에 소비하게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소비가 이루어짐

- 향후에는 사업유형별로 사업 준비기간을 별도로 지정하여 지원금을 지원 할 필요가 있음

〈표 3-12〉 2005년도 선정 사업단의 생산상품유형별 매출 발생년도 조사표

구분		2005년			매출발생년도							
		운영	미운영	합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미발생
생산 품목 유형	원예	1	4	5	1	1	1	0	0	0	0	2
	축산	2	4	6	1	0	0	1	0	0	0	4
	가공	2	1	3	0	1	0	0	0	0	1	1
	특용작물	1	3	4	4	0	0	0	0	0	0	0
	식량	2	0	2	1	0	1	0	0	0	0	0
	수산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출처: 인터뷰 실태조사를 통한 각 사업단 현황자료  
(단: 사업단 매출 및 사업단 참여농가 매출기준)

- 2008년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산업의 매출 발생을 보면 지원년도에 매출이 발생한 사업단은 전체의 41%로 나타남
  - 2008년 원예 사업의 경우 전체의 55%이며 그중에 42%가 지원년도에 매출이 발생하며 83%가 매출이 발생하였음
  - 원예사업단 중에서 단순/생산유통 사업단의 경우 준비기간이 짧으며 매출이 바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임
  - 가공 사업단의 경우 매출이 바로 발생하지 않고 설비가 갖추어진 다음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2008년 사업단의 경우 원예 사업단의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크지만 전체 유형을 분석해보면 단수/유통 사업단의 경우 매출이 바로 발생하지만 기존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며 신규 매출발생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함

〈표 3-13〉 2008년도 선정 사업단의 생산상품유형별 매출 발생년도 조사표

구분		2008년			매출발생년도				
		운영	미운영	합계	2008	2009	2010	2011	미발생
생산 품목 유형	원예	11	1	12	5	4	1	0	2
	축산	7	0	7	3	2	2	0	0
	가공	1	0	1	0	1	0	0	0
	특용작물	1	0	1	0	1	0	0	0
	식량	0	0	0	0	0	0	0	0
	수산	0	0	0	0	0	0	0	0
	기타	0	1	1	1	0	0	0	0

출처: 인터뷰 실태조사를 통한 각 사업단 현황자료  
(단: 사업단 매출 및 사업단 참여농가 매출기준)

- 2009년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산업의 매출 발생을 보면 지원년도에 매출이 발생한 사업단은 전체의 35%뿐임
- 원예 사업의 경우 지원년도는 아니지만 매출발생년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기본적인 매출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의미임

〈표 3- 14〉 2009년도 선정 사업단의 생산 품목유형별 매출 발생년도 조사표

구분		2009년			매출발생년도			
		운영	미운영	합계	2009	2010	2011	미발생
생산 품목 유형	원예	3	0	3	2	1	0	0
	축산	5	0	5	3	1	0	1
	가공	0	0	0	0	0	0	0
	특용작물	1	0	1	1	0	0	0
	식량	2	0	2	0	1	0	1
	수산	1	0	1	1	0	0	0
	기타	0	0	0	0	0	0	0

출처: 인터뷰 실태조사를 통한 각 사업단 현황자료  
(단: 사업단 매출 및 사업단 참여농가 매출기준)

#### 4) 사업단 생산품목군 매출분석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산업은 2005, 2008, 2009, 2011년의 4개년에 걸쳐 지원되었으며 현재 분석하고 있는 것은 2005, 2008, 2009년의 3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지원사원이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원사업 시행기간 중과 종료 후 기간을 포함하여 5~7년간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과를 조사 분석하였음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산업 업무편람에 7가지 생산품 분류유형을 나누고 있음
  - 식량 : 주식이나 보조식량으로 이용되는 작물(예: 벼, 보리, 옥수수, 감자 등)
  - 원예작물 : 채소, 과수, 화훼 등을 통틀어서 구분
  - 축산 : 우육, 돈육, 계육 등을 통틀어서 축산이라고 칭함
  - 가공 : 원자재를 가공하여 본래의 모양을 변형
  - 특용작물 : 특수용도로 이용하는 작물(예: 유료, 섬유료, 기호료, 약료작물 등)
  - 수산 : 해상에서 포획, 재배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칭함(예: 넙치 등)
  - 기타 : 위 6가지 분류에 속하지 않는 상품군(예: 말 등)
- 2005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산업은 전체적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떨어지는 추세이며, 지원초기에 신장률 증감보다 지원 사업 후기에 신장률 감소폭이 더 크며, 지원사업 종료 후에는 매출 및 영업이익이 없는 사업단도 있음
  - 지원 사업 전후로 매출액 신장률 차이가 가장 큰 사업유형은 식량사업임
  - 식량사업유형도 단순한 생산/유통으로 가공없이 단순히 도정과 포장, 그리고 공동판매 위주의 RPC사업 중심의 사업은 쌀 가격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499%)
  - 가장 낮게 매출 및 영업이익률 신장률 하락폭을 보인 것은 가공 사업으로 지원사업 후에도 약 18%정도의 매출신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본 지원사업이 생산/유통 중심의 사업에서 가공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에 부합하는 결과로 향후 본 지원사업이 가공사업 중심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하겠음

〈표 3-15〉2005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매출(매출/영업이익) 분석표

(단위:%,백만)

지역	생산 품목별	사업단명 (2005년선정)	분류	매출						
				0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충북	원예	친환경과산청 정고추	실적	62	40,200	45,500	48,000	42,500	26,590	
			신장률	19	647	12	5	▲13	▲60	
함평과학농업		실적	6,800	8,200	7,500	8,000	7,000	8,726		
		신장률	▲9	17	▲9	6	▲14	20		
전남		M.APPLEPO WER	실적	7,561	7,952	12,800	16,200	19,500	24,000	
			신장률	33	5	38	21	17	19	
전북		제주감귤	실적	12,163	26,032					
			신장률	-	53	-	-	-	-	
제주		보성녹차	실적	50,700	79,400	81,000	82,800	83,000	59,600	
			신장률	14	36	2	2	0	▲39	
전남	특작	하동군지역특 화산업	실적	22,500	25,100	26,600	28,500	24,500	28,000	
			신장률	2	10	6	7	▲16	13	
경남	특작	풍기인삼	실적	33,376	34,043	38,632	40,808	38,649	43,549	
			신장률	46	2	12	5	▲6	11	
경북	특작	안성마춤	실적	62,000	63,300	95,700	104,000	98,900	73,200	
			신장률	24	2	34	8	▲5	▲35	
경기	식량	전남친환경쌀	실적		613	1,132	980	707	1,091	
			신장률	-	-	46	▲16	▲39	35	
경남친환경쌀		실적		190	3,693	431	349	500		
		신장률	-	-	95	▲757	▲23	30		
경기		기공	포천전통한과 마을	실적	7,400	7,200	8,000	9,000	9,800	9,700
				신장률	-	▲3	10	11	8	▲1
전북	축산	정읍환원순환 농업	실적	37,970	45,622	56,749	56,145	64,167	41,041	
			신장률	10	17	20	▲1	13	▲56	
경북한우		실적		774	1,046	6,587	7,427	5,314		
		신장률	-	100	26	84	11	▲40		

출처: 농림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자료

주: 총 20개 2005년 지원사업 중에 매출 데이터가 불온전한 7개 사업단 제외

주: (▲)는 음수표시

- 2008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산업은 전체적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약간 신장하고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실정임
- 지원 사업 전후로 매출액 신장률 차이가 가장 낮은 사업유형은 원예 사업임
  - 전체적으로 매출/영업이익률 신장률이 낮은 쪽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몇 사업단을 제외하고는 신장률 감소폭이 적음

- 2008년 사업단의 대부분은 지원기간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출증가폭이 작다가 지원 사업이후에 조금씩 신장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영업이익은 전체적으로 저조하며, 특히 단순 생산가공의 80%이상인 축산사업단 과 기타사업단의 영업이익은 심각한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임

〈표 3-16〉2008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매출(매출/영업이익) 분석표

(단위:%,백만)

지역	생산 품목별	사업단명 (2008년)	분류	매출			
				2008	2009	2010	2011
전북	원예	완주감	실적	2,882	2,257	2,918	3,139
			신장률	-	▲28	23	7
전남		무안황토고구마	실적	-	185	799	3,042
			신장률	-	-	77	74
전남		곡성메론	실적	0	2,013	2,686	3,514
			신장률	-	-	25	24
전남		영암무화과	실적	424	507	1,033	1,083
			신장률	-	16	51	5
전북		무주반딧불산머루	실적	50	672	310	250
			신장률	-	93	▲117	▲24
전남		구례산수유	실적	-	13	30	90
			신장률	-	-	57	67
전남		신안시금치	실적	-	-	608	10,739
			신장률	-	-	-	94
경남		남해보물섬시금치	실적	-	1,734	4,038	3,254
			신장률	-	-	57	▲24
경북		경산종묘	실적	1,050	1,923	2,198	2,135
			신장률	-	45	13	▲3
경북		상주고랭지포도	실적	58,836	61,272	68,500	90,950
			신장률	-	4	11	25
경북	영천와인	실적	2,053	1,912	2,330	2,623	
		신장률	-	▲7	18	11	
전북	진안친환경한방	실적	-	7	129	569	
		신장률	-	-	95	77	
경기	가공	화성웰빙떡	실적	0	87	961	2,210
			신장률	-	-	91	57
제주	기타	제주마산업	실적	0	0	226	564
			신장률	-	-	-	60
강원	축산	강원영동한우령	실적	-	4,200	1,453	3,329
			신장률	-	-	▲189	56
강원		홍천늘푸름한우	실적	-	-	185	1,985
			신장률	-	-	-	91
충북		충북친환경축산	실적	-	4	2,333	15,920
			신장률	-	-	100	85
충남		홍성백년대계한우	실적	1042	2,018	1,755	863
			신장률	-	98	▲15	▲103
경남		경남서북부한우	실적	5,632	11,888	15,992	18,756
			신장률	-	53	26	15
전북		남원친환경흑돈	실적	8,990	11,338	13,414	15,984
			신장률	-	21	15	16

출처: 농림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자료

주: 총 22개 2008년 지원사업 중에 매출 데이터가 불온전한 2개 사업단 제외

주: (▲)는 음수표시

- 2009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산업은 전체적으로 볼 때, 매출액에서는 몇 개 사업단을 제외하고는 신장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전체적으로 점차 감소하는 실정임
- 지원사업 기간인 2009~2011년까지 매출이 저조하며,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지원 사업기간동안 매출증가폭이 낮은 것은 사업단을 구성하면서 준비 부족과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의 안정화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표 3-17〉2009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매출(매출/영업이익) 분석표

(단위:%,백만)

지역	생산 품목	사업단명 (2009년)	지원 년도	매출		
				2009	2010	2011
경북		감고부가가치	실적	700	1,100	2,021
			신장률	-	36	46
전남	원예	전남딸기	실적		360	1,687
			신장률	-	-	79
경기		팥당클린농식품	실적		17,597	1,274
			신장률	-	-	▲1,281
전남	식량	우리밀광역	실적		384	789
			신장률	-	-	51
경북	특작	청정약용작물	실적	198	787	1,315
			신장률	-	75	40
제주	수산	제주넙치	실적	2	1,251	4,282
			신장률	-	100	71
충북		육품정육우	실적	0	319	1,999
			신장률	-	-	84
전북		NH참여우	실적	47,519	51,692	50,933
			신장률	-	8	▲1
전남	축산	녹색한우명품화	실적	15,618	24,545	27,386
			신장률	-	36	10
충남		서부충남고품질양돈	실적	10,733	14,002	24,164
			신장률	-	23	42
충북		육품정육우	실적	0	319	1,999
			신장률	-	-	84

출처: 농림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자료

주: 총 12개 2009년 지원사업 중에 매출 데이터가 불온전한 1개 사업단 제외

주: (▲)는 음수표시

## 나.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애로사항 분석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2005, 08,09년 3개년을 거치면서 54개의 사업단 및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각 사업단이 지원사업 종료 후에 사업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을 직접 듣고 확인하고자 함

### 1) 지역농업식품클러스터 시범사업(2005년) 애로사항 정리

- 2005년 지원 사업 초기에는 사업의 체계가 안 잡혀있으며 단순한 지원사업 위주의 사업이 많아 사업단의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음
  - 지원 사업 종료 후 지속적으로 운영자금이 지원되도록 조치 필요(63%)
  - 사업단 운영시 설비시설 운영에 대한 효율성 증대 요청(19%)
  - 사업단의 법인화나 사업화하여 이익추구를 할 수 있도록 변경요청(6%)
  - 사업단의 생산품목이나 시스템에 대한 홍보 및 공동마케팅 지원요청(6%)
  - 계약재배 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3%)
  - 생산 상품의 인증 요청(3%)

〈표 3-18〉 지역농업식품클러스터 시범사업(2005년) 애로사항 분류표

내용	비중
지원 사업 종료 후 지속적으로 운영자금이 지원되도록 조치 필요	63%
사업단 운영시 설비시설 운영에 대한 효율성 증대 요청	19%
사업단의 법인화나 사업화하여 이익추구를 할 수 있도록 변경요청	6%
사업단의 생산품목이나 시스템에 대한 홍보 및 공동마케팅 지원요청	6%
계약재배 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3%
생산 상품의 인증 요청	3%
합계	(100%)

## 2) 1차 광역클러스터(2008년) 애로사항 정리

### ○ 2008년 사업 애로사항 분류

- 2008년 20개 사업단은 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나타남
- 지원금 사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 필요
- 매년 초에 운영자금지원이 아닌 생산 상품에 따라 다르게 매년중반이나 매년 말에 지원요청
- 적절한 예산 배정 및 진행에 대한 정책 및 지침 확립 후 배정(28%)
- 사업단의 안정화, 사업화, 자율화를 위한 준비기간 및 정책 수립 필요(21%)
- 전문 인력보강 및 교육 체계화 필요 : 관계기간협조 및 관련 지침서 확립 필요(17%)
- 홍보, 마케팅의 공동화 및 지원 필요(10%)
- 사업단의 운영자금을 위한 저금리 대출 요청/ 연구기관 설립 및 공공화 작업요청/지원사업의 기간연장 필요/통합 쇼핑몰 설립(각7%)
- 지자체 관계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어려움 (3%)

〈표 3-19〉 1차 광역클러스터(2008년) 애로사항 분류표

내용	비중
적절한 예산 배정 및 진행에 대한 정책 및 지침 확립 후 배정	28%
사업단의 안정화, 사업화, 자율화를 위한 준비기간 및 정책 수립 필요	21%
전문 인력보강 및 교육 체계화 필요(관계기간 협조 및 지침서 확립)	17%
홍보, 마케팅의 공동화 및 지원 필요 (관광, 유통, 교육 등과 같은 연계시스템을 통한 홍보)	10%
사업단의 운영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 대출 요청	7%
연구기관 설립 및 공공화 작업요청	7%
지원사업의 기간연장 필요/통합 쇼핑몰 설립	7%
지자체 관계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어려움	3%
합계	100%

### 3) 2차 광역클러스터(2009년) 애로사항 정리

#### ○ 2009년에 애로사항 분류 정리

- 2009년에도 사업단의 주요 애로의 하나는 개별 각 사업단의 인적구성 체계의 불합리와 전문성의 결여임
- 참여주체의 구성에 있어서 농식품부의 권고대로 전문 CEO(사무국장 포함) 등 외부 전문인력을 수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단에서 전문인력이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 것이 현실임
- 대부분 의사결정기구에서 배제되거나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집행하거나 대행하는 일종의 실무자로 전락한 경우가 많음
- 적절한 예산 배정 및 진행에 대한 정책 및 지침 확립 후 배정(46%)
- 전문 인력보강 및 교육 체계화 필요 (21%)
- 공통 홍보, 마케팅 및 각 사업단간에 비즈니스교류, 정보공유 필요(13%)
- 생산제품(국산품)의 인증 요청 및 의무사용(8%)
- 사업단의 안정화, 사업화, 자율화를 위한 준비기간 및 정책 수립 필요/ 지원사업의 지원금 추가연장 필요/ 지자체의 관계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어려움(각 4%)

〈표 3-20〉 2차 광역클러스터(2009년) 애로사항 분류표

내용	비중
적절한 예산 배정 및 진행에 대한 정책 및 지침 확립 후 배정	46%
전문 인력보강 및 교육 체계화 필요(공동전문 인력채용 및 전문가 영입)	21%
공통 홍보, 마케팅 및 각 사업단간에 비즈니스교류, 정보공유 필요(비슷한 사업단 또는 타 사업단에 대한 운영 매뉴얼 공유)	13%
생산제품(국산품)의 인증 요청 및 의무사용	8%
사업단의 안정화, 사업화, 자율화를 위한 준비기간 및 정책 수립 필요	4%
지원사업의 지원금 추가연장 필요	4%
지자체의 관계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어려움	4%
합계	100%

#### 4) 2005~09년 전체 애로사항 정리

- 2005~09년 전체 애로사항 분류 및 빈도 분석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확인하고자 함
  - 2005년 지원 사업 초기에는 사업의 체계가 안 잡혀있으며 단순한 지원사업 위주의 사업이 많아 사업단의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음
- 지속적인 운영 지원금 추가지원 요청(25%)
  - 2005, 08년에는 사업단이 단순한 지원사업 위주의 사업 활동으로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움 상태이며 지자체 주도형, 대학/연구소 주도형과 같이 사업단이 초기부터 없고 지자체에서 행정업무를 대행하거나 대학, 연구소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형태여서 지원 사업종료 후에는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음
  - 대부분의 사업단이 지원금으로 사업단운동을 하였기 때문에 지원사업 종료 후에는 사업단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 적절한 예산 배정 및 진행에 대한 정책(23%)
  - 특히 사업단 유형 중에 가공사업단의 경우 설비, 장치시설이 필요할 때 예산이 분할 배분되기 때문에 시설이 완료 될 때까지 사업운영이 안되며, 연초에 예산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예산 배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에 어려움이 많음
  - 또한 초기년도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거나 사업 후반년도에 사업비의 필요성이 사업단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유동성 있는 예산 배정이 필요함
- 전문 인력보강 및 교육 체계화 필요(12%)
  - 사업단의 전문 인력이나 사업단 전문경영인의 부재로 인해 사업단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지원사업의 정책 방안에 대한 교육 및 지침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 교육 및 체계화가 필요함
  - 주기적인 교육이나 네트워크 교류를 통한 유사 사업단의 벤치마킹도 필요함

- 
- 사업단(CEO, 사무국직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미비, 광역사업단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 등이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사업단의 안정화, 사업화, 자율화 준비필요(11%)
    - 사업단 초기년(2005년)에는 사업단의 유형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08,09년에도 사업단이 사단, 재단법인 경우가 많아 영리 사업이나 수익사업이 어려워 사업단의 운영이 어려움
    - 사업 확대나 지속적으로 사업단 운영을 위해서는 매년 정기적인 수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사업성이 있는 사업단으로 운영되도록 정책조정 필요
  - 사업단시설물을 이용한 대출 및 이용(9%)
    - 지원사업의 예산 사용내역에는 사업운영자금이 포함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원자재 구매나 상품대금은 사업단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춘 사업단 선정이 필요함
  - 홍보, 마케팅의 공동화 및 지원, 교류 필요(9%)
    - 사업단별로 연계사업을 통해 동종 사업단의 경우 사업의 장단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생산 상품(국산품)의 인증 요청 및 의무사용(4%)
    - 특히 가공 사업단의 경우 원자재의 국산 사용을 통해 품질경쟁력 증대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과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방법 강구 필요.
  - 연구기관 설립 및 공공화 작업요청(2%)
    - 가공사업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며,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은 개별이 아닌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수립 필요
  - 기타

- 지원사업의 기간연장 /통합 쇼핑몰 설립 필요(2%)
- 지자체의 관계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어려움(2%)
- 계약재배 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1%)

#### 5) 2005~09년 전체 애로사항 분석을 통한 시사점

##### ○ 사업단 지원의 단계적이고 다년간 지원체제로의 전환 필요

- 현재의 3년이라는 경직된 사업기간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적용하고 사업기간 중 평가를 통해 사업지원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적 지원 체계가 필요함.
- 그리고 현행 3년은 가공사업의 경우에는 성과를 보이기에 짧은 기간이기에 기간을 연장하되, 중간평가를 강화하는 지원체계 마련 필요함.

##### ○ 사업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배정의 유연성 제고 및 사업단의 독립 법인화 강화

- 사업단의 특성에 맞는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 배정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업단의 독립성과 사업단 목적과 특성에 맞는 독자적 사업을 위한 독립 법인화 의무가 강조되어야 할 것임

##### ○ 사업단의 경쟁력 증대를 위한 경영진에 대한 교육 및 책임관리 필요

- 사업단 단장이나 경영진 대상 정기적인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교육 및 책임과 사명 의식에 관한 교육 강화

##### ○ 사업단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사업단 전체를 지원라고 관리하는 상시적 관리조직 필요

- 사업단간 정보교류 및 R&D 수요와 애로 파악과 공동 대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공동 지원체제 구축 필요. 또한 공동 홍보를 포함한 공동 마케팅 전략 필요
- 산업단 전체를 네트워킹하고 지원 및 관리를 주관하는 상설 대행조직이 필요함

### 3.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사업단별 사례분석

#### 가. 우수사례 분석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우수사례는 특정부분에서 우수한 사례나 운영상에 문제가 없고, 매출이 많이 나오는 부가가치 기공사업 중심의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여 정리하였음

#### 1) 무안 황토고구마클러스터 사업단(2008년)

- 무안군 고구마 대표 브랜드 “토글토글”개발
  - 사업단 및 자회사의 주식총액은 297백만원으로 농어민 지분이 98.8%
  - 사업단 매출액 : (‘10) 8억원 → (‘11) 30억원
  - “황토고구마유기농포럼” 상설회의체 마련 : 12농가 참여, 100여ha 친환경 유기농 고구마단지 운영(정기회의를 통해 공동방제, 공동출하, 공동정산 도입 결정)
  - 공동이용 저장 및 집하시설 등 유통 기반시설 준공 : 건평 1,020평
  - 공동출하 조직 구성 : 고구마 2,000톤(t) 비축 완료
- “자색고구마를 이용한 기능성음료 개발” 등 신제품 개발(10건) 및 스낵 제품 개발 등 신제품 출시(5건)
  - 농산물(고구마) 및 고구마 가공품 전반에 공동브랜드(“토글토글”) 사용
  - 고구마 분말 및 빵튀기, 스낵제품, 고구마라면, 장류(고추장, 된장) 개발 및 판매 (식품가공업체와 OEM 생산)
- 고구마 브랜드(토글토글)를 체계적으로 관리, 브랜드 상품의 대형마트, 백화점 등(18개소)의 출하에 역점을 두어 농가소득 증대
  - 고구마사업단은 공동화 브랜드를 만들어서 위탁받은 고구마의 품질관리를 통해 규모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나 대규모 체인에 납품이 가능함
  - 농가에서 저장과 세척을 맡기는 상품들의 품질개선을 해주기 때문에 고가의 판매가 가능해 농가수익에 도움이 됨

- 농어민 생산 상품의 품질개선을 해주는 위탁사업만으로도 수익이 발생
  - 위탁사업 형태는 농가에서 수확한 고구마를 저장하거나 큐어링, 세척하는데 수수료를 받아 사용하는데 연간 약 2억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며 고구마를 위탁 구매해서 세척 작업 및 관리해서 판매함으로써 연간 3억정도 수익이 발생함
  - 사업단운영비가 약 3억 미만으로 연간 2억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함

## 2) 청정약용작물(2009년)

- HW사업 축소하고 주변농가 경제지원 및 마케팅 확충
  - 가공사업의 시설투자를 안하고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위탁 생산
  - 설비투자비용 줄이고 위탁생산으로 농가에 경제지원 효과
  
- 상품개발을 통한 경쟁력 증대
  - 약용작물 품질검사, 포장/디자인 개발, 가공업체 기술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 명품브랜드 개발, 유통 및 홍보 체계 구축으로 약용작물 산업 활성화
  - 연간 약30억 이상 매출을 내며 영업이익도 약 1.5억 이상
  
- 체코 바이어 사업단 방문 및 수출계약 체결
  - 안동 및 영주 참여업체 및 사업단을 방문하여 25개 제품에 대한 수출계약 체결함 (2011.9. 30~10.3)
  - 견본제품 선적(약 500만원 상당) 하였으며 금년 내에 세부 수출 계약 체결 예정
  
- 참여 시군, 참여 업체와 함께 지속적인 새로운 사업 발굴과 정부공모 사업 참여를 통한 예산 확보
  - 현재 안동시와 한국전통의학연구소와 연계하여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의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사업 공모심사에 참여
  - 『미네랄함유 약용작물을 이용한 기능성강화 세계적 스타제품 개발』 사업이 선정되어 향후 3년간 20억 규모의 사업 유치함

### 3) 서부 양돈사업단

#### ○ 서부충남 대표 브랜드 “마블로즈”개발

- 사업단 매출액 : (‘10) 140억원 → (‘11) 242억원
- 사업단 영업이익액 : (‘10) 60억원 → (‘11) 82억원
- 돼지카페 마블로즈 준공에 따른 대중매체 광고 및 행사를 통한 브랜드 홍보 강화 등으로 적극적 업무 추진
- 매월 집합 교육을 통한 기술지도 실시와 이력관리시스템 적용 농가를 경험하게 하여 사업단의 필요성을 인지 지속적인 관리로 신뢰도 향상과 교육 참여 유도

#### ○ 돼지고기의 품질 향상 및 양돈산업 활성화

- 고품질 평가를 받는 우수계통 도입을 통해 국내 돈육과의 차별화 추진
- 공동 브랜드(마블로즈, 참지음) 개발(‘10, 상표등록)
- 햄 소세지 제조방법, 식당메뉴 개발 中(청운대학교)

#### ○ 돼지의 고급 브랜드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득증대

- 오메가-3 함유 프리미엄 포크 : 마블로즈 개발
- 친환경 돼지카페 운영을 통한 생산농가 소득증대
- 홍보관(양돈산업 및 돼지일생), 교육장(지속적인 농가 교육)
- 농가 경영 및 사육지도, 육가공장(비선호 부위 활용)
- 체험관(햄, 소시지 만들기), 직영식당·매장 운영
- 특허 1건 출원→ 오메가-3함유 돼지고기

### 4) 감고부가가치사업단

#### ○ 사업단 참여 지역 약 30여 가공 농가 및 단체와 반건시 제품 표준화를 통해 홍보 및 판매 활성화

- 국내 최대 3대 홈쇼핑사를 통한 판매, 추석명절 상품전 참가 등

#### ○ 꿈엔들(완주군 농산물 가공공장 입주)

- 감 관련제품 연구개발 및 생산(감음료, 감아이스홍시, 감비타민, 감조청등)

- 농업회사법인 느린마을 완주양원("10.06.)
  - 지분출자 : 배상면주가 75%, 완주군감생산 농업인 25%
  - 주요생산제품 : 감 및 꾀감 증류주(제품명: 아락25, 아락40)
  - 완주감 원료 구매
  
- 국가지원 사업유치
  - 지역연고 산업진흥사업(사업비: 3,811백만원) : 네트워크, 제품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 창포마을 종합개발사업(사업비 : 4,300백만원) : 안티에이징 이미지구축
  
- 감 수확기 시군 축제 참가를 통한 감 제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
  - 청도반시축제, 상주 감고을축제 등과 연계
  
- 대한민국 대표 블로그 "100인닷컴", 농림수산식품부 팸투어단 등을 통한 감 제품 홍보 활성화
  
- 감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전방위 산업을 통한 농촌의 소득 증대, 신규 고용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후방위 산업화를 통한 가공을 향상을 위해 대형 식품업체와 감 제품 위탁생산 및 원료 공급으로 감의 고부가가치화 제품 소비 증가를 촉진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 후 사업단 자립화를 목표로 안정적인 사업 확대

## 다. 미흡사례 분석

- 미흡사례에서는 05,08,09년도에 선정된 사업단의 현재 운영 형태나 지원비 사용 현황을 분석하여 사업단 운영의 위주로 정리 하였으며 사업단의 미흡기준은 사업단의 매출, 사업단운영여부, 지속가능성, 사업단 운영 계획 달성률 등을 기준으로 하였음

### 1) 사업단의 단순한 사업형태로 인한 미흡사례

- 단순한 직판매장이나 전시장, 그리고 식당 운영은 사업단 운영의 주된 취지와 맞지 않고 운영에 있어서 적자 등 성과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축산 사업단의 경우 식당이나 직판매장 위주로 사업이 운영되어 본 사업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고, 그 성과 또한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축산 사업단 판매장의 일부는 시설의 임차를 통한 사업이고, 그 입지 또한 경쟁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료는 비싸서 사업 운영의 적자가 발생하고, 향후 누적적자로 인한 사업의 회생이 불가할 수 있음
- 단순한 지원 사업으로 인해 사업단 운영어려움
  - 참여농가 및 참여기업에 기존에 필요한 설비 지원이나 특정 마케팅지원은 예산 나누기와 퍼주기 지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임

### 2) HW중심의 사업진행으로 사업단 미흡사례

-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HW사업으로 인해 사업단 활동 중단 발생
  - HW사업 지연으로 사업단 사업진행률 50%미만 운영되는 사업단도 발생
  - 사업 부실로 사업비를 반환하고 사업효과가 미미의 사업단이 발생함
- HW에 투자 지원되었으나 투자대비 성과가 미약해서 지속적인 사업 활동이 어렵게 되고, 결국에는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 발생
  - 홍보관 및 판매장을 만들었지만 건설비용 투자대비 매출이 저조하여 사업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체 사업 중에 HW사업 비중 과다

- 과다한 시설 및 건설 투자규모로 준비 기간이 길어져 사업실효성이 떨어짐  
(2008~2012년까지 미완공 된 사업단이 있음)
- 과다한 가공생산기반시설 위주로 지원 사업 종료시까지 사업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사례 발생

3) 사업단장의 경영부실로 인한 사업단 미흡사례

○ 사업단(CEO, 사무국장)의 경영 부족으로 인한 사업단 운영 어려움

- 사업단의 규모를 잘못 파악하고 사업을 확대하거나 시장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등, 산업단장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 사업이 중단하는 사례가 있음
- 이는 사업단장의 전문성과 경영자질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사전에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CEO형 사업단장을 선임하지 못한 잘못이 큼

○ 사업 의사결정의 어려움

- 별도 사업단이 있으면서도 주관 기관 주도로 중요의사 결정은 주관 기관이 주도하여 독립적인 사업 진행에 어려움 큼

〈표 3-21〉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사업단별 미흡사례 분류표

구분	2005	2008	2009	합계
1.사업단의 사업 수익성 미흡으로 인한 사례(판매장등)	- 친환경괴산청정고추 - 경남 양돈산업 - 전남 친환경쌀	- 홍성 백년대계한우 - 충북 친환경축산 - 경남 서북부한우 - 제주마산업	- NH참예우	9
2.무리한 HW사업 중심의 미흡사례	- 강원 한우 하이록	- 경북 상주 고령지포도 - 논산 에스민 딸기	- 강원 산우리 재래돼지	4
3. 사업단(CEO, 사무국장)을 경영미숙으로 인한 미흡사례	- 강원 백두대간	- 서산생강		2
4.사전준비 미흡으로 인한 대표적 미흡 사례	- 장수 애플 사업단		- 경기 팔당클린 농식품 - 전북 청보리 녹색산업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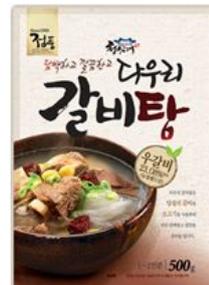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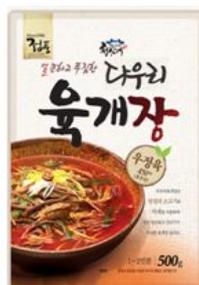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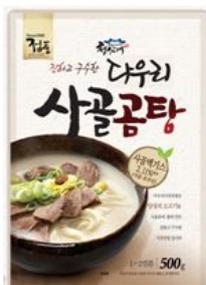
#### 다. 사례분석 벤치마킹 및 시사점

- 무안 고구마 사업단은 무리한 사업 확대 및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단순한 가공사업(세척 및 상품규격화)으로 판로 및 규모화를 이룬 후 고부가가치 사업을 전환함
  - 초기에 사업단의 위탁사업 등으로 기술력 및 사업안정화를 통해 참여 농가 확대 로 규모화 완성
  - 규모화와 안정된 기술력으로 판로 개척 및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등의 판로 안정화
  - 판로 안정화이후 고부가가치 사업 확대 및 안정화
- 청정약용작물 사업단은 가공사업을 하면서도 HW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않고 참여농가 에 있는 가공제반기술을 위탁 사용하면서 참여농가의 수입도 안정화하고 막대한 HW 사업의 비용을 줄이는 사업구성
  - 참여농가의 제반기술을 위탁하여 상품개발 및 생산을 하고 판로 개척에만 집중
  - 참여농가의 위탁수익으로 경영안정화 및 HW사업 부담 감소

- 판로 개척을 통한 직접 판매 및 위탁판매로 매출 향상
  
- 서부양돈 사업단은 축산사업으로는 희소성 있게 고부가가치 가공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카페를 건설해서 자체적인 홍보 및 상품 시연 행사를 하고 있음
  - 축산사업단의 대체적인 특성인 단순한 생산 유통 상품 개발이 아닌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통해 사업 진행
  - 판매 홍보관이 아닌 카페와 같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용 가능한 형태로 홍보관 운영
  
- 감고부가가치 사업단은 다양한 고부가가치 사업 확대로 다양한 판로 및 사업 확대
  - 고부가가치 사업은 다양한 정부 및 지역 사업연고를 통해 안정된 사업 확대
  - 다양한 판로 확대로 참여농가 및 사업단의 사업성 안정화

### <참고> 고삼농협 안성마춤 푸드센터

- ◆ 안성맞춤 Food 센터 자립화
  - 2012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 종료(농식품부)
  - FOOD센터 자립화방안 필요
  
- ◆ 50%에 그쳤던 내부 사업 준비 상황은 현재 85% 이상 준비 완료
  - 기존의 비효율 적 의사 결정 체계전환
  -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센터장 전결 책임 권 부여
  - 모든 경로의 내부 자체 물류( 물류센터 까지 상품 조달)는 외주물류업체
  - 대산 푸드 활용( 공장 출고가의 8% 수준 )
  
- ◆ 신규 시장 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판매 불안정적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하되 착한들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넷 쇼핑 물 구축
  - B2C(Business to customer)시스템에 초점을 맞게 소비자 수요에 적극대응
  - 보육이야기, 보육 라이프 등을 운영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사용
  
- ◆ 홈쇼핑과 대형마트/슈퍼체인의 영업력 집중을 통해 초기 성과를 최대한 도출하는 방향으로 영업체계를 전환
  - 홈쇼핑, 대형마트 및 슈퍼체인 집중 공략
  
- ◆ 향후 고삼농협 자체 영업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이상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허브냉장과 상호 역할과 의무를 명확하게 함
  - 현재 구성비의 1/3차지. 향후 모든 경로의 마케팅, 상품기획 및 조율의 주체가 되어야 함.



## 4. 실태분석 결과요약 및 문제점<sup>10)</sup>

### 가. 실태분석 결과를 통한 문제점 분석

#### 1) 사업단 운영 형태에 따른 문제점

-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서 과도한 HW사업으로 인해 사업추진의 어려움과 사업 중단 사례가 빈번함
  - 지자체 주도형의 경우 : 운영 주체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다보니 HW사업 중심의 사업이 많으며 전문화 되지 못하고 복합적인 SW사업이 많음
    - 선 지급의 필요성, 운영자금 확보, 연도 말 정산 및 이월 등 세부 집행에 대한 담당자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발생.
  - 사업단 주도형의 경우 : 인건비 지급, 해외연수 경비 산정, 자금 집행 증빙자료 징구, 경비 지급 시기, 자부담비율 산정 및 자부담 집행 확인 등 행정의 집행시스템과 민간조직의 경상비 집행시스템의 부조화로 어려움이 있었음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실태 조사결과 단순한 생산/유통의 사업단이 많으며 이를 유지 지속하려면 계속적인 지원비 지출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악순환 예상
  - 특히 축산사업 중심 사업단의 경우는 전국에 54개 사업단 중 16개 사업단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단순한 생산/유통사업 유형이 많고 사업단 운영이 자금 부족으로 제대로 안 되는 사례가 많음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매출 및 영업 이익을 보면 매우 저조함
  - 2005년도 매출 및 영업이익을 보면 지원 사업 해당년도에도 매출의 성장이나 영업이익이 저조하며 지자체 주도형 사업단의 경우는 매출이 불분명하고 이익이 전혀 없는 사업단도 많음
  - 전체적으로 지원금 대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이는 단순한 이익이 아닌 지역 농가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지만 농가에도 경제적인 이익이나 효과가 나타나고 못하고 있는 실정임

10) 농림수산식품부(2012.5), 『2012년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업무편람』

- 사업단 중 매출 및 영업이익률의 성장률 하락폭이 낮게 나타난 사업유형은 가공 사업이며, 2005년 지원사업의 가공사업은 지원 사업 종료 후에도 약 18%정도의 매출신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가공사업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은, 본 사업이 이전 생산/유통 중심의 사업에서 가공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에 부합하는 결과로, 향후 본 지원 사업이 가공사업 중심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하겠음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실태조사에 대한 애로사항에서는 전체적으로 보편적이며 실질적인 문제점이 많이 나옴
- 단순한 유통생산사업의 경우 지원자금이 중단되면 사업단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사업 시작 전에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고, 사업 기간 중에는 지원금을 활용한 사업기반의 확립으로 사업 종료 이후 사업이 제 궤도에 올라설 수 있는 기대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가공, 테마유형 사업단과 같은 경우는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R&D지원이 보다 더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사업단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제기 되었으며, 앞으로 사업단 운영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 매칭체제 구축이나 산학연계체제 구축 등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2) 사업단 지역적 위치에 따른 문제점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지역적, 생산품목 유형별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음
-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지역만 전체 사업단의 40%를 차지하며 강원, 제주, 경기도는 10%대 미만으로 저조한 실적임
  - 특히 강원도 지역은 생산유통사업유형이 전체 80%이며 나머지 20%로 단순한 가공 사업으로 거의 100%가 생산유통 사업임
  - 지역적으로 한우 및 축산사업이 1~4개까지 속해 있으며 축산사업은 대부분 단순한 생산유통 사업임

### 3) 사업단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 다음년도 시행 사업단 선정이 전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등 준비부족으로 인해 본 사업 추진 시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어려움 있음
- 사업 초기에는 사업단에서 법인구성, 방향설정 등에 대부분의 여력을 소비하는 상황(이해 수준 및 추진 역량에 큰 차이)
  - 급조된 사업계획서, 사업단 역량검증 미흡, 광역화로 인한 협의·조정비용 과다, 생산 연계미흡 및 식품업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이 문제로 대두
- 시행착오를 줄이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착수 전에 사업선정 당시의 사업 계획에 대한 진단 및 사전 컨설팅 필요
- 사업단장의 역량 부족으로 참여 조직 간의 의견조율 부재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 발생
  -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부족과 의사결정구조 복잡성으로 사업단장의 사업추진에 장애 요소로 작용
  - 대학교수 등이 사업단장을 맡은 경우, 연구과제 등에만 관심이 있고 책임성이 떨어짐
  - 참여업체 관계자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특혜 시비로 부각
- 지역특산품의 경우 지역농협에서 경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와 경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사업집행에 대한 세부 매뉴얼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무국직원들의 행정 경험 부족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애로
- 지자체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고 사업비 집행에 대한 의견차로 사업추진에 어려움 발생
- 사업단(CEO, 사무국직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미비, 광역사업단에 따른 지역 이기주

의 등이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동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감사결과('10.12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11.12 향토산업육성) 사업비 집행 관련 많은 지적사항 도출
- 사업비 과다·부실지급, 지원배제 대상에 사업자금 지원, 사업단의 경영상태 부실, 교육·홍보비 관리 불량, 유사사업에 자금 중복·혼용집행, 특정업체 위주 사업추진, 물품관리 불량, 사업비 정산 불량 등
- R&D 연구는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 측면에서 검토 후에 진행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함
- 연구 과제를 참여업체별로 배분하거나 연구역량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증 없이 대학 및 연구기관을 참여시켜 진행하는 사례가 많음
  - 대학교수가 사업단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참여 교수 소속대학 등에 연구용역비를 과다 지원하는 사례가 상당수
- 연구과제 추진 시 연구목적, 결과 활용도 측면에서 사전검증 필요

#### 4) 사업단 지원 사업 종료 후 문제점에 대한 분석

- 사업 종료 후 존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생산자 참여 저조 등으로 실효성 미흡
- 법인 설립 시 출자 능력을 갖춘 가공업체 위주로 주주가 구성되어 사업단 지원 명분이 약함
  - 일부 사업단의 경우 정부지원 종료 후에 미 운영 사례발생
  - 특히, '11년 사업단의 경우 생산과 연계가 미흡한 식품업체 위주로 사업단이 선정되면서 참여업체 위주로 나눠 먹기식 사업방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 
- 생산자는 사업단의 성공모델에 대한 신뢰 부족, 출자 여력부족 등으로 참여기피
  - 사업단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는 중간점검, 사후평가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부재
  - 사업추진 과정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정상적인 사업추진 여부 파악 등에 어려움
    - 사업 추진 중에 대부분의 업무(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등)를 농식품부에서 직접 수행하면서, 수시로 필요에 따라 학계 등 전문가 활용,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확보 미흡
    - 사업단으로 선정되면 중간평가 없이 3년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사업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음.

## 나. 사업단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 사업단 방문과 전화를 통한 인터뷰 결과,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문제점은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단이 많으며,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사업단도 다양한 사업영역이나 무분별한 사업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사업실패의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 한 지역 사업단에서는 시장 가격변동(쌀가격 폭락)을 예측하지 못해서, 실제 영업이익이 2008년에 5억4천만원이었으나, 2009년 42억 적자, 2010년 100억 적자를 나타낸 사례가 있으며, 이는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경영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보임.
  - 품목농협과 지역농협의 갈등(축협, 인삼농협 등 지역농협)
  - 파견 직원(지역농협, 등 참여기관이나 사업단체 등)이 있는 사업단의 경우 전문성과 책임의식의 부족으로 사업성과를 높이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음
  - 관련사업의 전문가 및 상주인원의 부족으로 인해 투자설비 비용을 들여 사업을 시작하고 중단되는 경우가 많음
  - 장기 사업성이 없는 시설 투자(창고 및 저장고등)에 비용을 너무 많이 소비함
  - 단기적인 시설물에 대한 소비성 투자가 많음, 특히 한우 사업단 같은 경우 한우 판매처인 식당 임대 및 관리비로 비용 낭비가 심하고, 지원 사업 종료 후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게 됨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2005년도 선정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단의 자발성이 부족하며 단순한 예산 배정을 위한 초기 실패사례들이 많음
  - 2005년 사업단 미운영 경우의 대부분은 지자체 주도형 클러스터 사업으로 주로 참여 농가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의 업무 진행에 많은 사업비를 지출했다고 하는데,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사업단 미운영의 경우 중에는, 경영능력이 뛰어난 농가나 기업을 포함해서 예산 배정 후에 각자 개별 사업을 하는 곳도 있었음
  - 특히 테마가공, 가공유통 사업단의 경우는 가공이나 고부가가치의 사업구성을 했지만 판로나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05년 선정 사업단 사업유형을 살펴보면 단순 생산유통 사업단의 비중이 커서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음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큰 문제점은 사업단의 실질적인 자료나 현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
  - 어느 사업단의 인터뷰 결과 언론이나 지역 내에 우수 사업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작 내부적으로 가공사업의 판로나 R&D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위 사업단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가능하면 사업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어려움을 덮고 외형상으로 보이는 일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함.
  - 주기적인 감사나 현장 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현황 파악이 중요해 보임
  - 사업단 보고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많음
  - 매출자료나 수치자료의 단위가 틀린 것이 많음
  - 지원 사업이 끝난 사업단의 책임자의 인적사항이 틀림(2005년 사업단인데 관련 총괄에 2011년에 발령받은 담당자의 인적사항이 있음)
  - 특히 2005년 20개 사업단의 경우 보고 자료의 총괄 책임자가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었음

## 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실태분석 시사점

### 1) 사업단 운영여부에 대한 시사점

- 사업단의 운영유형에 따라 매출이나 사업단 운영 효율성이 많이 달라지며 지자체 주도형 < 대학/연구소 주도형 < 사업단 주도형 순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봄
  - 사업 초기(2005년) 지자체 주도형의 80%이상이 사업단운영이 안되며 현재 사업단장도 명목상으로 이름만 올라 가있고 실제적으로는 활용을 하지 않는 등, 운영관리 부실함
  - 사업단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단 주도형이 효율적임
- 사업단의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단의 존속여부가 달라지며 특히 단순생산유형은 사업단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전체의 33%이상이 사업단 운영이 안 되고 있음
  - 전체적으로 부가가치 사업단의 경우 전체의 5%미만이 사업단 운영이 안 되었음
  - 사업단 사업유형을 볼 때 사업성이 있는 사업의 검증 및 사업 검토 필요함
- 사업단의 생산품목에서는 축산사업이 사업단 미운영이 가장 많았으며 장기적으로도 사업단 종료 예정 사업단이 많음
  - 가공 사업과 부가가치 원예 사업단이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남

### 2) 사업단 지역적 특성에 대한 시사점

- 사업단의 지역적으로 편중되며 특성 사업유형이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음
  - 사업단의 지역적 편중은 지역네트워크 형성하는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지자체 예산 및 사업단 생산 품목에 중복성이 우려됨
  - 특정 지자체에 관련 사업단이 집중화 되면 동반 성공할 수 있지만 영남지역처럼 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큼

### 3) 사업단별 매출 특성에 대한 시사점

- 사업단이 전체적으로 매출이 저조하며 매출 발생시점도 다양함
  - 사전에 준비 없이 사업단이 시작되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 또한 다양하며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사전에 사업 가능성을 고려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지원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음
  - HW사업의 집중사업은 사업비 과다로 사업단 운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SW사업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음

### 4) 애로사항을 통한 시사점

- 사업단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 지원기간 및 배정 자율화 /사업단의 법인화
  - 지원 사업 위주의 사업단 운영이 많아 현재의 단기적(3년) 지원으로는 사업의 안정화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
  - 사업단의 특성을 고려해 예산 배정을 하고 그 집행은 사업단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업단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

## IV.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 1.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필요성

#### 가.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의 논의배경

##### 1) 정부의 광역경제권 육성 '新지역발전정책'

- 지역발전위원회는 2008년 7월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라는 비전으로 광역경제권 구축, 특성화된 지역발전, 지방분권·자율, 지역 간 협력·상생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신지역발전정책을 마련함
- 미래기회의 선제적 확보를 위하여 규모의 경제와 연계성의 경제를 도모하고자 광역권 별로 지역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선도 사업을 발굴하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자는 의미에서 3차원의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을 구상하고, 시·도의 지역전략 산업과 해당 광역경제권의 지역선도산업을 육성<sup>11)</sup>하고자 하고 있음.
-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을 공간 단위로 설정하여 전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시키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기초생활권 :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전국 163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보건, 복지, 문화 등 국민의 기초적인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재정적 노력
  - 광역경제권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의 이른바 5+2광역 경제권별로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함
  - 초광역경제권 : 서해안신산업벨트, 남해안선벨트,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 남북

11) 시·도지사와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다음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전략산업과 해당 광역경제권의 지역선도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 11조).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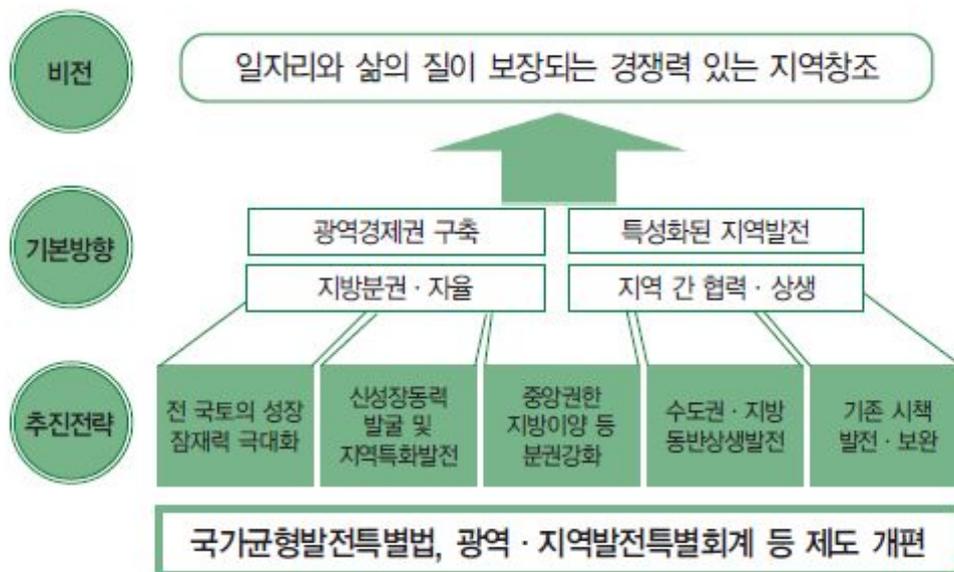
교류접경지역벨트와 내륙벨트 등을 대상으로 국내와 일본·중국·러시아 등과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표 4-1〉 3차원적 지역발전 정책

차원	공간구조	주요목적	공간단위	계획체계
초광역개발권	선(線)적	국가경쟁력 강화	4+a 벨트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광역경제권	면(面)적	지역경쟁력 강화	5+2 광역경제권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기초생활권	점(點)적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163시군	기초생활권 계획

자료 : 최상철, 송우경(2009)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방향과 전략, 지역발전위원회

〈그림 4-1〉 新지역발전 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



자료 : 최상철, 송우경(2009)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방향과 전략, 지역발전위원회

## 2) 농·식품 클러스터 추진 및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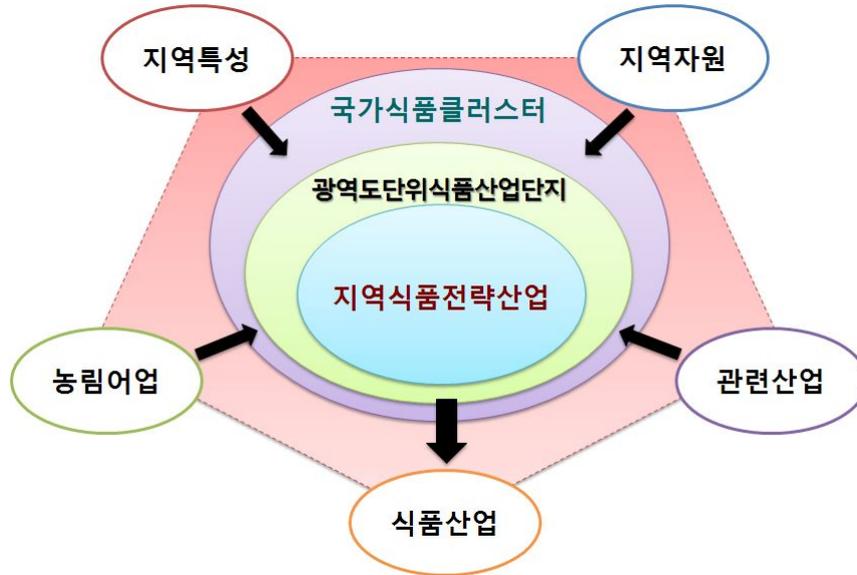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에서 지역과 국가단위 클러스터의 중간 형태인 광역 도(2개도 이상) 단위 클러스터의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지역단위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은 규모나, 통합의 경제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려우므로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광역 식품산업단지를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보다 중요함
  - 지역중심의 발전전략은 지역과 밀착되는 장점은 있으나, 소량-다품종 생산구조에서는 규모화의 한계가 있으며, 사업영역 또한 지역으로 한정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품목중심의 연계성을 갖춘 시·군 이상 단위의 광역적 발전전략이 필요
- 2009년 지역산업을 광역화하기위해 광역클러스터를 추진하다 고부가가치 2·3차 식품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2011년부터 현재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으로 전환하였으나 규모화의 문제와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이 미비한 실정
  - 실제 사업비 지원내용은 생산기반시설(H/W) 및 마케팅에 편중 되어있음
-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지역전략식품산업 사업단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관리에 혼란을 초래하고 성과도출 또한 미흡
- 일부 시설의 지리적 집적이 클러스터라는 잘못된 마인드로 인한 사업 부진이 관찰되는 한편, 집적지가 일정 정도 이상의 임계규모(critical mass)가 되어야 자기강화를 통하여 성장 할 수 있음

## 나.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의 개념

### 1)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의 정의

- 기존 광역클러스터 사업의 한계점으로 들어났던 ①유사 중복사업과의 차별성 부족 ② 지역특화 발전 미비 ③클러스터 컨트롤타워의 부재 ④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연계성 부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의 전략적인 발전을 위한 연결성의 경제(economies of linkage)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시너지 효과 등의 창출을 위한 것 임
-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는 2009년 시행되어 2011년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으로 개편 되기 전까지 진행되었던 기존 광역클러스터사업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의 대체를 위한 사업의 개념 또한 아님
- 단순한 소규모의 지리적 집적체를 초월하여 다수의 중·소규모의 클러스터가 상호연계 되어 형성된 대규모의 식품산업단지를 말하며, 공간적 범위, 기능, 참여주체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사업의 유연성이 보장되는 발전적인 형태를 뜻함
- 식품산업단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참여주체들의 상호 의존성 및 연계의 정도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오히려 다른 지역의 참여주체들과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함
  - 광역 도 단위 식품산업단지는 인접한 지리적 집적의 포기를 뜻하지 아니하며 산업의 상호 연관성을 극대화 시키는 형태로, 중·소규모의 산업클러스터를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함
- 광역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관한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사업단간, 지역간의 입장 차이를 해소하여 지역간, 지자체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기반 형성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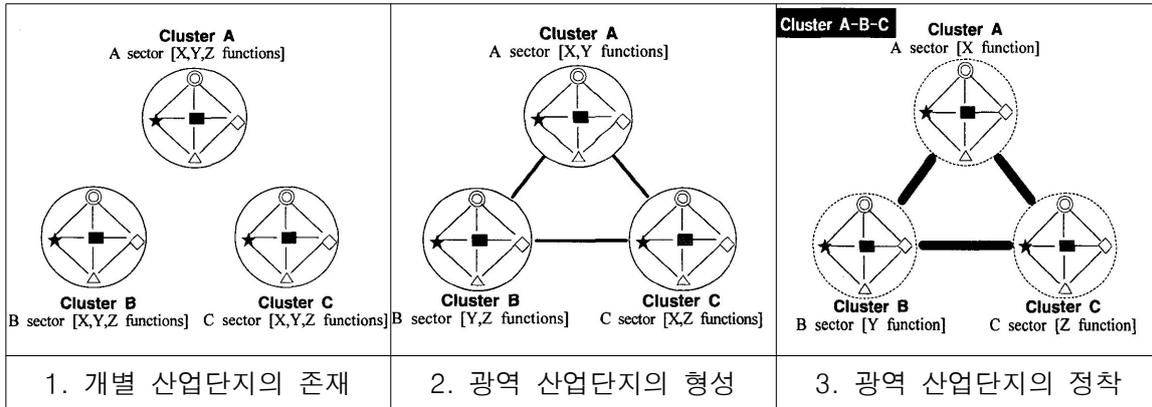
〈그림 4-2〉 식품산업단지 개념도



## 2)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의 목적

- 참여자(산·학·연·관)들의 조직화와 호혜적 환경을 구축하여 각 참여 주체들을 수평적으로 이어줄 수 있으며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한 집적지의 임계규모를 달성함
-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는 지역별로 산재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의 연계체제의 효율적 구축이 가능하고 집적경제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음
-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산업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인프라와 거버넌스(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함
- 산업 입지와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공동 마케팅, 공동 물류 사업 및 SOC 확충으로 산업환경과 지역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해당 산업의 발전을 모두 도모함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원화로 고착된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전국이 다수의 강력한 글로벌 성장거점을 갖추어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음

<그림 4-3> 광역 산업단지의 정착과정



주 : ■, ○, △, ★ : 활동주체

자료 : 주성재(2003), 광역클러스터 개념의 도입과 정책과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6권 2호(327-338)

#### 다.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의 SWOT 분석

Strengths(강점)	Weaknesse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지역전략식품산업의 효율적 연계망 구축</li> <li>▶ 최적 임계규모 달성으로 집적경제 효과배가</li> <li>▶ 인프라, 자원 등의 공동 이용</li> <li>▶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거점 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사업의 우려가 큼</li> <li>▶ 대학, 연구기관과의 연계가 미흡</li> <li>▶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 구축이 어려움</li> <li>▶ 운영주체의 구심점이 미약함</li> </ul>
Opportunities(기회요인)	Threats(위협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li> <li>▶ 지방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이전</li> <li>▶ 농·산업의 고부가가치화</li> <li>▶ Food-System 구축과 자급률 제고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화</li> <li>▶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공동화</li> <li>▶ 정부, 지자체의 불협화음</li> <li>▶ 님비현상과 핼비현상</li> </ul>

-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의 조성은 개별 지역전략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으며, 최적 임계규모를 달성하여 집적경제 효과를 배가 시키고 인프라와 산업자원의 공동이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지역거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강점

- 과거 광역식품클러스터에서 노출되었던 문제점인 중복사업의 우려, 대학·연구기관의 연계미흡과 운영주체의 구심점이 미약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성이 어렵다는 약점은 여전히 유효함
-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방 혁신 도시 구축, 이와 더불어 농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푸드시스템(Food-System)구축, 자급률 제고의 노력 등은 분명 외부적으로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FTA등 농산물 시장개방화와 가속화되고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이 지속되며 정부와 지자체 또는 지자체간의 불협화음 및 지역과 개인의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되면 광역도 단위 식품산업단지 육성사업의 성공은 담보 할 수 없을 것 임

## 라.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조성의 예상되는 문제점

### 1) '광역화' 사업의 문제점

- 기존의 광역클러스터와 비교하여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조성은 대규모로 진행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광역화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파급효과를 예상해 볼 필요가 있음
-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의 조성 등 광역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구 이동 및 소비 지역이 확대되고 상권의 범위가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농어촌 지역이나 농식품산업에 서도 변화가 필요 할 것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협동연구(2010)에 따르면 '광역화'는 농어촌 지역과 농식품산업에 있어서 기회인 동시에 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 하면 표 <4-2>와 같음

<표 4-2> 광역화로 인한 농식품산업의 기회와 위기

구분	기회	위기
생산부문	-농가 호수 감소로 규모화 가능 -우수인력의 유입으로 경영능력 강화	-농촌 지역 과소화, 공동화로 생산 노동력 조달 애로 -생활 여건이 부족한 농촌 지역일수록 생산 기반 축소
산지유통	-도농교류 확대로 직거래 확산 -인접 지역과 협력 확대로 안정적 공급 능력 구축 및 브랜드화 -규모화에 따른 물류시설 등 시설 투자 능력 증대	-소규모 유통조직은 경쟁력을 상실 -지역 내 재래시장 등 전통시장 위축으로 시장 위축 -지역의 범위 확대로 지역 차별화 가능성 약화
식품산업	-농식품의 융복합화 등 다양한 식품기업의 진입 활성화 -식품산업 종사 인력의 조달 용이 -원료 농산물의 지역 내 조달 확대	-대기업 식품기업과 전통식품의 경쟁 심화 -전통식품의 차별성 약화

표 : 이동필 외, 2010, 경제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농어촌경제 활성화 방안(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지난 10여 년 동안 클러스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면서 나타난 광역사업의 문제점을 <표4-3>에 정리함

<표 4 3> 광역 경제사업의 주요 문제점

주요 문제점	내용
재정능력과 지방의 현실을 도외시한 정치논리 주도의 계획주의	투자 및 자원 마련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련 개별법령에 의거한 정책추진 및 대규모 인프라 계획, 각종 계획의 잦은 변경 등의 일관성 결여
H/W 중심의 개발계획	R&D 등 기술기반강화, 산·학·연의 연계 등 지식기반강화에 대한 방안의 마련 없이 도로, 항만, 산업단지 조성 등의 H/W에 관한 기반시설 확충에 치중된 계획
관련부처의 비협조와 부처별 상이한 추진체계	국토해양부(과거 건설교통부 포함)와 관련부처간의 보이지 않는 알력의 행사와 구체적인 권역단위 발전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관련부처별로 정책이 추진
광역경제주체의 구심점이 미흡	임의로 규정된 협의회 정도가 존재 할 뿐, 해당 주체의 활동을 조정하고 연결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 부족, 지역적 이질성과 각 주체간의 갈등
단순 지리적, 공간적 범위의 설정방식	인구규모의 적절성과 경제성, 지역의 역사성, 임계규모의 타당성, 지역간 연계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광역권의 설정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의 만연	광역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지역의 가치가 훼손되어진다거나 혐오시설의 우려가 있을 경우 내 지역에는 안 된다는 님비(Not in my backyard) 현상으로 인한 사업차질

## 2)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의 문제점

- 현재 광역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과정에서 자치단체간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등 지자체가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광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저해하고 있음
- 광역 도단위 식품단지 조성사업에서도 지자체들의 공동추진을 둘러싸고 자치단체간 사업비 부담이나 설치시설의 유치 및 사후관리 문제 등과 관련하여 불화와 갈등으로 연결 될 가능성이 있음

〈표 4-4〉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의 주요 문제점

구분	주요 문제점
수직적 조정/ 지원제도의 문제점	광역시설 투자사업의 지역 간 연계계획 미흡
	광역시설 투자사업의 통합지원 결여
	광역적 개발시설의 지역 간 연계운영 지원미흡
수평적 조정/ 지원제도의 문제점	실질적 이행력 미흡
	자치단체조합 활용의 미흡
	사무위탁(자치단체협약)의 제도적 불비

자료 : 한표환(1997), 광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간 협력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중심으로 정리

-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선도 산업과 연계하여 광역화의 기회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력은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음
-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또는 지역 간의 경쟁과 중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제거해야만 발전적인 광역개발사업을 조성 할 수 있으며, 우리 실정에 맞는 지자체 간 연계 협력 모델을 강구해야 할 것임

〈표 4-5〉 지자체 간 연계 협력 주요 이론정리

이론	이론의 주요 특징
정부 간 관계론	정부간의 관계를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 행정 시스템 하에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던 내포적 권위모형,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독립적이면서 자율성을 지니는 협력적 권위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에 의존적이면서 협상관계가 형성된 중첩적 권위형으로 대별함. 중첩적 권위모형은 제한된 권력분산, 상호의존성, 영역 제한적 자율성, 협상·교환 관계와 협력, 경쟁의 측면에서 의미가 커서 이상적 모형으로 제시
협상 이론	협상 이론은 지자체 간 협력을 공통된 문제에 대해 관련 지자체 간의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상충된 이익을 조정해 나가는 협상 과정으로 인식.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강한 공공 서비스의 공동 제공, 생활편의 시설의 공동설치, 혹은 혐오시설의 설치 등과 같은 상황에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
활동 공유 모형	활동 공유 모형은 기업 경영에서 서로 다른 주체들이 수행하는 사업 간의 연계에 의해 차별화의 잠재력이 증대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주체간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지식을 창조하고 창조된 지식의 공유와 활용 촉진이 필요
파트너십 모형	파트너십은 주체 간에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행위 또는 조직으로 참여 동기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재정적·인적 자원 획득 기회 증대,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정치적 이익 증대, 불확실성 감소 등이 목적
연결의 경제성	연결의 경제성은 복수 주체가 존재하고 이들 간의 연결이 지식, 정보, 기술 등에 다중 이용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성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의 경제성과 유사함
통합형 분업이론	종래의 지역개발은 개별 지역이 중심이 되고 다른 지역은 각자 수요·공급의 입장에서만 존재하였으나, 통합형 분업은 여러주체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통합 지역으로 바뀌면서 이들 간에 새로운 연계가 맺어 지고 지역 간 협력·제휴로 다양한 시너지 효과 발생

자료 : 한표환 외(2002),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참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성과 및 문제점<sup>12)</sup>

- ◆ 광역단지조성사업은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단지별로 2년간 100억 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가 투입되는 핵심사업으로 2006년에 1차로 시작된 전북 완주, 전남 순천, 경북 울진 3개 선발 지역과 2007년에 2차로 시작된 강원 양구, 충북 옥천, 전북 익산, 전남 장흥, 경북 성주, 경남 산청 등 6개 후발지역에서 이루어짐
- ◆ 단지별 산지유통시설 운영 실태를 보면 선발지역인 고산과 울진 단지의 경우 대형유통업체 계약, 한살림 등 생협과의 MOU 체결 등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후발지역인 장흥, 옥천, 양구의 경우도 대형유통업체 계약, 인터넷쇼핑몰 운영, 학교급식 등의 판로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 광역단지사업 수주를 위한 당초 계획과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의 실제 추진실태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단지별 농업환경자원을 기초로 한 양분수지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대부분의 단지에서 경축순환자원센터를 혐오시설로 간주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공사 지연 등으로 광역단지사업 전반의 애로요인으로 나타남
- ◆ 광역단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9개 지역의 경우 사업추진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하는 효과성 기준에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목표달성이 미흡하고 특히, 익산 단지의 경우 실적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 광역단지조성 사업기간에는 시설물 설치 및 관련 장비구입 등에 주력하고 있어 효과적인 운영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 수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실적으로 사업 종료 후에도 단지 사무국의 운영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 광역단지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운영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시설 및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 제정과 전문가 컨설팅 및 전담 책임자 지정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12) 김창길 외(2008),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성과제고 및 사후관리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수요사례 분석

### 가. 분석의 내용 및 방법

-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수요는 공개적으로 조사되고 파악된 적이 없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그 필요성과 함께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영양군에서는 양구군, 청도군, 울릉군과 함께 산채류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과 제안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채산업클러스터 사업제안을 중심으로 그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함
  - 각 군의 여건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산채산업클러스터의 개발 타당성을 검토
  - 개별 군 사업들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
  - 단일품목으로 '산채'가 가지는 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
  - 사업의 단계적 추진 계획과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기본적인 사업의 구성형태를 토대로 사업성을 설정함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과 연관된 원료공급, 가공, 유통, 포장 기계, 유통업체와 함께 대학, 연구소 및 지원기관들이 일정지역에 모여 서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리적 집적체로 산채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의 입지적 여건(지형, 교통 접근성 등), 경제적 여건(사업성, 지가, 기술적 타당성), 사회, 인문환경여건(인구, 상위 계획, 법률)과 함께 입주대상 기업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나. 국가산채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안)

### 1) 사업개요

- 위 치 : 경북 영양군 일원
- 사업기간 : 2012년~2015년(4년)
- 사업비 : 1,600억원(국비 1,330억원, 지방비 270억원)
- 사업내용 및 규모(481,430㎡)
  - 연구, 산업화 지원거점, 산채 재배단지, 연구단지, 유통단지, 체험단지 조성
  - 1개의 핵심지구(경북 영양)와 3개의 연계지구(강원 양구, 경북 청도, 울릉)
  - 핵심지구 : 산채유전자원센터, 국제산채요리학교, 게스트하우스/ 연구원숙소, 산채재배단지, 주차장, 야외 광장 등
  - 연계지구 : 산채건강마을, 트레킹로드, 주차장 등 지원시설

〈그림 4-4〉 영양군 산채클러스터 핵심지구와 연계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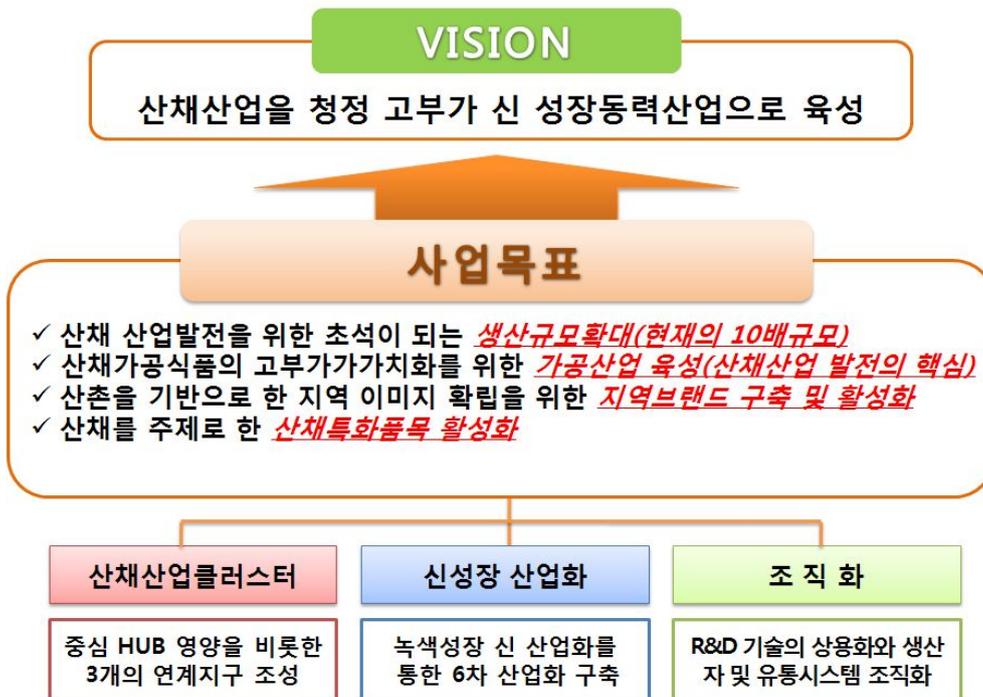


2) 사업 목표와 계획

○ 추진목적

- 산채의 생산에서 가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대화하고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을 집적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업의 확대를 통해 산촌기반형 산채클러스터를 구축
- 산업 측면에서 산채의 재배·가공·유통·판매의 전 과정에 걸쳐 영세하고, 낙후되어 있는 기술 및 경영 수준을 혁신함으로써 산채산업의 현대화와 선진화를 통해 지역의 신성장 산업의 원동력 창출

<그림 4-5> 산채산업클러스터의 비전



## ○ 세부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구분	사업내용	법적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설계	기본계획 수립용역		2010.5~ 2011.6	기본계획 수립용역 2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설기술 관리법	2013.3~ 2013.12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영향 평가	환경, 교통, 재해 영 향평가		2013.3~ 2013.12	환경, 교통, 재해 영향 평가
보상	토지 및 영농보상		2013.3~ 2013.12	토지 및 영농보상
공사	국가산채산업 클러 스터 조성사업 1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2014.2~ 2015.12	기반조성공사 국립산채식품개발원 국립산촌소득개발원 국립산채Seed Bank 산채건강마을, 조경공사

## 3.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타당성 분석

## 가. 품목수요(산채)의 타당성 분석

## 1) 산채의 일반현황

○ 산에서 흔히 자라는 식물 중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흔히, 산나물이라고도 함

- 더덕, 취나물, 도라지, 두릅, 달래, 고들빼기, 고사리, 쑥, 참나물, 냉이, 머위, 씀바귀, 돌나물, 삼엽채 등
-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480여종이며, 순, 잎, 줄기 등 먹는 부위는 다양함

○ 우리민족의 생활 속에서 함께해온 품목으로 대보름, 단오, 한식 등의 전래 풍습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역 축제와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매김

- 지역을 대표하는 산채음식으로는 강원도의 곤드레, 경상도의 만삼, 충청도의 쑥

뿌리, 울릉도의 산마늘, 서남부 해안의 갯줄, 황해도 해안의 나문재 등이 대표적 임

- 산채를 테마로 한 지역 축제로는 양구의 곰취축제, 평창의 곤드레축제, 강릉의 해살이 개두릅 축제가 대표적 임
- 강원도 횡성군 삼교리의 산채마을 등, 산채를 테마로한 농촌체험마을이 등장

○ 산채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약식동원(건강기능성),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관광용으로도 이용되는 추세

## 2) 산채의 생산 및 유통현황

○ 웰빙(Well-being) 붐의 확산으로 산나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산채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배면적 또한 고사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소득대체작물로써 산채류를 재배하는 농가가 증가

<표 4-6> 주요 산채류의 재배면적 변화

<단위 : ha, %>

순위	산채	2004년	2010년	증감	순위	산채	2004년	2010년	증감
1	더덕	1,790	2,477	38.4	6	달래	371	526	41.8
2	고사리	218	2,195	906.9	7	땅두릅	397	476	19.9
3	취나물	901	1,412	56.7	8	음나무	44	307	597.7
4	도라지	748	1,158	54.8	9	고려엉겅퀴	3	232	7633.3
5	나무두릅	143	569	298.0	10	파드득나물	56	121	128.3

자료 : 산채이야기, RDA Interro bang 61호, 농촌진흥청(2012)

○ 2010년도 산나물 총 생산량은 47,755톤으로 전년대비 2% 증가하였고 생산액은 3,329억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

〈표 4-7〉 산채류 생산량 및 생산액 통계표

(단위 : t, 억원)

연도	합계						더덕		두릅		취나물		기타산나물	
	생산량(t)			생산액(억원)			생 산 량	생 산 액	생 산 량	생 산 액	생 산 량	생 산 액	생 산 량	생 산 액
	증감 △	비율 (%)		증감 △	비율 (%)									
2006	39,367	6,086	18.3	1,929	△97	△4.8	6,414	613	2,922	223	18,453	540	11,568	553
2007	40,885	1,528	3.9	1,978	49	2.5	5,978	600	3,408	261	19,431	553	12,068	564
2008	39,962	△923	△2.3	2,135	157	7.9	5,821	682	3,374	269	19,421	612	11,346	572
2009	46,828	6,866	17.2	3,024	889	41.7	7,772	1,078	2,870	247	21,882	568	14,304	1,311
2010	47,755	927	2.0	3,329	305	10.1	8,229	1,016	2,618	230	21,118	584	15,790	1,499

자료 : 2010 임산물생산조사, 산림청, 2011

- 산채의 지역별 생산분포는 생산량 기준으로 전남 > 강원 > 경남, 생산액 기준으로 강원 > 경남 > 전남 순

〈표 4-8〉 지역별 산채류 생산량, 생산액 통계

(단위 : t, %, 백만원)

지역구분	생산량	비율	생산액	비율
대구광역시	7	0.02	34	0.01
인천광역시	48	0.1	727	0.22
광주광역시	2	0.01	20	0.01
대전광역시	30	0.06	215	0.06
울산광역시	5	0.01	44	0.01
경기도	1,274	2.67	11,109	3.34
강원도	11,083	23.2	123,751	37.17
충청북도	1,295	2.71	13,569	4.08
충청남도	5,716	11.96	28,356	8.52
전라북도	1,500	3.14	11,293	3.39
전라남도	12,648	26.47	41,970	12.61
경상북도	4,099	8.58	24,675	7.41
경상남도	6,516	13.64	44,604	13.4
제주도	3,524	7.38	32,512	9.76
지방산림청	8	0.02	66	0.02
합계	47,755	100	332,945	100

자료 : 2010 임산물생산조사, 산림청, 2011을 중심으로 저자가 재가공

- 전체 산채 생산량과 생산액 대비 핵심지구와 연계지구의 생산량, 생산액은 <표4-9>와 같으며 양구군의 경우 '곰취'를 테마로 한 축제로 15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함

〈표 4-9〉 핵심지구와 연계지구의 산채 생산량, 생산액

〈단위 : t, %〉

지역구분	지역	산채 생산량	전체 생산량 중 구성비	산채 생산액	전체 생산액 중 구성비
핵심지구	영양군	120.04	0.3	10.07	0.3
연계지구	양구군	327.34	0.7	25.18	0.8
	울릉군	2457.82	5.1	73.16	2.2
	청도군	36.71	0.1	1.69	0.1
총 계		2941.91	6.2	110.1	3.3

자료 : 2010 임산물생산조사, 산림청, 2011을 중심으로 저자가 재가공

- 산채의 유통은 계절성이 있고 많은 지역에서 소량으로 생산되는 품목으로 유통구조상 열악한 측면이 있음
- 유통경로는 도매시장이나 벤더를 거쳐 종합소매업으로 유통되는 경로와 농협을 통하는 방식,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음
- 종묘, 종자, 유통망 구축이 미흡
- 대부분 건조, 소금절임, 생채의 형태로 판매되지만 통조림과 차, 음료 등으로 가공되기도 함
  - 개두릅 절임, 곤드레 절임, 명이나물 절임, 더덕주, 곰취차, 민들레즙 등
- 생산량 기준으로 50% 정도의 차급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산 수입량이 많음
- 수출하는 물량은 미미한 수준인 가운데, 말라리아 치료성분과 간경화 치료제로 쓰이는 개똥쑥이나, 엉겅퀴는 해외로 수출 중

### 3) 종합평가

-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수요가 증대되고, 또한 지역축제와 관광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 비타민, 기타영양성분이 함유된 산채를 중심으로 기능성을 활용한 제품이 준비 중이며 이와 더불어 바이오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됨
- 산채가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생산량과 생산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보아 산채를 이용한 산업클러스터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할 것이나 계절성이 강해 짧은 시기에만 생산이 가능한 야생종 대신 4계절성 품종의 개발이 필요함
- 직거래 위주로 거래되는 만큼 시장개척과 유통망 형성이 함께 요구됨

## 나. 입지수요의 타당성 분석

### 핵심지구 <영양군>

#### 1) 지리 및 자연적 여건

- 영양군은 경상북도 동북부 태백산맥 내륙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동쪽으로는 울진군과 영덕군, 서쪽은 안동시, 남쪽은 청송군, 북쪽은 봉화군 등 5개 시군과 인접하고 있음
- 태백산맥이 동남방향으로 뻗어 많은 대소계곡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해발 고도가 경북에서 가장 높은 지역임
- 서울에서부터 300km, 대전으로부터 247km, 광주 350km, 대구 151km, 부산 205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등 대도시로부터 원격지에 위치하고 있음

<표 4-10> 영양군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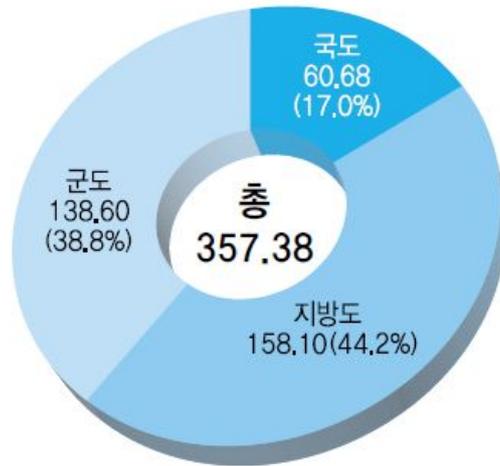
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명	극점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379-1	동단	수비면 본신리 산15번지	동경:129 ° 18'	동→서 거리 약 29.55km
	서단	청기면 행화리 산119번지	동경:128 ° 58'	
	남단	석보면 포산리 산25-1번지	북위:36 ° 29'	남→북 거리 약 43.83km
	북단	수비면 신암리 산19-2번지	북위:36 ° 52'	

자료 : 제 51회 영양통계연보, 2011

- 영양군은 지방도와 군도, 국도가 지역 내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고 도로의 포장률은 2010년 기준으로 72.24% 수준으로 인접한 고속도로는 없는 상황 임

<그림 4-6> 영양군 도로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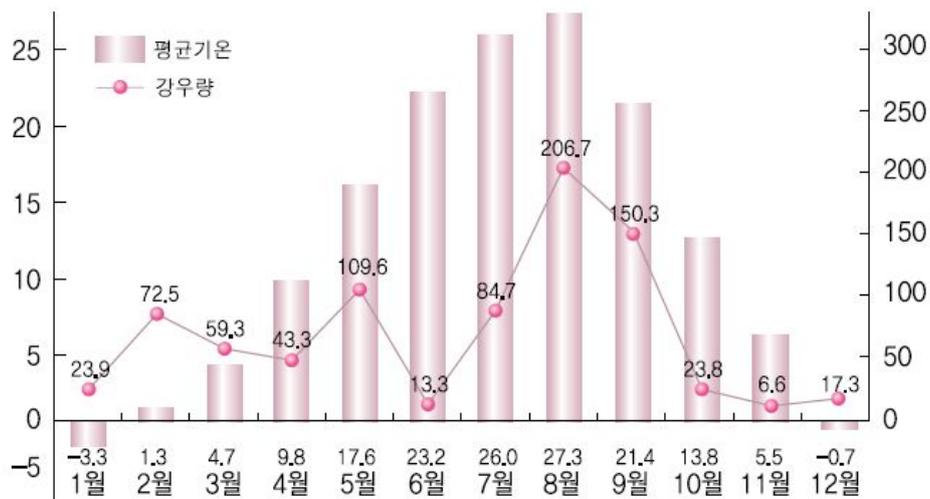
(단위 : km)



- 영양군은 해발고도가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한서의 차이가 심하며 연교차와 일교차가 모두 큰 지역임

<그림 4-7> 영양군 월별 평균기온 및 강우량

(단위 : °C, mm)



자료 : 제 51회 영양통계연보, 2011

## 2) 지역경제 및 인구·환경적 여건

- 2011년 기준으로 영양군에는 1,127개 사업체가 있으며, 4,281명이 종사하고 있음
- 산업대분류를 기준으로 영양군의 사업체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24.9%(281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이 21.8%(246개)로 나타남
- 영양군의 산업구조를 종사자수 기준으로 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9%, 도매 및 소매업 11.2%, 건설업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행정과 도·소매업, 건설업이 발전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1〉 산업 대분류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단위 : 개소, 명, %)

구 분	사업체	구성비	종사자	구성비
합계	1,127	100	4,281	100
농업, 임업 및 어업	6	0.5	74	1.7
광업	1	0.1	1	0.1
건설업	79	7.0	477	11.1
도매 및 소매업	281	24.9	478	11.2
운수업	37	3.3	70	1.6
숙박 및 음식점업	246	21.8	441	10.3
제조업	88	7.8	284	6.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0.4	28	0.7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	0.3	6	0.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9	0.8	86	2.0
금융 및 보험업	18	1.6	172	4.0
부동산 및 임대업	4	0.4	5	0.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3	1.2	34	0.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	0.5	194	4.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8	2.5	812	19.0
교육서비스업	41	3.6	395	9.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4	3.9	388	9.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6	1.4	47	1.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02	17.9	289	6.8

자료 : 제 51회 영양통계연보, 2011를 중심으로 저자가 재가공

- 영양군의 주요 농산물은 생산액 기준으로 고추, 사과, 천궁 순이었으며 특히, 고추는 고추산업특구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으뜸영양고추, 고추의 고장을 표방할 정도로 영양군의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표 4-12〉 영양군 주요 농산물

구분	재배면적 (ha)	총생산량(톤)	조수익(백만원)	농가수(호)
고추	2,239	4,993	58,251	2,783
담배	297.8	499	4,137	173
천궁	220	900	7,200	431
고랭지채소	19	570	285	41
사과	449.6	7,759	15,518	427
채소	208	15,808	3,432	210
산채	34	77	577	60

자료 : 영양군청 홈페이지 (www.yyg.go.kr)

- 영양군의 식품 가공 시설은 대부분 고추가루, 장류이며 규모 또한 소규모 업체로 구성되어있는 실정임

〈표 4-13〉 영양군 식품가공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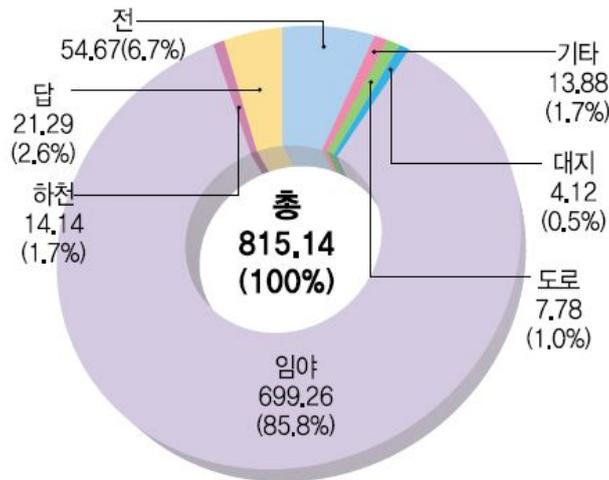
번호	업 체 명	산업분류 (중분류)	주생산품
1	천마자연식품	10	천마차
2	영양정미소	10	쌀도정
3	(주)한스바이오	10	홍국쌀
4	농협영양고추가공공장	10	고추가루
5	영양고추생산유통영농조합	10	고추가루
6	영양고추유통공사	10	고추가루
7	영양농가공사	10	고추가루
8	영양농원가공공장	10	고추가루
9	영양명가식품	10	고추가루
10	(주)다산식품	10	고추가루
11	영양종합식품(주)	10	고추장
12	우리식품	10	메주,된장
13	영양장생주	11	주류
14	일월산성수식품(주)	11	음료

자료 : 영양군청 홈페이지 (www.yyg.go.kr)

- 영양군의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임야가 699.26km<sup>2</sup>로 전체면적의 85.8%의 압도적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전이 54.67km<sup>2</sup>로 전체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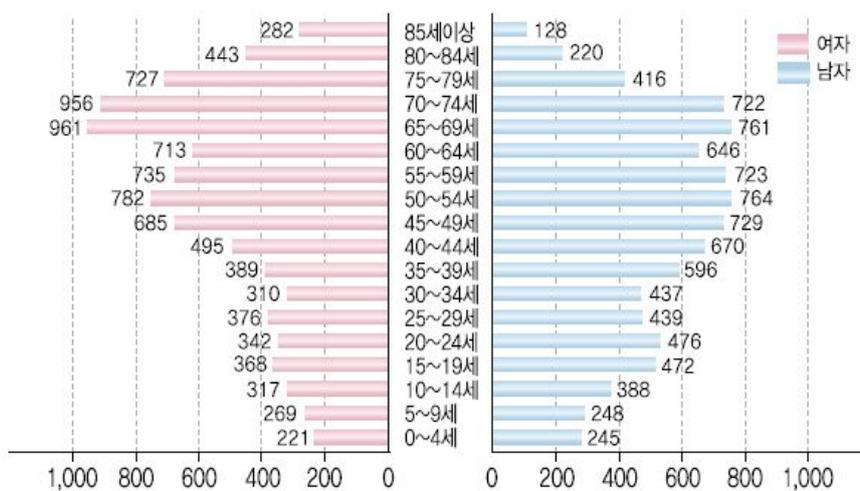
<그림 4-8> 영양군 지목별 면적

(단위 : km<sup>2</sup>)



- 영양군의 인구는 2011년 말 기준으로 총 18,587명으로 이 중 65세 노년인구의 비중은 30%(5,616명) 수준으로 초고령화 된 농촌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sup>13)</sup> 인력수급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음

<그림 4-9> 영양군 연령별 및 성별 인구



자료 : 제 51회 영양군 통계연보, 2011

13) 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을 고령사회, 20%이상이면 후기고령화 사회 또는 초고령화 사회로 규정

## 연계지구 &lt;양구군 - 울릉군 - 청도군&gt;

## 1) 지리 및 자연적 여건

- 양구군은 강원도 북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인제군, 서쪽으로는 화천군, 남쪽은 춘천시 그리고 북쪽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창도군, 금강군과 인접하고 있고 서울에서 북동쪽으로 132Km, 춘천에서 북동쪽 52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음
- 울릉군은 동해의 도서군으로 포항시로부터 217Km, 강릉에서 178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청도군은 경상북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밀양시를 비롯한 7개 시군에 인접

&lt;표 4-14&gt; 핵심지구(양구, 울릉, 청도) 위치

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명	극점	
양구군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34-5	동단	해안면 만대리	동경:128 ° 10'	동→서 거리 약 27.0km
		서단	방산면 천미리	동경:127 ° 51'	
		남단	남면 원리	북위:37 ° 59'	남→북 거리 약 35.5km
		북단	해안면 현리	북위:38 ° 19'	
울릉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206-1	동단	독도 동도 동단	동경:131 ° 52'	동→서 거리 약 96.3km
		서단	서·북면간 대풍령 서단	동경:130 ° 47'	
		남단	독도 동도 남단	북위:37 ° 14'	남→북 거리 약 34.8km
		북단	북면 선창 북단	북위:37 ° 33'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133	동단	신 원	동경:129 ° 22'	동→서 거리 약 41.2km
		서단	수 월	동경:128 ° 31'	
		남단	초 현	북위:35 ° 33'	남→북 거리 약 27.3km
		북단	정 상	북위:35 ° 32'	

자료 : 각 군의 통계연보(2011)를 중심으로 저자가 재가공

## 2) 지역경제 및 인구 환경적 여건

-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연계지구의 세 지역 모두 임야가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산지로 구성되어 있음

〈표 4-15〉 연계지구 토지이용 현황

〈단위 : km²〉

지역	계	전	답	임야	하천	도로	기타
양구군	701,277	48,614 (6.9%)	26,650 (3.8%)	517,338 (73.8)	10,605 (1.5%)	8,508 (1.2%)	89,560 (12.8%)
울릉군	72,857	12,324 (16.9%)	454 (0.6%)	55,385 (76.0)	670 (0.9%)	1,238 (1.7%)	2,786 (3.8%)
청도군	693,862	38,158 (5.5%)	67,186 (9.7%)	510,030 (73.5%)	21,657 (3.1%)	13,110 (1.9%)	43,719 (6.3%)

자료 : 각 군의 통계연보(2011)를 중심으로 저자가 재가공

- 연계지구의 인구는 2011년 말 기준으로 총 77,871명으로 청도군 > 양구군 > 울릉군 순이며 이 중 65세 노년인구의 비중은 울릉군이 36.3%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 곳의 고령자 비율 평균은 23.2%임

〈표 4-16〉 연계지구의 인구구성

〈단위 : 명〉

	세대수	총수	남	여	65세이상 고령자	고령자 비율
양구군	9,407	22,180	11,533	10,647	3,756	16.9%
울릉군	5,252	10,797	5,698	5,101	1,907	36.3%
청도군	20,177	44,894	21,872	23,022	12,436	27.7%

자료 : 각 군의 통계연보(2011)를 중심으로 저자가 재가공

- 2011년 기준으로 양구군에는 1624개 사업체가 있으며, 6,532명이 종사하고 있고 울릉군은 1,073개 사업체와 3,790명의 종사자가, 청도군에는 3,128개 사업체와 11,054명이 종사하고 있음
- 산업대분류를 기준으로 연계지구 지역의 사업체 비중을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많고, 양구군에서 종사자 비중이 건설업에서 더욱 큰 것을 제외하면 종사자 기준으로 연계지구 지역의 산업구조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발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17〉 핵심지구의 산업 대분류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단위 : 개소, 명〉

구 분	양구군		울릉군		청도군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합계	1,624	6,532	1,073	3,790	3,128	11,054
농업, 임업 및 어업	14	219	6	33	10	151
광업	3	23			2	20
건설업	99	1,128	46	329	92	501
도매 및 소매업	380	724	234	455	744	1,595
운수업	78	165	72	206	210	476
숙박 및 음식점업	506	984	360	778	843	1,801
제조업	84	419	78	393	303	1,76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9	50	6	46	3	64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8	28	4	10	6	4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	126	11	86	15	151
금융 및 보험업	23	152	15	114	42	375
부동산 및 임대업	22	45	6	11	80	10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	42	8	28	33	7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	21	8	45	13	2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4	762	28	570	37	1,071
교육서비스업	68	646	32	249	116	87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9	440	13	182	101	92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53	232	19	52	53	22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72	326	127	203	425	803

자료 : 각 군의 통계연보(2011)를 중심으로 저자가 재가공

#### 다.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조성(안) 종합의견

- 산채는 일반 농산물과 달리 소량, 분산 생산으로 유통구조가 복잡하며 주로 생채와 건조형태로 판매되는 품목으로서 한계성을 지니며, 웰빙(Well-being) 및 바이오 산업화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부가가치 제고 계획과 경제성 검토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핵심지구와 연계지구 모두 산촌 청정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풍부한 산지와 다양한 산채류의 재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이와 더불어 산채를 테마로한 활발한 지역축제의 경험 축적과 생태마을조성, 고추산업특구 등의 추진 경험을 통한 Know-How의 축적은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소비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지 않는 등 교통·물류상의 불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영양군은 '고추' 산업에 특화를 한 지역으로 지역 역량의 분화가 우려 됨
- 영양군의 이농현상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농여있으며, 섬을 제외한 육지의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사업을 위한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또한, 연구소와 대학 등 연구시설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가공시설과 가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기술, 자본 모두 낮은 수준이며 유통망, 시장개척에 대한 계획 또한 미흡하고 연계지역과의 구체적인 연계 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현재 조성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하나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향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정부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다수

조성한다는 것은 지원과 역량의 분산으로 모든 클러스터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향후 클러스터는 국가단위 클러스터 보다는 지역(광역) 단위의 클러스터와 그보다 작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과 같은 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기존에 주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네트워킹 역할을 하여 시너지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임.

- 본 산채클러스터 사업은 가공사업을 중심으로 한다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북 김천시 농소면과 남면 일대에 건설되는 경북 혁신도시에 이전하게 될 농업지원 기능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등)과 경북 안동시의 경북바이오산업 연구원 등과 연계를 통한 산채산업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정부 지원사업 외에도 1시·군 1개 이상의 클러스터를 육성코자 하는 경상북도의 전략적 원칙은 사업성의 유무를 떠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고무적이다 하겠으나 클러스터 정책은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며 클러스터의 핵심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기업’이므로 참여업체의 수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산채산업의 특성과 지리적 여건 상, 국가식품클러스터나 광역 도 단위의 클러스터 보다는 기타 지원사업(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지역연고산업 등)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참고> 농식품 클러스터의 발전조건<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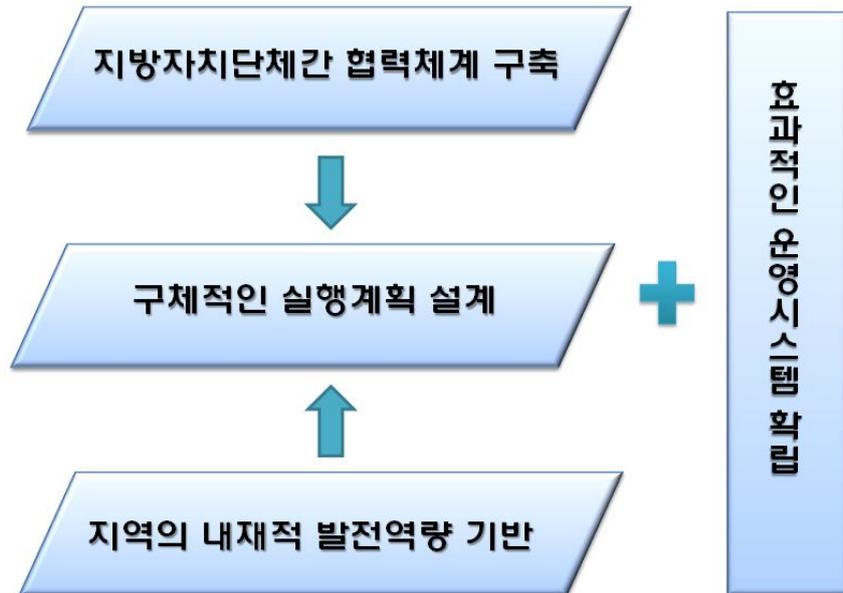
- ◆ 첫째, 기반으로선 선도 연구기관 또는 대학 및 우수과학자의 존재
- ◆ 둘째, 기업자 정신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기업가가 배출되고 성공할 수 있는 모델 제시
- ◆ 셋째, 신규 창업회사가 증가하고 안정기에 접어든 성공회사 모델의 존재
- ◆ 넷째, 핵심인재를 끌어들이는 능력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풍부한 고용기회와 매력적인 주거 및 생활환경 구축
- ◆ 다섯째, 연구기관과 창업보육시설, 교통과 통신망 등 인프라 정비
- ◆ 여섯째, 지역 내 자금 조달원으로서의 벤처 캐피탈 존재
- ◆ 일곱째,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 연관산업의 존재
- ◆ 여덟째, 숙련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
- ◆ 아홉째, 효율적인 네트워킹으로서 지역연합, 동호회, 각종 회의 및 교류기회의 존재
- ◆ 열 번째, 정책지원 환경으로서 지역개발을 위한 공공부문의 정책적 지원체계의 존재

14) 박시현 외(2010), 경북혁신도시 클러스터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4. 소결

- 광역 도단위 식품단지조성사업은 사업의 규모와 국비의 지출이 크고 지역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기반조성과 타당성 분석, 성장잠재력과 해당 지역의 사업역량평가 등 종합적인 평가와 체계적인 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잠재력이 아무리 뛰어나다하더라도 광역 도단위 육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비전 또는 목표, 그리고 계획이 명확해야 방만한 운영을 지양하고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음
- 도단위 산업단지의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협력관계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집적 지역의 내재적 요소의 기반 위에서 효과적인 운영시스템에 의해 발전적인 형태로 운영 될 때, 광역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임

〈그림 4-10〉 광역 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요소



## V.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발전방안

### 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 가. 사업단 운영주체의 전문성 부족

- 사업단장의 채용요건과 자격요건 등 사업단장에 대한 자격 및 채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전문성 부족 등 자격이 부족한 사업단장으로 인한 사업단 경쟁력 저하 발생
  - 사업단장의 역량부족은 사업단 전체의 경쟁력 저하의 요인이 됨
  - 사업단장을 참여기업의 대표(농협의 경우, 조합장 겸직)나 지자체 공무원 또는 지역대학의 교수가 겸직을 하거나, 퇴직 임원을 다시 채용하는 사례, 전문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용하는 등 사업단장의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논란이 많음

〈표 5-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2005-2009년 지원사업)  
전문경영인과 비전문경영인 사업단장 현황 (단위 : 개)

구성	민간 CEO	비전문경영인(사업단장 겸직)					총계
		공무원	조합장	교수	연구 소장	소계	
사업단수 (비중)	31 (57.4%)	14 (25.9%)	5 (9.3%)	3 (5.6%)	1 (1.9%)	23 (42.6%)	54 (100%)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201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자료

- 사업단장과 사업에 대한 견제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기업의 이사회와 같은 운영위원회를 두고 사업 주요사항을 의결한다고 해도,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거수기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큰 문제가 있음.
- 사업단 소속의 직원은 자체직원과 참여기업 파견 직원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 파견직원과 자체직원 간의 갈등 발생이 일어날 수 있고, 잦은 인사이동이나 자체직원의 빈도 높은 퇴사 등으로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 저하 발생

- 사업단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갖추고 사업경영의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자에 한한다는 자격 요건 지침에 따르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리고 사업단의 직원은 참여업체나 기관의 파견이 아닌 자체 직원을 채용하여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임.
- 사업단장 채용은 참여기업이나 기관의 각각의 대표와 지자체장이나 지자체장이 임명한 공무원, 그리고 관련사업 분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채용인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채용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나. 산관학연 네트워크에 의한 협력체제 미약

- 참여기업, 사업단, 지자체, 그리고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협력체제가 취약함
  - 참여기업이나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양보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증대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대부분의 사업단이 대학과 연구기관을 참여기관으로 하여 지자체와 생산자단체(또는 민간기업)와 함께 산관학연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소수의 사업단만이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단은 형식적인 관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음
  - 사업단의 80%가 산관학연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작함. 이는 사업단 선정 평가에서 구성 조건이 산관학연으로 되어 있기에 때문에 선정되기 위한 형식을 갖춘 것으로 보임.
  - 실제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협력에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었음.
  -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협력에서 R&D와 같은 협력보다는 개별 교수의 자문 정도의 소극적인 관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음.
- 사업단의 산관학연의 협력체제 구성에 있어서, 참여기업이나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모니터

링하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표 5-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2005-2009년 지원사업)  
산/관/학/연 참여 비중(단위 : 개)

구성	산/관/학/연 모두참여	산/관/학/연 중 1~2곳 미참여 내역				총계
		산/관/학	산/관/연	산/관	소계	
사업단수 (비중)	43 (79.6%)	4 (7.4%)	5 (9.3%)	2 (3.7%)	11 (20.4%)	54 (100%)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201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자료

#### 다. 사업단의 독립성 부족

- 사업단장과 사업단 직원들은 참여기업의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인사권을 가진 참여기업의 요구가 불합리 하더라도 거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참여기업의 요구가 사업단의 경쟁력을 해칠지라도 거부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에 사업단의 자유로운 경쟁력 구축이 어려운 현실이 있음
  - 사업 또한 사업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참여기업들의 사업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기업 개별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으로써 본 사업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증대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사업단 조직형태가 다양하고 독립법인화율 저조
  - 독립형태는 50% 정도이고 나머지 50%는 기존 참여단체의 사업형태로 있던지, 아니면 지자체의 업무형태로 아예 법인화도 되지 않은 실정임
  - 비독립 또는 비법인화 형태의 사업조직은 경영의사결정과정에서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단장의 사업추진에 장애요소로 작용
- 사업단은 참여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법인설립과 사업단장과 직원 채용 등, 사업단이 독립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평가에 반영하여 할 것임.

〈표 5-3〉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2005-2009년 지원사업)의 법인화 형태 현황 (단위 : 개)

사업단수 (비중)	독립형태				비독립 또는 비법인화				총계
	회사 법인	사단 법인	영농조 합법인	소계	농업협 동조합	조공 법인	비법인	소계	
	17 (31.5%)	5 (9.3%)	5 (9.3%)	27 (50%)	3 (5.6%)	7 (13%)	17 (31.5%)	27 (50%)	

출처 : 농림수산물부(201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자료

## 라. 유사중복사업과의 차별성 제고 필요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과 유사사업으로는 농림수산물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과 농어촌자원복합지원사업,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지원사업, 그리고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사업과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등이 있음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해당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산업화하고 산·학·연·관을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어촌자원복합화 지원사업,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과 유사성을 지님
  - 지원대상의 경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해당지역에서 특성화할 수 있는 농수산물자원과 생산, 유통, 가공 등의 산업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타 산업과 유사함. 그러나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주로 지역향토 농수산물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낮고, 농어촌 자원복합화지원사업은 타 산업과 연계한 테마, 체험 중심의 사업이 많음. 또한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육성기업 역시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특화할 수 있는 산업에 기술을 융합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경우 기술융합측면에서 그 정도가 비교적 낮다할 수 있음
  - 지원분야는 대부분 H/W, S/W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과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어촌자원복합화지원사업은 H/W, S/W를 지원하되 부지 등 일정 H/W에서는 전체예산에서의 비중을 제한하고 있음. 반면 농공상용복합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과 지경부 RIS사업은 S/W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 사업대상자의 경우 비교사업 모두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형태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농식품부 지원사업의 경우 법인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경우 농수산물 중심, 농어촌자원복합화사업은 테마·체험중심,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은 농수산물과 기술의 융복합 중심이기에 현재까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중 일부가 농수축산물의 생산, 유통사업을 하고, 또한 테마 체험 중심을 하고 있고, 일부는 단순가공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유사사업과의 중복성이 있는 것임. 따라서, 유사사업과의 차별화를 통해 중복사업의 문제를 피하고 서로 보완 발전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본 사업은 원래의 취지에 따라 가공식품 중심 지원사업에 국한하고, 생산/유통이나 체험 및 테마 등과 같은 사업지원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임.
  - 성과가 낮은 개별 R&D 지원은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기존의 R&D 지원사업을 통한 통합 지원으로 대체토록 함
  - 전시장 및 직판매장 운영이라는 이유로 식당을 운영하는 등의 사업에는 지원이 더 어려서는 안 될 것임.
  - 단순가공은 지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위주로 지원사업 대상을 보다 집중화 하도록 해야 할 것임.

〈표 5-4〉 유사정책사업과의 차별성 분류표

구분	지역전략 식품산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어촌자원 복합화 지원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	지역연구산업 육성
사업 유형	가공중심	생산유통	생산유통/체험관광	가공/기능성중심	R&D중심
사업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의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사업추진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업조직</li> <li>생산자단체</li> <li>농수산물가공업체</li> <li>체험휴양마을사업자</li> <li>연구단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 농어업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li> <li>연구소</li> <li>기업</li> <li>기업지원기관 등</li> </ul>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중심</li> <li>H/W 사업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li> <li>H/W</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li> <li>H/W</li> <li>사업추진단 운영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중심</li> </ul>

#### 마. 사업대상자의 본 사업을 위한 준비 부족

- 본 사업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기간이 시작되면 일정과 예산집행 지침에 쫓겨 사업단의 역량을 제대로 갖출 수 없는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문제가 있음.
  - 다음연도 사업단이 전년도 하반기에 선정되어,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족함. 결국 사업이 시작된 후, 법인구성, 사업방향설정 등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일들에 시간과 예산을 소모하는 문제가 있음
- 전체 사업단의 57%가 1차년도에 매출 발생이 없었으며, 11%의 사업단은 지원기간이 끝난 3년 이후부터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 2005년도 사업단에 비해 2008/9년도 사업단은 초기 매출발생이 높아졌으나, 2008/9년도에도 50%가 넘는 사업단이 여전히 1차년도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사업단이 충분히 사업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단으로 선정되고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 따라서 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예비사업단을 선정하여 일정기간 준비기간을 거

치고 다시 평가하여 본 사업단을 선정하는 단계적 선정절차가 필요해 보임

- 예비사업단은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하고 책임감과 의지를 위해 자체 비용을 투입하여 준비를 하게하고, 준비 정도를 평가하여 본 사업단을 최종 선정토록 하는 것이 좋겠음
- 예비사업단의 본 사업을 위한 준비기간은 6월 혹은 1년으로 하고, 활동비 예산 지급은 최소한으로 하여 본인의 의지와 책임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음

〈표5-5〉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2005-2009년)의 지원사업기준 매출발생 년도분석(단위: 개)

	2005년 매출 최초발생년도					2008,09년 매출 최초발생년도					총계
	1차년	2차년	3차년	지원 사업이후	소계	1차년	2차년	3차년	지원 사업이후	소계	
사업 단수 (비중)	8 (14.8%)	3 (5.5%)	2 (3.7%)	7 (13.0%)	20 (37.0%)	15 (27.8%)	12 (22.2%)	3 (5.6%)	4 (7.4%)	34 (63.0%)	54 (100%)
	2005,08,09년 매출 최초발생년도										총계
	1차년		2차년		3차년		지원사업 이후				
	23 (42.6%)		15 (27.8%)		5 (9.2%)		11 (20.4%)		54 (100%)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201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자료

## 바. R&D에 대한 투자 부족

- 사업보고에서 R&D 지출 미기재 사업단 16개를 제외한, 나머지 39개 사업단에 대한 사업비에서 R&D가 차지한 비중을 보면, 59%가 R&D 집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억 이상 R&D 집행을 한 사업단은 33%인 것으로 나타남.
- R&D 연구비는 상품개발과 관련된 연구비와 축산물 분야의 생산이력시스템구축 개발 비용을 포함하며, 브랜드와 관련된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참여가 있더라도 형식적인 수준이며 연구성과라고 할 만한 사례

## 는 찾기 어려움

- 향후 R&D 지원은 사업단 예산에 포함하지 말고, 기술 수요를 조사하여 농기평이나 국가식품클러스터 R&D센터를 통해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제가 좋을 것으로 보임

〈표5-6〉 사업단별 R&D지원 금액별 분석표

구분	R&D투자비용(단위: 백만원)						총계
	0	1~100	101~200	201~300	301~400	401~500	
사업단 수	23	7	5	1	2	1	39
(비중 %)	(59.0%)	(17.9%)	(12.8%)	(2.6%)	(5.1%)	(2.6%)	(100%)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201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자료

주: R&D 출처 미기재 사업단은 제외(15개 사업단)

주: R&D비용 기준은 상품개발 및 실적적인 상품개발비용만(브랜드개발비용제외)

〈표5-7〉 R&D지원 1억 이상 사업단별 세부 분류표 (단위: 백만원)

사업단명	지원내역	지원금액
무주반딧불산머루	머루 가공기술 개발비용	100
남해보물섬시금치	냉동제품 및 건강 기능성식품 개발	102
홍천늘푸름한우	CLA강화된 한우고기 생산기술개발	116
서부충남고품질양돈	가공상품의 차별화 포장재 개발비용	137
청정약용작물	약용작물 고부가가치기술개발비용	142
논산에스민딸기	딸기 가공상품 및 재배기술 개발비용	182.6
완주감	감 가공상품 및 규격화 상품 개발비용	273
제주마산업	화장품/가공상품 개발비용(마유, 말태반)	308
영암무화과	단순상품연구개발	378
청보리녹색산업	청보리 바이오 상품소재 개발비용	1,470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201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자료

## 사.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대상자 선정 강화 필요

- 가공사업보다는 생산·유통사업에 치중되어 본 사업의 본래 취지 퇴색
  - 전체 사업단의 56%가 가공이 아닌 생산·유통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단의 44%가 가공사업을 하고 있음
  - 그러나 가공사업 주로 껏감, 감식초, 잼류, 음료제품, 가공약재류, 차류(녹차, 감잎차), 주류, 제빵 및 과자류, 축산가공품(치즈, 햄 등), 마유 등이며 그 가공정도나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가공품이며 새로운 제품류라기 보다는 기존 산지가공 식품의 종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음
  
- 사업단이 가공식품보다는 생산유통 사업에 주로 치중하고, 가공 또한 그 부가가치가 아주 높지 않은 사업 위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리스크가 큰 가공사업을 회피하고 공동판매와 같은 리스크가 크지 않은 안전한 사업에 치중하려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는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며, 기존의 사업과도 그 차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본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 지원사업 위주로 하고, 생산/유통 혹은 체험/테마 위주의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해야 할 것임. 그리고 참여기업이나 기관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민간부담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만들어야 할 것임.

〈표 5-8〉 사업단 사업유형 분류

구분	사업유형		총계
	가공	생산/유통	
사업단 수	24	30	54
(비중 %)	(44%)	(56%)	(100%)

출처 : 농림수산물부(201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자료

## 아.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합리성 제거 필요

- 설비투자의 경우, 초기년도에 투자가 많이 발생하지만 예산 지원은 전체기간에 나누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됨
  - 1년차 10억, 2,3년차 각각 20억원의 정부예산 지급 지침으로 1년차에 시설 투자가 집중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족으로 차질이 불가피 함
  - 사업단 별로 특성과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 2005/2008/2009년 사업단의 사업 애로사항 조사에서도 23%의 사업단이 주된 애로사항으로 ‘적절한 예산 배정 및 진행’을 꼽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연도별로 전체 예산규모를 정하고, 그 안에서 사업단의 특성과 계획을 고려하여 예산지원 규모는 총 사업기간에서 그 특성별로 연간 배분은 다르게 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표5-9〉 2005,08,09년 전체 애로사항 분류표 (단위: 개)

내용	사업단수
지속적인 운영 지원금 추가지원 요청	14 (25%)
적절한 예산 배정 및 진행에 대한 정책	12 (23%)
기타(다른 의견들)	28 (52%)
합계	54 (100%)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201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자료

## 2.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개선방안

### 가. 개선 방향

#### 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현재와 같은 육성사업 지원방식으로는 내실 있는 사업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충분히 준비된 사업단이기 보다는,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음.
  - 이들 사업단은 사업의 리스크가 크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새롭고 도전적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사업은 가능한 회피하고 공동판매와 홍보 위주의 생산/유통, 아니면 체험/테마 방식의 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가공사업이라 하더라도 단순가공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사업의 참여주체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선출된 사업단장은 처음부터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는 데 한계가 있음.
  - 농식품부의 제한된 인원으로 이 모든 사업단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본 사업의 모니터링 및 관리, 평가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새로운 추진 방향

-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사업전략 수립, 네트워킹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 사업이 바람직함.
  - 공장, 판매장, 전시장 등과 같은 하드웨어 시설물은 참여업체가 책임지고, 이러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S/W 중심의 전문 지원이 필요함
- 준비되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단을 육성 지원토록 해야 할 것임

- 시작부터 역량 있는 혁신적인 주체의 리더십에 의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사업단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일회성이나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부가가치 육성사업의 발굴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나. 개선방안

### 1) 사단법인 형태의 독립 사업단

- 사업단장은 독립적이며, 전문성과 함께 책임감을 갖고 사업에 임할 수 있는 전담 사업 단장
- 지역 기존 업체,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등의 기존 사업(농식품)과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단
- 사업단 제안은 사업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단체)가 사업단의 조직구성과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2) 단계적 과정

- 예비과정 : 6개월 혹은 1년 (소정의 운영비(인건비 및 활동비) 지원)
  - 예비사업단 선정 후, 6개월 혹은 1년의 사업 준비과정을 평가하고 최종 사업단으로 선정하는 단계적 선정과정 필요
  - 예비사업단에 선정된 사업단에게는 소정의 인건비와 활동비를 지급함
- 본사업 (1차) : 3년
  - 본 사업에 선정된 사업단은 3년의 기간에 사업을 수행토록 지원하되, 매년 평가하여

차년도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함.

○ 본사업 (2차) : 3년

- 1차 본 사업 기간의 종료 전에, 평가를 통해 2차 기간의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함.
- 본 사업의 지속성과 중장기적인 사업계획 및 성과를 위해 계속 지원을 통한 사업성과를 높이도록 함.

○ 사업종료 : 지역사회적기업(기관)으로 전환 및 독립발전

- 2차 기간 사업의 종료 후에는 그 동안 축적된 사업 역량을 통해 지역의 부가가치 사업의 발굴과 지원을 지속토록 장려함.
- 사업단의 경쟁력 여하에 따라 정부의 지역지원정책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지역 기업이나 생산자단체들과 협력 구축을 통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사업평가 주요 성과지표

- 지원대상업체의 경영성과(가동일수 증감, 매출액 증감, 국산원료사용률, 수출증감, 고용 기여정도 등), 지원대상업체 수

4) 사업단 선정방법

- 예비사업단 선정 : 소정의 사업단 운영비 지원 (1년)
- 본사업단 대상자 평가
- 1차 본사업단 선정 : 3년 지원 (매년 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여부 결정)

- 3년 후 2차 사업단 선정 : 1차 사업단 중에서 성과가 좋은 사업단을 2차 사업단으로 선정하여 추가 3년 지원 (매년 사업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여부 결정)
- 2차 사업단 사업종료 후 평가를 통해 지역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시드(seed) 성과금 지원
- 7년의 사업단으로서의 경험과 역량을 이용하여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단체)로의 발전 하여 독립하도록 함

#### 5) 지원예산

- 예비사업단 : 1억 활동비 지원
- 1차 본사업단 : 매년 10억씩, 3년 30억 지원(사업단 운영비는 지원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2차 사업단 : 매년 10억씩, 3년 30억 지원
- 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상위 30% 성과금 지급

#### 6) 사업단 자격

- 독립 사단법인으로 사업단을 목적에 맞춰 운영할 수 있는 조직으로 사업단장은 경력,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자
- 사업단 구성은 농식품, 생산자단체, 대학 등의 참여업체(단체)를 구성하여 신청함

## 7) 사업단의 역할

- 지원사업 중심이며, 자체 시설은 최소화하고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함. 또한 참여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 S/W 중심의 지원을 하도록 함.

### ○ 지원사업 내용

- 소프트웨어 중심 지원사업: 마케팅(홍보, 브랜드 및 디자인, 수출, 판로유통 등), 네트워킹(산관학연 연대 프로그램, R&D, 인력, 정보 등), 컨설팅, 교육 등 지원
- 산관학연 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

## 8) 향후 본사업의 집행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맡아서 수행

- 향후 본 사업은 전담 관리조직이 필요하며 단순한 예산지급뿐만 아니라 운영의 방향과 네트워크, 감사 등, 사업단의 전담 및 전문 지원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관리조직의 개선이 필요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사업이 단순히 클러스터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퇴색케 하는 것이기에, 국가식품산업의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전국의 정부지원 식품관련 지원사업의 관리와 평가, 그리고 네트워킹 및 지원 업무를 함께 맡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높이는 것이 좋겠음.
- 따라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가공식품지원 및 전국 식품관련 네트워크 중심역할을 고려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본 사업의 전담지원 및 관리업무를 맡도록 하는 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지원사업의 거버넌스 변화가 필요해 보임.

〈표 5-10〉 기존 사업과 개선 사업의 차이점

구분	현재 (As Is)	개선 (To Be)
사업단의 수행 사업	-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 산업화 및 마케팅 - 공동이용시설 건립	-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 산업화 및 마케팅
사업단의 조직	법인(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사단법인, 조공법인 등), 비법인 가능	(사단)법인
사업단의 영리사업 (가공, 판매 등)가능 여부	영리사업 가능	(운영 유지 목적)영리사업 가능
사업단의 신청사업	지역의 농식품을 이용한 신사업 발굴위주	지역 내 기존 사업의 활성화 또는 내실화를 위한 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없음	있음 (1년간 지원)
지원기간	3년 (평가 후 인센티브 지급)	예비사업기간: 1년 / 1차 본사업: 3년 / 2차 본사업: 3년 (1차 본사업 평가 결과) / 2차 본사업 평가 후 인센티브 지급
사업단장 선정	사업 주체들이 사업단장 선정	사업단장이 선임이 된 후 사업 주체 모집
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단 존속 불투명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단체)으로 전환
행정 관리 주체	- 농식품부 - 사업의 기획과 관리의 일원화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 사업의 기획과 관리의 이원화 - 사업의 기획은 농식품부 - 사업의 관리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 3. 지역전략식품산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계 발전방안

#### 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발전계획

##### 1) 추진경과

- 한미 FTA 협상타결(2007. 6)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시작
  - 식품산업의 뿌리인 농, 어업 발전전인을 위한 식품산업 인프라강화 차원의 성격
- 전북 익산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지로 최종 선정(2008.12.26)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2011.2)

##### 2) 추진계획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새만금·혁신도시 개발 등 주변 여건과 기업수요를 고려하여 2단계로 나누어 조성
  - 1단계(2012~2015) : 종합계획 수립 및 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 등
  - 2단계(2016~2025) : 기업·연구소 입주 및 본격운영

〈표5-11〉 국가식품클러스터 주요사업 계획

분야	정부지원시설구축(H/W)	기업지원사업(S/W)
주요사업	◆1단계 1.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2. 식품기능성평가센터 3. 식품품질안전센터 4. 식품패키징센터 5. Pilot Plant 6. 임대형 공장	1. 고부가가치식품 R&D 및 네트워크 구축 - 고부가가치 상품화 연구개발 지원 - 기능성 식품개발 및 육성 - 국내외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2. 식품 수출거점 기지화 - 글로벌 식품수출 거점기지 구축 - 식품기업 수출시장 개척지원 - 입주기업 물류지원 체계 구축
	◆2단계 1. 글로벌 발효식품연구소 2. 글로벌 식생활 및 영양연구소 3. 식품기계 및 소재산업연구소 4. 글로벌 식품디자인센터 5. 식품임상시험센터 6. 3대 식품특성화 대학유치 7. 입주기업 복지문화센터 8. 비즈니스 컨벤션센터	3. 농어업 동반성장 및 6차 산업화 - 농어업·식품산업 연계발전 체계구축 - 관광산업과 연계로 식품산업의 6차 산업화 4. 식품기업 인력공급 및 역량강화 - 입주기업 인력양성 및 유치지원 - 식품기업 경영부담 완화 및 역량강화

자료 : 전북일보(2012.9) '국가식품클러스터 어떻게 돼가나?'

〈표5-12〉 국가식품클러스터(KnFC) 분야별 목표

		2020년	
단지조성	조성규모	232만 m <sup>2</sup> (70만평) * 배후도시 126만 m <sup>2</sup>	
	기업입주(투자유치)	150개(연구소 10개)	
	선도(앵커)기업	15개	
	중견기업	85개	
	중소기업	50개	
기대효과	매출	150억\$ (15조원)	
	수출(매출의 20%)	30억\$ (3조원)	
	농어업 소득증대(성장견인)	50억\$ (5조원)	
	고용창출	22천명	
입주시설	기업지원시설	6개 H/W시설(2015) * 정부건립	
	3대 특성화 대학, 기타연구시설	개별유치 추진	
중점 추진 목표	애로해소	기능성식품 인정 등록기간 단축	5년 → 2~3년
		식품안전성 검사기간 단축	14일 → 7일
		식품패키징 검사 단축	1/2 단축
	고부가가치화	스타기능성식품(Hidden Champion)	연 2개
		맛·향·식감 등 기호적 품질관리	연 5개
		스타 패키징 제품개발	연 5개
		5대 전략식품의 스타식품 개발	연 5개
	경쟁력강화	글로벌 TOP100 진입기업	5개
		중견기업의 대기업화	30%
		글로벌 식품테마파크, 4계절 축제	식품관광 명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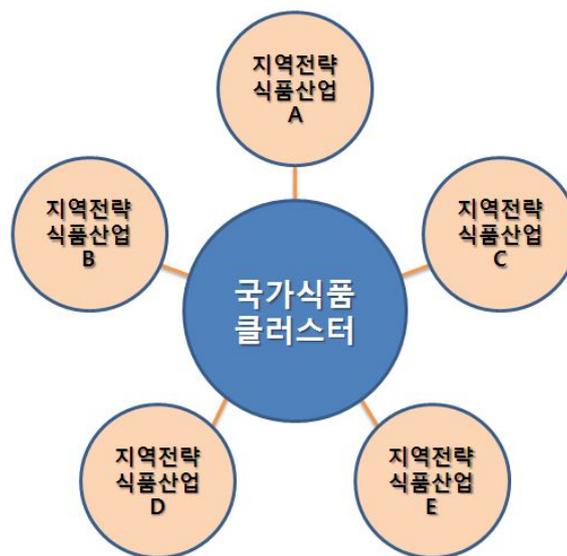
자료 :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안)(2012.6),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 나.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전략식품산업의 연계지원<sup>15)</sup>

### 1)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농업클러스터의 협력체계 구축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지역전략식품산업과 연계하여 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역전략식품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허브역할을 하며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

〈그림 5-1〉 지역전략식품산업의 허브



자료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2010),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기본계획수립연구, 농림수산식품부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지역전략식품산업과 연계하여 신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전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하도록 함
  - 지역전략식품산업과 연계하여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신상품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단, 연구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조성
  - 신상품 출시 동향과 판매정보를 공유하여 상호 경쟁력을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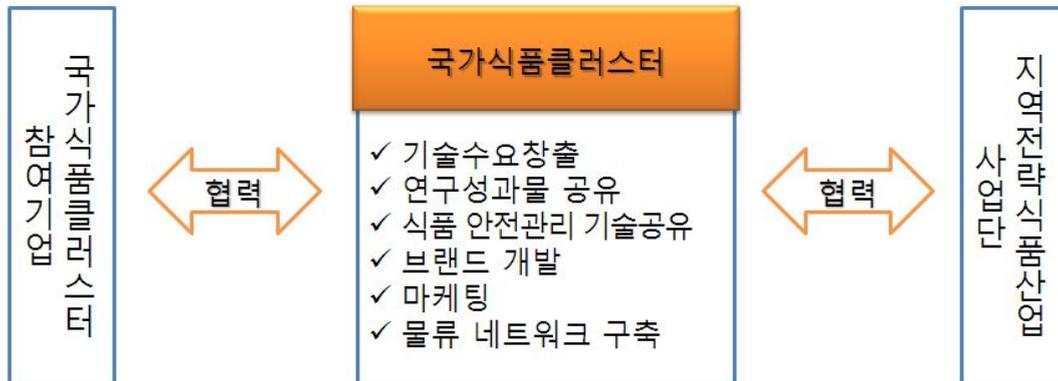
15) 자료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2010),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기본계획수립연구, 농림수산식품부 보고서를 참조하여 재정리

-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지역전략식품산업의 기술 수요조사 결과를 식품 클러스터 내 입주한 연구기관과 공유하여 기술연구 성과물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시장을 개척하여 연구 성과물 확산에 기여하고 클러스터 내 연구소의 성과물들을 타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 확산시키도록 함. 또한 연구과제를 사업단과 공동으로 발굴하여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
-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지역전략식품산업에 부족한 운영 Know-how 전수와 지역에서 하기 어려운 클러스터 정책개발 및 입주업체 지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

## 2)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기업과 지역농업클러스터의 협력체계 구축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네트워킹 담당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참여기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의 네트워크를 주도해야 함
  - 참여 기업은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주도하에 지역전략식품산업의 기업과 협력하여 필요한 기술수요를 창출하고 기술개발을 클러스터 지원센터에 요청하여 연구 성과물을 공유함으로써 Win-Win이 가능함
  - 지역전략식품산업의 사업단은 기술수요 정보를 클러스터 지원센터에 제공하고 지원센터는 클러스터 내 적합한 기술개발 관련 파트너를 지역전략식품산업 내 기업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함
  - 식품 기업은 지역전략식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식품관련 정보 취득은 물론 식품관련 기술 공유가 가능함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지역전략식품산업과 네트워킹 역할로 공동 물류망과 판매망을 구축함
  - 지역전략식품산업과 협력하여 공동브랜드 개발은 물론 마케팅 지원 활동이 가능
  - 지원센터가 입주기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과의 가교역할을 하여 협력업무 개발 등을 공동 추진

〈그림 5-2〉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기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의 협력



자료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2010),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기본계획수립연구, 농림수산식품부

-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은 지역전략식품산업에 수준 높은 식품안전관리나 검사 체제를 제공하여 지역농업 클러스터 기업의 식품 안전관리 경쟁력을 확보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축적된 식품관련 노하우를 지역전략식품산업에 전수함
- 지역전략식품산업의 경쟁력향상은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함

### 3) 연구기관과 지역전략식품산업의 협력체계 구축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성과 확산팀에 의한 연구 지원 및 신기술 연구에 지역전략식품산업을 참여시켜 시너지효과를 창출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해 있는 국책연구소, 민간연구소, 대학연구소와 지역전략식품산업을 연계하도록 하여 새로운 분야의 R&D를 공동추진하고 이를 통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R&D의 공동추진을 위해 연구 장소, 기자재 구입 등 새로운 공동연구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구축함
- 연구소와 지역전략식품산업이 연계되지 못하더라도 지원센터에서는 클러스터 내 연구기관의 성과물들을 타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 가능성 있는 지역전략식품산업의 품목을 발굴하여 이를 연구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4) 기타관련기관과 지역전략식품산업의 협력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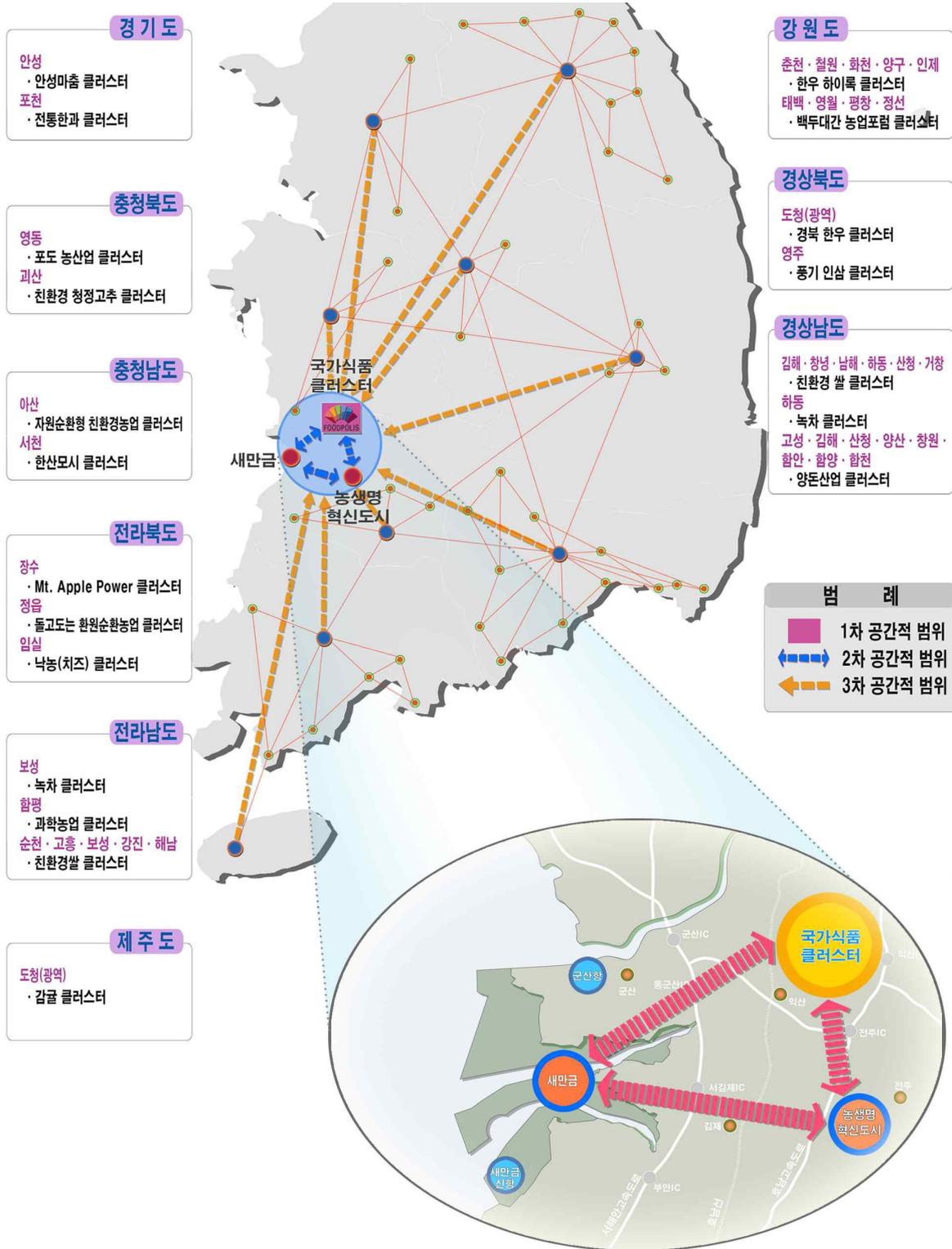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주도로 식품유관기관(포장, 기계, 검사)과 지역전략식품 산업을 연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설비를 지역전략식품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식품관련 포장, 기계, 안전성 검사, 자문, 컨설팅, 경영지원 분야 등 지역전략식품 산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전략식품산업의 성과가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센터와 지역전략식품산업의 MOU 체결을 통하여 클러스터 내 기술혁신 및 신제품(브랜드 등)을 홍보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전략식품산업의 벤처환경 조성을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지원해줌으로써 벤처창업 지원 및 인큐베이터 역할을 지역전략식품산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공동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함

〈표 5-13〉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전략식품산업의 연계방안 종합

구분	지역전략식품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브랜드개발</li> <li>• 지원센터의 홍보 및 마케팅지원을 통하여 틈새시장 개척</li> <li>•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에 지역전략식품산업의 기술수요 정보를, 지역 전략식품산업에 기술정보 및 지원정보를 제공</li> <li>• 물류 및 판매망 구축</li> <li>• 식품 안전관리의 경쟁력 확보 가능</li> </ul>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금 지원 및 신기술 연구에 의하여 시너지 효과 기대</li> <li>• 연구소와 지역전략식품산업 간의 공동 R&amp;D 추진 및 결과 공유</li> <li>•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는 연구 장소, 기자재구입 등 제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소의 성과물을 타 지역으로 확산</li> <li>• 가능성 있는 지역전략식품산업의 품목을 발굴하여 이를 연구소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li> </ul>
국가식품클러스터 기타관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설비를 지역전략식품산업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li> <li>• 식품관련 포장, 기계, 안전성 검사, 자문, 컨설팅, 경영지원 분야 등 관련 서비스 제공</li> <li>• 벤처창업 지원 및 인큐베이터 역할을 지역전략식품산업과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공동으로 진행</li> </ul>

자료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2010),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기본계획수립연구, 농림수산식품부

<그림 5-3 > 클러스터 통합을 통한 혁신 네트워크 구축 방안



자료 :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안)(2012),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 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전략식품산업의 공동 추진사업

### 1) 전문식품인력 양성사업

#### ○ 필요성

- 지역전략식품산업을 수행하는 사업단의 상당수가 인력충원의 어려움과 인적자원의 개발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개별 사업단의 발전적인 지역 전략식품산업 추진에 기여하고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지속적인 식품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 글로벌화에 따른 시대조류에 대응 및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위한 식품 인력의 육성이 필요
- 식품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기업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맞춤형 전문 식품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 및 사업단의 안정적 발전과 성과확산을 도모

#### ○ 추진방안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개별 지역전략식품산업 사업단을 대상으로 식품인력수요 조사를 수시로 시행하여, 맞춤형 전문 식품인력 양성계획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수행함
- 식품인력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전문 인력양성을 기본 목표로 하고 전문 기능인력과 연구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식품인력개발사업의 방향은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입주기업, 외부 전문기관 및 대학, 연구소와 협력방안을 통한 교육 등으로 구성 됨

### 2) 상품 판로 개척 및 해외시장개척 사업

#### ○ 필요성

- 지역전략식품산업 참여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업체로 국내·외 홍보강화, 판매망 구축 및 신규거래선 탐색을 위한 S/W분야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공동으로 적합한 유통채널을 모색하는 한편 마케팅 교육과,

전략수립, 수출시장 분석 및 알선 등의 협조가 필요함

#### ○ 추진방안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전문 마케팅 전문업체를 유치하고 지역전략식품산업의 사업단과 업체에도 동일한 수준의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
-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사업단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방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지역의 발전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국내 판매망 알선, 공동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는 한편, aT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연계한 해외 수출 거래선 확보와 수출교육, 지원제도를 마련

### 3) 지역브랜드 강화 및 R&D 분야 협력사업

#### ○ 필요성

-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전략식품산업의 브랜드를 위한 사업단들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브랜드의 정착이 미흡함
- 지역전략식품산업의 연구기관 집적정도가 미비하며, 인근 대학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정도로 연구분야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전략식품산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 연구소, 유관기관들과의 지역식품 안전성 강화와 R&D 개발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한 정보교환, 교육, 기술 컨설팅, 검사, 안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할 것임

#### ○ 추진방안

- 지역전략식품산업 사업단 및 참여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식품기업,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별 작목반 및 농업법인, 품목 시험소, 공공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보교류 모임을 구성하고 컨퍼런스,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연구활동과 R&D를 위한 주체들의 모임을 활성화 함
- 지역전략식품산업 사업단과 참여기관에 필요한 연구에 대해 공공 연구기관으로의 발주를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대행하여 관리하며, 관련된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공유 및 배포와 매칭서비스 등의 노력으로 지역전략식품산업이 최신 식품산업의 변화에 맞추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 참고문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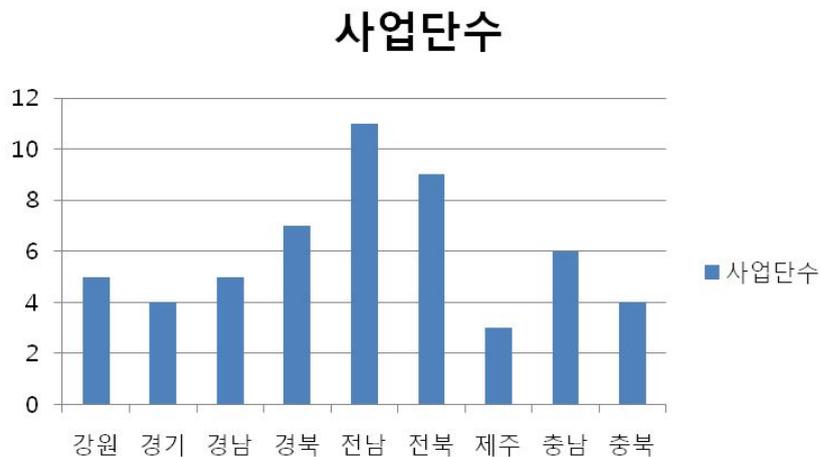
-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안)(2012.6),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 김창길 외(2008),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성과제고 및 사후관리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수산식품부(2012.5), 『2012년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업무편람』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http://manual.agrix.go.kr/home/index.php>
- 지식경제부(2011.12.30). 2012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수도권 신규사업 공고문
- 농림수산식품부(2010).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기본계획수립연구
- 농림수산식품부(2012), 『2012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30개 사업 선정』
- 박시현 외(2010), 경북혁신도시 클러스터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산채이야기(2012), RDA Interro bang 61호, 농촌진흥청
- 양구군 통계연보(2011)
- 영양군 통계연보(2011)
- 울릉군 통계연보(2011)
- 영양군청 홈페이지 ([www.yyg.go.kr](http://www.yyg.go.kr))
- 이동필 외, 2010, 경제·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농어촌경제 활성화 방안(2/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산물생산조사(2011), 산림청
- 전북일보(2012.9) ‘국가식품클러스터 어떻게 돼가나?’
- 주성재(2003), 광역클러스터 개념의 도입과 정책과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6권 2호(327-338)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2010),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기본계획수립연구, 농림수산식품부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자료(2011), 농림수산식품부
- (주)지역농업네트워크(2007). 지역농업클러스터활성화를 위한 본사업 추진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 최상철, 송우경(2009)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방향과 전략, 지역발전위원회
- 청도군 통계연보(201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5), “지역농업 클러스터 발전방안”
- 한표환(1997), 광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간 협력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표환 외(2002),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부 록 ]

###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지역별 현황 분석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생산 상품의 지역성 특성과 사업단 구성에서의 지역적 편중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지역별로 지원 사업 분포도를 보면 전체의 약 40%정도 호남지역에 편중 되어있으며 타 지역 대비 약2~4배정도임
  - 다른 지역에 비해 호남지역이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 사업이 고르게 분포됨
  - 일부지역에서는 단일 품목의 상품을 생산 유통하는 반면, 호남지역은 다양한 사업 유형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
-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지역별로 생산유통 사업유형에 편중되어 있는 축산(한우, 돈육 등)사업이 각 지역마다 1~4개 사업단으로 가장 많이 분포 되어있음
  - 지역별로 사업유형이나 사업단 구성이 비슷한 사업이 많음

〈부록-그림1〉지역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진행 현황



- 강원도 지역의 5개 지원 사업에서 1개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축산업, 특히 한우 중심의 사업만 집중 되어 있음
  - 강원도 지역에는 생산유통 사업 유형이 전체의 100%로 집중화 되어있음
  - 특히 한우 사업 중심에 단순한 생산유통 사업이 많음
  - 매년 사업단의 신청하는 것을 보면, 비슷한 사업(한우사업)으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부록-표1〉지역별 지역전략식품산업 강원도 지역 분석표

지역	사업단명	선정 년도	사업유형				생산품목0
			생산	유통	가공	테마(3차)	
강원	강원한우하이록	2005	○	○			한우
	백두대간		○	○			콩,전두부
	강원영동한우령	2008	○	○			한우
	홍천늘푸름한우		○	○	○		한우
	산우리재래돼지	2009	○	○			양돈

출처: 농림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자료

주: 홍천늘푸름한우는 가공이 포함되어 있지만 식재료 유통가공의 일부임

- 호남 지역은 전국의 54개 지원 사업단 중에 20개의 사업단을 구성하며 전체의 약37%로 높은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음
  - 전북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 사업단 유형이 한 방향으로 편중 되어 있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었음
  - 생산/유통사업(33.3%), 가공사업(33.3%), 테마가공사업(33.3%)로 분포
  - 전북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 가공, 테마 사업의 활성도가 높으며 다양한 생산품을 여러 가지 사업측면에서 실시하고 있음
  - 전남에 경우에는 순수한 생산/유통사업의 분포가 64%를 넘고 있음
  - 호남지역의 참여도가 많아 다양한 사업단을 구성하는 반면에 지자체의 비용이 부족해서 예산의 원활한 배정이 어려운 실정임

〈부록-표2〉지역별 지역전략식품산업 호남지역 분석표

지역	사업단명	선정 년도	사업유형				생산품목
			생산	유통	가공	테마(3차)	
전남	보성녹차	2005	○	○	○		녹차
	함평과학농업		○	○	○		복분자,새송이버섯, 단호박,감
	전남친환경쌀		○	○			쌀
	영암무화과	2008	○	○			무화과
	곡성메론		○	○			메론
	신안시금치		○	○			시금치
	구례산수유		○	○			산수유
	무안황토고구마	2009	○	○	○		고구마
	녹색한우명품화			○			한우
	전남딸기		○	○			딸기
	우리밀광역		○	○	○		밀
전북	M.APPLEPOWER	2005	○	○			사과
	정읍환원순환농업					○	친환경농산물, 한우
	임실치즈(낙농)				○		치즈, 낙농
	진안친환경한방	2008				○	홍삼
	무주반딧불산머루				○		산머루
	남원친환경흑돈		○	○	○		양돈
	완주감			○	○	○	감
	NH참여우	2009	○	○			한우
청보리녹색산업	○		○			보리	

출처: 농림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자료

주: 테마 사업유형은 테마가공 사업도 포함하고 있음

○ 경기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원사업의 참여도가 떨어짐

- 사업단 유형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공사업과 생산유통사업 구성이 50:50인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업 참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표3〉지역별 지역전략식품산업 경기도 지역 분석표

지역	사업단명	선정 년도	사업유형				생산품목
			생산	유통	가공	테마(3차)	
경기	안성마춤	2005	○	○			쌀, 한우, 배, 포도
	포천전통한과마을				○		한과
	화성웰빙떡	2008			○		떡
	팔당클린농식품	2009	○	○			친환경농산물

출처: 농림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자료

- 영남 지역은 호남 지역에 이어 2번째로 참여 사업단이 많은 지역이지만 호남지역에 비해 참여율은 절반(18.5%)정도 수준임
- 영남 지역은 전체적으로 약 55%이상이 생산/유통사업유형으로, 가장 많은 생산/유통 사업단을 보유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사업유형의 다각화가 필요해 보임

〈부록-표4〉지역별 지역전략식품산업 영남 지역 분석표

지역	사업단명	선정 년도	사업유형				생산품목
			생산	유통	가공	테마(3차)	
경남	경남친환경쌀	2005	○	○			쌀
	하동군지역특화산업				○		녹차
	경남양돈산업		○	○			양돈
	남해보물섬시금치	2008	○	○	○		시금치
	경남서북부한우		○	○			한우
경북	경북한우	2005	○	○			한우
	풍기인삼		○	○			인삼
	경산종묘	2008	○	○			종묘
	상주고랭지포도					○	포도
	영천와인		○	○			포도,와인
	감고부가가치	2009			○		감
	청정약용작물				○		약용작물

출처: 농림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자료  
 주: 테마 사업유형은 테마가공 사업도 포함하고 있음

- 제주도 지역은 특화관광지이면서도 테마사업 유형이 적으며 많은 특화상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단 참여율이 가장 저조함
- 제주는 관광지역으로 다양한 특화 지역특산품이 있지만 사업단의 전체에 5.5%로 가장 적음
- 특히 가공사업유형의 사업단이 1곳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주로 생산유통 사업임

〈부록-표5〉지역별 지역전략식품산업 제주도 지역 분석표

지역	사업단명	선정년 도	사업유형				생산품목
			생산	유통	가공	테마(3차)	
제주	제주감귤	2005	○	○			한라봉,감귤
	제주마산업	2008	○	○			말,식용마
	제주넙치	2009		○	○		양식넙치

출처: 농림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자료

- 충청도 지역은 전국적으로 참여도가 3번째로 좋으며 사업의 다양한 생산품목 및 사업의 다각화를 보여줌
- 충남 지역은 가공사업유형이 전체의 60%가 넘으며 테마 사업도 33%, 순수한 생산유통 사업은 17%밖에 되지 않음
  - 충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순수한 생산유통사업의 유형이 100%에 속하고 있음
  - 충청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생산품목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부록-표6〉지역별 지역전략식품산업 충청도 지역 분석표

지역	사업단명	선정 년도	사업유형				생산품목
			생산	유통	가공	테마	
충남	자원순환형친환경농업	2005				○	친환경농산물, 한우
	한산모시				○		모시
	서산생강	2008	○	○			생강
	논산에스민딸기				○	○	딸기
	홍성백년대계한우		○	○	○		한우
서부충남고품질양돈	2009	○	○	○	○	양돈	
충북	영동포도	2005	○	○			포도
	친환경괴산청정고추		○	○			고추
	충북친환경축산	2008	○	○			한우, 양돈, 양계
	육품정육우	2009	○	○			육우

출처: 농림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자료



##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

2012년 10월 30일 인쇄

2012년 10월 31일 발행

편 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발 행 농림수산식품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TEL: 02) 2110-4000 FAX: 02) 503-7249

---